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세미나

일시 2017년 3월 3일(금) 오전10시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1연수실

주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세미나

발행일_ 2017년 3월 3일(금)
발행인_ 홍정길
편집인_ 정병오
편　집_ 박제민
발행처_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140-01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Tel_02-794-6200　Fax_02-790-8585　Homepage_**www.cemk.org**

•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기윤실 블로그에서 세미나 이후 파일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세미나

일시 2017년 3월 3일(금) 오전10시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1연수실
주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세미나

순서 및 목차

▌**인사말** - **배 종 석**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본 여론조사 검토위원장)

▌**여론조사 결과 기초보고서** 3

▌**여론조사 질문지** 47

▌**기조발제** - **조 흥 식**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여론조사 책임연구원) 52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분석

▌**주제발제 1** - **조 성 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90
50% 불신의 벽을 넘어야 한다.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

▌**주제발제 2** - **지 용 근** 대표이사 (지앤컴리서치 - 본 여론조사 수행기관) 96
타 여론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본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조직구성 / 진행일정 / 후원자 명단** 108

여론조사 결과 기초보고서

기초보고서 차례

제 1 장. 조사 개요 5

1. 조사 목적 6
2. 조사 차수 6
3. 조사 설계 6
4. 응답자 특성 7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8

제 3 장. 조사 결과 13

1. 한국교회의 신뢰도 14

1-1. 전반적 신뢰도 14
1-1. 전반적 신뢰도(계속) 16
1-2. 속성별 신뢰도 17

2. 신뢰기관 평가 19

2-1. 가장 신뢰하는 기관 19
2-2. 가장 신뢰하는 종교 21

3. 종교 관련 인식 23

3-1. 사회봉사 활동 적극 수행 종교 23
3-2. 향후 10년 후 증가할 종교 25

4. 한국교회 관련 인식 27

4-1.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견 27
4-2. 올해 대선 과정에서의 기독교 역할 29
4-3. 한국교회 활동 정보 인지 경로 31

5. 한국교회의 과제 33

5-1.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33
5-2.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35
5-3.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37
5-4.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39

6. 기타 41

6-1. 종교분포 41
6-2. 종교적 믿음의 깊이 43
6-3. 종교별 이념성향 45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지난 2008년 첫 번째 조사를 시작한 이래 다섯 번째로 진행되는 추적 조사 연구로서 현재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파악 및 교회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2008년	2009년	2010년	2013년	2017년

3.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남여
조사 지역	전국 (제주 제외)
조사 방법	유무선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 듀얼 프레임 추출틀로 진행한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전화면접조사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표본)
표본 추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법(Random Sampling)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 된 자료는 Editing – Coding – Punching – Clean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17년 1월 20일 ~ 21일(2일간)
주요 조사 내용	한국교회의 신뢰도 평가 : 전체, 속성별 신뢰기관 평가 : 가장 신뢰하는 기관, 가장 신뢰하는 종교 종교관련 인식 : 사회봉사 활동 적극적 수행종교, 향후 10년 증가 종교 한국교회 관련 인식 :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 정보 인지 경로, 올해 대선과정에서의 역할 한국교회의 과제 : 한국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사회적 활동 목회자 및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기타 : 이념성향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4.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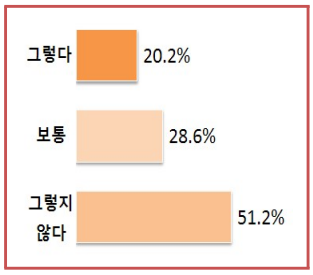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000)	100.0
성별	남자	498	49.8
	여자	502	50.2
연령	만 19~29세	178	17.8
	30대	179	17.9
	40대	206	20.6
	50대	199	19.9
	60대 이상	238	23.8
학력	고졸 이하	377	37.7
	대재 이상	623	62.3
직업	농/임/어업	23	2.3
	자영업	175	17.5
	블루칼라	89	8.9
	화이트 칼라	279	27.9
	가정주부	231	23.1
	학생	104	10.4
	무직/기타	99	9.9
종교	기독교	193	19.3
	가톨릭	83	8.3
	불교	178	17.8
	기타 종교	6	0.6
	종교 없음	540	54.0
지역	서울	199	19.9
	인천/경기	301	30.1
	대전/충청	105	10.5
	광주/전라	105	10.5
	대구/경북	101	10.1
	부산/경남	159	15.9
	강원	30	3.0
생활수준	상/상중	218	21.8
	중	440	44.0
	중하/하	342	34.2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1. 한국교회의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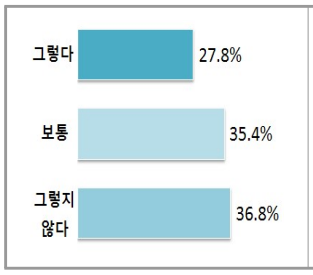
- 2017년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는 20.2%(5점 평균 2.55점)으로 2013년 결과(19.4%, 2.62점)와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계층별로 살표보면, 2013년 대비 30-40대 연령층에서 신뢰도가 하락한 반면, 기독교인들에게서 증가률(+12%)이 컸다.
- 한국교회활동, 목회자, 기독교인 각각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30%를 밑도는 낮은 비율을 보임 2013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한국교회 활동 신뢰와 목회자 신뢰 항목이 미미하게 하락함.

<전반적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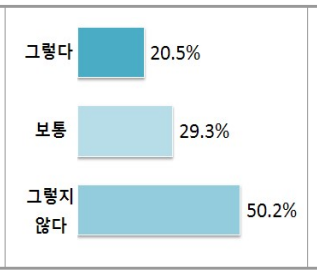
5점 척도 평균
2.55점

<한국교회 활동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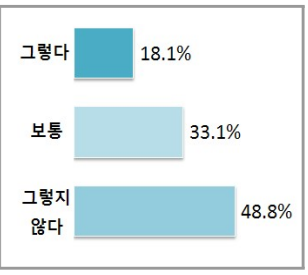
5점 척도 평균
2.87점

<목회자 신뢰>



5점 척도 평균
2.54점

<기독교인 신뢰>



5점 척도 평균
2.56점

- 연령별로 30대 연령층에서 특히 낮은 신뢰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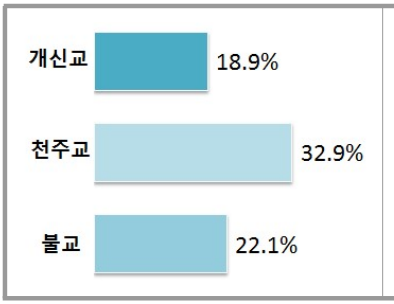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명)	전반적 신뢰도 (5점척도 평균점수)	한국교회 활동은 사회에 도움(점)	기독교 목사의 말/행동 신뢰(점)	기독교인의 말/행동 신뢰(점)
전 체	1,000	2.55	2.87	2.54	2.56
20대	178	2.47	2.71	2.40	2.60
30대	179	2.37	2.67	2.33	2.40
40대	206	2.39	2.74	2.41	2.53
50대	199	2.58	2.84	2.52	2.41
60대	238	2.87	3.28	2.93	2.79

2. 신뢰 종교 및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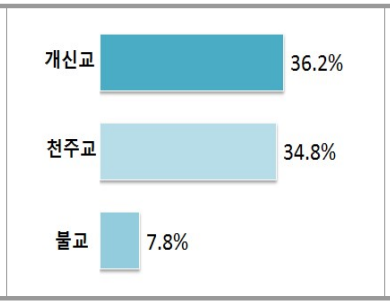
-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32.9%)>불교(22.1%)>기독교(18.9%)의 순으로 기독교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2013년 대비 순위는 동일하나 불교가 크게 하락하여 불교와 기독교의 격차가 6.7%p에서 2.4%p로 줄어듬.
  - 기독교는 '사회봉사에 적극적인 종교' 1위, '10년 후 가장 증가될 종교' 1위로 각각 평가받음.

-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는 '시민단체'(29.9%)가 2013년과 동일하게 1순위로 꼽혔으며, '종교기관'은 9.7%(2013년 9.2%)로 언론기관(10.9%)과 함께 2위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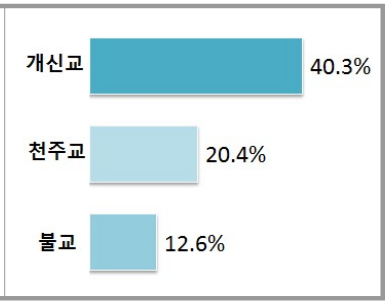
<가장 신뢰하는 종교>



<사회봉사 적극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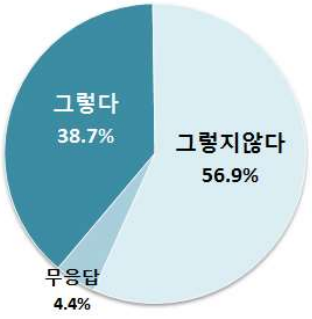
<10년 후 증가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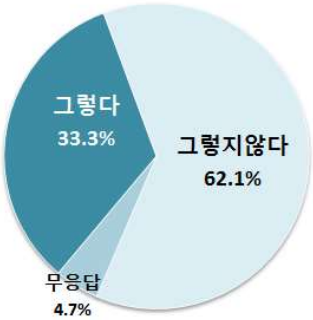
3. 한국교회의 역할 평가

- 한국교회에 관해 '세상과 소통', '사회통합 기여', '현 시국에서의 역할' 모두 긍정비율이 40% 미만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현 시국에 대한 역할 평가는 20%대의 낮은 평가를 받음.
- 종교별로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소통'(62.7%), '사회 통합'(55.6%)에 대해 긍정률이 과반을 넘고 있으나, '현 시국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36.4%에 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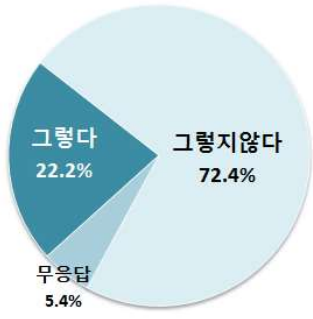
<교회밖 세상과 '잘소통한다'>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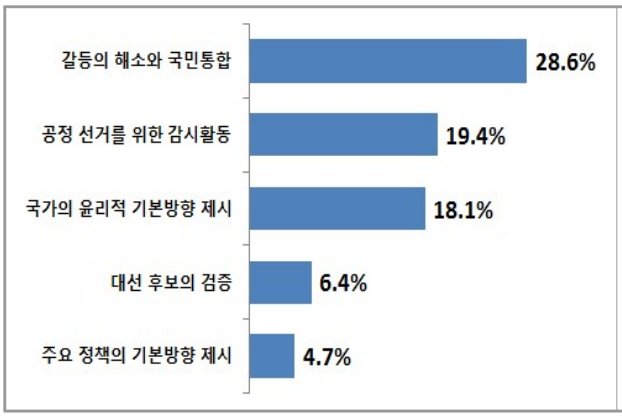
<현 시국에서의 역할 '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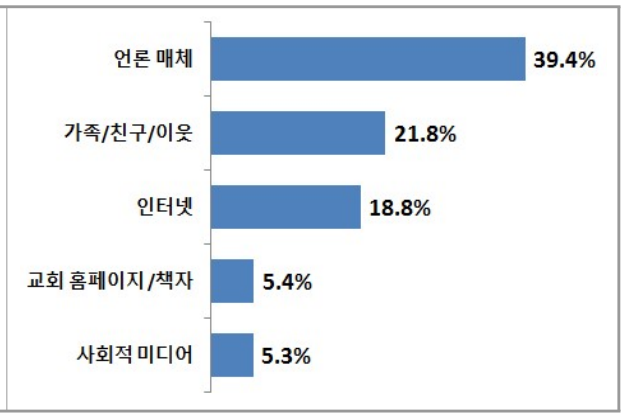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명)	교회 밖 세상 잘 소통		사회통합에 기여		현 시국에서의 역할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전 체	1,000	38.7	56.9	33.3	62.1	22.2	72.4
기독교	193	62.7	34.3	55.6	41.4	36.4	57.7
가톨릭	83	42.2	49.4	48.1	48.4	28.1	64.2
불 교	178	34.0	60.0	35.3	56.3	20.7	69.2
종교없음	540	31.2	65.0	22.5	73.3	16.9	79.9

- 올해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기독교에 기대하는 역할은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들은 한국교회에 대해 주로 '언론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거 대비 그 비율이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인터넷이나 SNS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대선 과정에서 필요한 기독교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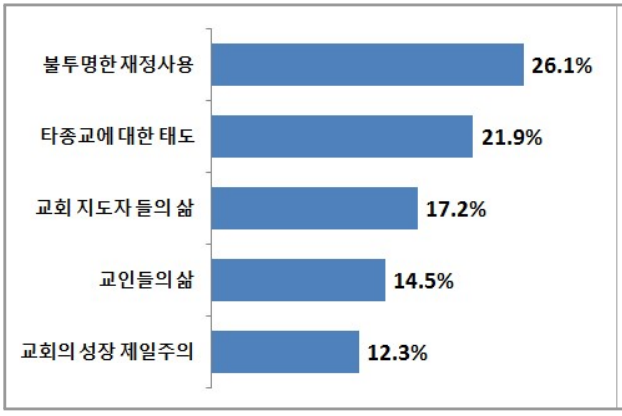
<한국교회 활동 정보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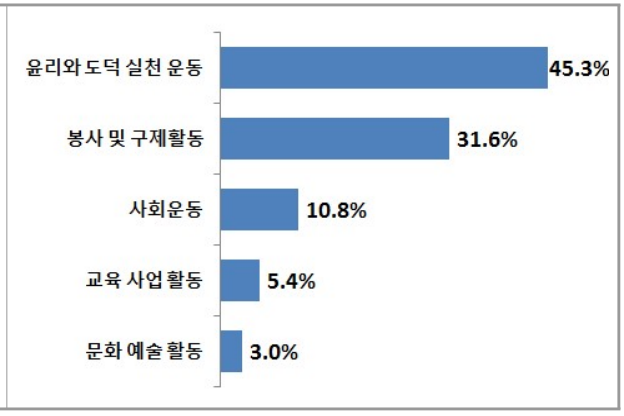
4. 한국교회의 과제

-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한 개선점으로 '불투명한 재정사용' 이 가장 높게 지적됐는데, 이는 과거조사 대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또 한국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으로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45.3%)이 1위로 응답된 반면, 2010년까지 1위였던 '봉사 및 구제활동'은 2위로 응답됐는데 과거 대비 계속 하락되는 수치를 기록함.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의견은 특히 비기독교인에게서 요구가 높은데, 이는 한국교회에 대해 더 이상 봉사/구제 활동에 머무르지 말고 실천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한국교회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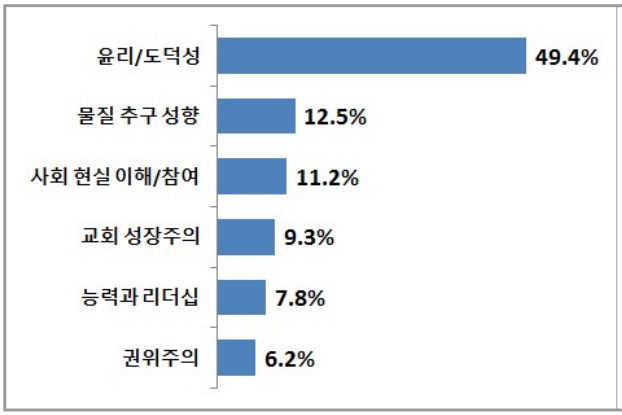
<한국교회 사회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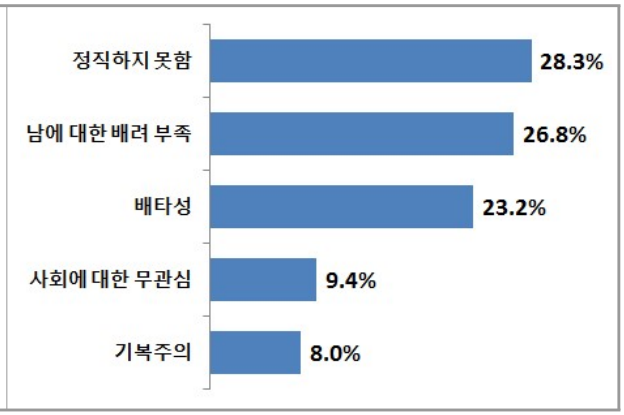
- 목회자의 개선점으로 일반국민들은 '윤리/도덕성' 문제(49.4%)를 압도적으로 높게 지적했는데, 특히 무종교인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음.

기독교인들의 개선점으로는 '정직'과 '배려' 등 실천적인 삶과 성품에 대한 요구가 높음.

<목회자 개선점>



<기독교인 사회활동>



5. 종합 요약

Key Point

- 한국교회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도는 본 조사가 처음 시작됐던 9년전(2008년)과 비교해 더 나아지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음 (2008년 18.4%/2.55점, 2017년 20.2%/2.55점)
- 종교별 상대적 신뢰도에서 기독교는 2013년과 동일하게 가톨릭과 불교에게 뒤지고 있지만 본 조사에서 불교와의 격차를 표본오차내로 줄인 것으로 나타남
- 국민들은 목회자, 기독교인보다는 한국교회활동에 대해 더 높은 신뢰를 주고 있음
- 한국사회는 목회자들에게는 엄격한 윤리/도덕성을, 기독교인들에게는 정직과 배려를 요구하고 있음
-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역할 관련 '세상과 소통', '사회통합 기여', '현 시국에서의 역할' 측면에서 국민들은 20-30%의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 국민들은 한국교회에 대해 현 시국에서 갈등의 해소와 국민통합 기능을 요구하고 있음
- 그동안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강점인 봉사/구제활동에 대해 국민들은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을 전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1. 한국교회의 신뢰도

1-1. 전반적 신뢰도

문1

○○님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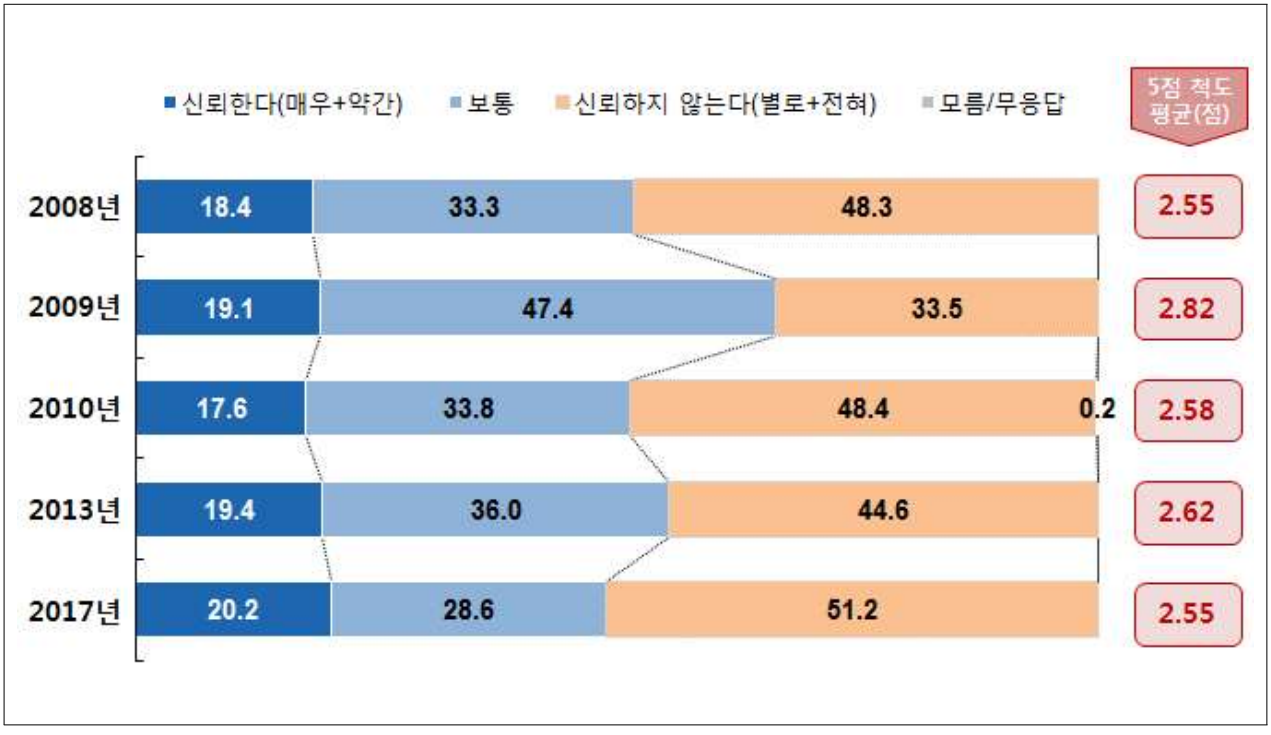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 '신뢰한다'는 응답이 20.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2%, '보통이다'는 유보적 견해가 28.6%로 나타나 국민 5명 중 1명 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미미하게 0.8%p 상승하였으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6%p 하락하여 전체 평균은 0.0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과 2017년 조사결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 value > 0.05)

계층별로 한국교회 신뢰도는 50대 이상, 주부 계층, 저학력층, 생활수준 하층, 보수이념 성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 연령층, 고학력층, 화이트칼라 계층, 생활수준 상/상층, 중도/진보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기독교인의 경우 '신뢰한다'는 비율이 59.9%로 높은 반면, 비기독교인에서는 10%대 이하의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전반적 신뢰도 (N=1000, %)



[표 1] 전반적 신뢰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약간)	보통	그렇지 않다 (별로+전혀)	계	평균 (5점 척도)
전체		(1000)	6.4	13.8	28.6	31.1	20.1	20.2	28.6	51.2	100.0	2.55
성별	남자	(498)	3.8	13.5	26.8	31.8	24.2	17.2	26.8	55.9	100.0	2.41
	여자	(502)	8.9	14.2	30.3	30.5	16.1	23.1	30.3	46.6	100.0	2.69
연령	만 19~29세	(178)	4.9	12.4	28.0	34.2	20.6	17.3	28.0	54.7	100.0	2.47
	30대	(179)	5.2	12.1	20.7	38.4	23.7	17.3	20.7	**62.0**	100.0	**2.37**
	40대	(206)	3.2	11.4	31.4	29.4	24.5	14.6	31.4	54.0	100.0	**2.39**
	50대	(199)	8.6	15.5	23.9	29.5	22.6	**24.0**	23.9	52.0	100.0	2.58
	60대 이상	(238)	9.3	16.9	36.4	26.3	11.2	**26.1**	36.4	37.5	100.0	2.87
학력	고졸 이하	(377)	9.4	14.3	32.9	27.8	15.6	**23.7**	**32.9**	43.4	100.0	2.74
	대재 이상	(623)	4.5	13.5	26.0	33.1	22.8	18.1	26.0	**56.0**	100.0	2.44
직업	농/임/어업	(23)	6.5	10.4	47.9	28.1	7.2	16.8	47.9	35.3	100.0	2.81
	자영업	(175)	5.2	13.7	28.1	25.7	27.3	18.9	28.1	**53.0**	100.0	2.44
	블루칼라	(89)	9.5	8.3	29.2	33.9	19.1	17.8	29.2	**53.0**	100.0	2.55
	화이트 칼라	(279)	2.9	13.8	23.5	36.2	23.7	16.7	23.5	**59.9**	100.0	2.36
	가정주부	(231)	10.6	14.4	34.2	28.0	12.8	**25.0**	34.2	40.8	100.0	2.82
	학생	(104)	4.8	15.1	28.3	34.8	17.1	19.9	28.3	51.8	100.0	2.56
	무직/기타	(99)	7.1	17.5	26.0	28.1	21.3	24.6	26.0	49.4	100.0	2.61
종교	기독교	(193)	24.2	35.7	24.5	10.4	5.1	**59.9**	24.5	15.5	100.0	3.64
	가톨릭	(83)	2.9	14.2	42.5	29.9	10.4	17.2	42.5	40.3	100.0	2.69
	불교	(178)	2.7	10.1	31.3	32.9	22.9	12.8	31.3	**55.8**	100.0	2.37
	기타 종교	(6)	3.3	12.4	35.8	19.4	29.2	15.6	35.8	48.6	100.0	2.41
	종교 없음	(540)	1.7	7.2	26.9	38.3	25.9	8.9	26.9	**64.2**	100.0	2.21
지역	서울	(199)	8.0	13.8	31.5	31.4	15.2	21.8	31.5	46.6	100.0	2.68
	인천/경기	(301)	7.0	15.0	24.3	31.9	21.8	22.0	24.3	53.8	100.0	2.53
	대전/충청	(105)	8.4	8.8	29.5	29.7	23.6	17.2	29.5	53.3	100.0	2.49
	광주/전라	(105)	4.7	13.3	31.3	33.6	17.1	18.0	31.3	50.7	100.0	2.55
	대구/경북	(101)	4.4	17.4	30.7	29.0	18.6	21.7	30.7	47.6	100.0	2.60
	부산/경남	(159)	5.3	14.6	27.5	29.0	23.7	19.9	27.5	52.6	100.0	2.49
	강원	(30)	0.0	6.2	37.7	36.6	19.4	6.2	**37.7**	56.1	100.0	2.31
생활수준	상/상중	(218)	5.3	11.4	23.3	33.4	26.6	16.7	23.3	**60.0**	100.0	2.35
	중	(440)	5.0	14.5	32.7	29.9	17.9	19.5	32.7	47.9	100.0	2.59
	중하/하	(342)	8.8	14.5	26.7	31.3	18.7	**23.4**	26.7	50.0	100.0	2.64
이념성향	보수	(265)	8.1	19.2	30.3	24.8	17.6	**27.3**	30.3	42.4	100.0	2.75
	중도	(347)	4.6	12.2	28.1	33.2	21.9	16.8	28.1	**55.1**	100.0	2.44
	진보	(332)	6.3	12.2	27.9	33.4	20.3	18.5	27.9	**53.7**	100.0	2.51

1-1. 전반적 신뢰도(계속)

한국교회 신뢰도를 2013년 조사 결과와 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30~40대는 신뢰도가 하락한 반면, 20대와 50대는 상승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권, 전라권에서 신뢰도 하락을, 서울지역에서는 신뢰도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종교별로 기독교인에서는 신뢰도가 높게 상승한 반면, 가톨릭 층에서는 하락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도 상층에서는 하락을, 하층에서는 상승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소득수준별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 한국교회 신뢰도 계층별 추이 (N=1000, %)

구분		2010년	2013년(A)	2017년(B)	증감(B-A)
전체		17.6	19.4	20.2	0.8
성별	남자	13.9	18.1	17.3	-0.8
	여자	21.4	20.8	23.1	2.3
연령	만19~29세	11.5	12.9	17.3	**4.4**
	30대	15.6	20.5	17.3	-3.2
	40대	19.6	23.1	14.6	-8.4
	50대	16.9	16.2	24.1	**7.9**
	60대 이상	29.0	26.3	26.2	-0.2
학력	고졸 이하	21.3	18.5	23.7	5.2
	대재 이상	14.7	20.0	18.1	-2.0
종교	기독교	59.0	47.5	59.9	**12.4**
	가톨릭	10.7	21.7	17.2	-4.6
	불교	8.8	12.3	12.8	0.5
	기타종교	-	9.6	15.6	6.1
	종교없음	7.6	8.4	8.9	0.5
지역	서울	20.4	14.6	21.9	**7.2**
	인천/경기	20.8	21.4	22.0	0.5
	대전/충청	16.1	21.3	17.2	-4.1
	광주/전라	16.0	26.0	18.0	-8.0
	대구/경북	13.5	19.4	21.7	2.3
	부산/경남	15.0	17.7	19.9	2.2
	강원	9.4	15.1	6.2	-8.9
생활수준	상/상중	21.6	23.4	16.7	-6.7
	중	17.6	21.6	19.5	-2.1
	중하/하	14.7	14.8	23.4	**8.6**

1-2. 속성별 신뢰도

문1

○○님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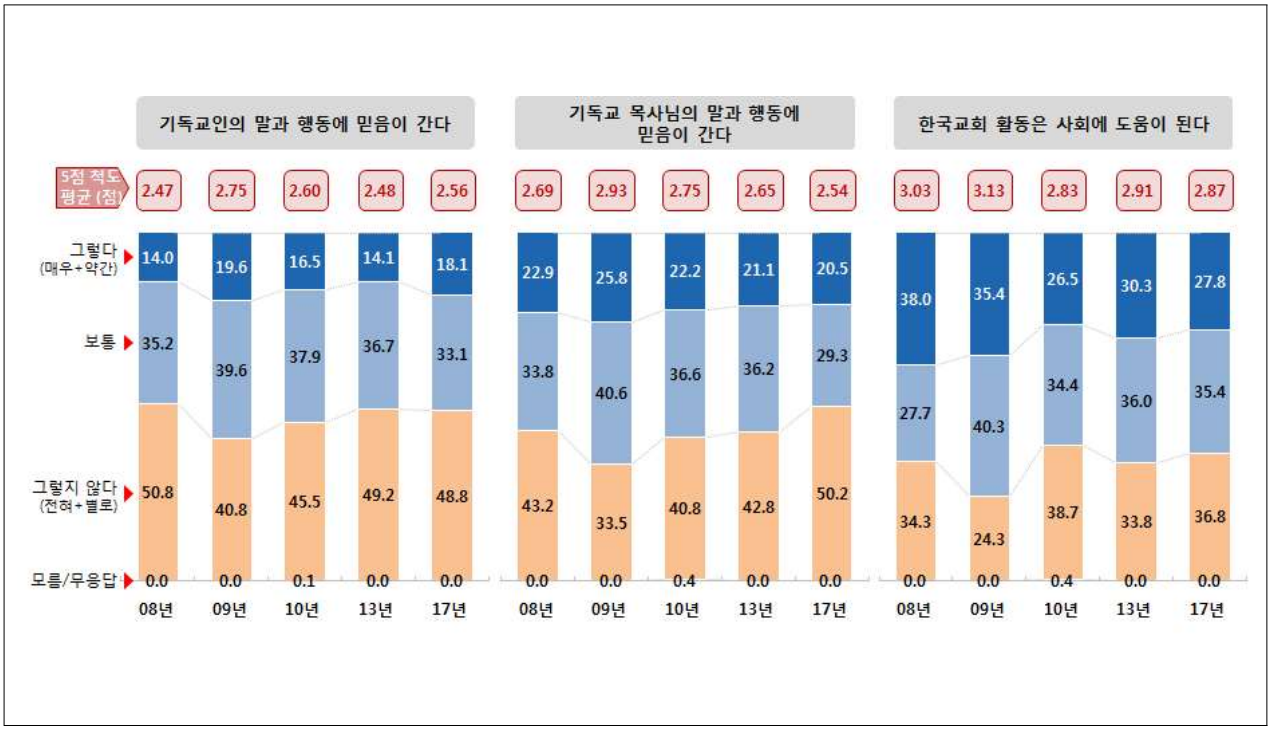
– 한국교회의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기독교 또는 한국교회는 가톨릭 또는 가톨릭 성당이 아니라 기독교 또는 기독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대해 기독교인 개인, 목회자, 한국교회 각각에 대해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교회의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가 2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20.5%),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18.1%)의 순을 보였다. 반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과 목사 모두에서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한국교회 자체보다는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에 대한 비신뢰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는 속성에 대한 긍정 평가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한국교회의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와 '기독교 목사님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는 속성에 대한 긍정 평가는 미미하게 감소한 추이를 보였다. 세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value < 0.05)

전반적으로 여성, 60대 이상 연령층, 주부 계층에서 각각의 속성별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속성별 신뢰도 (N=1000, %)



[표 3] 속성별 신뢰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한국교회의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	
			긍정 비율(%)	5점 평균(점)	긍정 비율(%)	5점 평균(점)	긍정 비율(%)	5점 평균(점)
전체		(1,000)	18.1	2.56	20.5	2.54	27.8	2.87
성별	남자	(498)	16.1	2.47	17.4	2.40	24.0	2.71
	여자	(502)	20.0	2.65	23.6	2.67	31.6	3.03
연령	만 19~29세	(178)	14.1	2.60	15.3	2.40	19.6	2.71
	30대	(179)	13.6	2.40	16.3	2.33	25.2	2.67
	40대	(206)	20.3	2.53	17.1	2.41	22.9	2.74
	50대	(199)	16.7	2.41	20.1	2.52	28.3	2.84
	60대 이상	(238)	23.6	2.79	30.7	2.93	39.8	3.28
학력	고졸 이하	(377)	20.8	2.70	25.0	2.72	34.2	3.07
	대재 이상	(623)	16.4	2.48	17.7	2.43	24.0	2.75
직업	농/임/어업	(23)	13.4	2.61	36.1	3.10	26.8	2.88
	자영업	(175)	17.2	2.46	17.2	2.34	24.1	2.66
	블루칼라	(89)	15.2	2.58	20.2	2.53	34.0	3.00
	화이트 칼라	(279)	16.4	2.38	16.7	2.33	23.0	2.69
	가정주부	(231)	22.2	2.75	26.7	2.87	36.2	3.22
	학생	(104)	13.8	2.62	14.5	2.42	17.9	2.71
	무직/기타	(99)	22.7	2.67	25.3	2.71	33.5	3.00
종교	기독교	(193)	**50.5**	3.48	**61.1**	3.68	**72.1**	4.00
	가톨릭	(83)	15.5	2.67	19.3	2.63	32.7	3.15
	불교	(178)	10.6	2.36	10.1	2.36	18.1	2.71
	기타 종교	(6)	19.3	2.48	12.8	2.13	24.4	2.66
	종교 없음	(540)	9.3	2.28	9.6	2.18	14.5	2.48
지역	서울	(199)	18.5	2.66	21.1	2.64	32.9	2.97
	인천/경기	(301)	17.6	2.52	18.8	2.48	28.4	2.89
	대전/충청	(105)	20.8	2.60	20.4	2.59	26.5	2.85
	광주/전라	(105)	21.3	2.58	26.2	2.58	25.8	2.76
	대구/경북	(101)	19.6	2.64	23.0	2.64	25.0	2.94
	부산/경남	(159)	16.9	2.51	20.5	2.47	25.4	2.74
	강원	(30)	0.0	2.04	4.5	2.22	22.6	2.86
생활수준	상/상중	(218)	12.9	2.39	15.0	2.38	22.1	2.71
	중	(440)	18.3	2.59	20.7	2.56	27.5	2.89
	중하/하	(342)	21.1	2.63	23.7	2.61	31.9	2.95
이념성향	보수	(265)	21.7	2.66	24.0	2.69	35.6	3.09
	중도	(347)	13.2	2.41	17.2	2.46	20.5	2.67
	진보	(332)	20.7	2.62	20.7	2.48	29.0	2.89

2. 신뢰기관 평가

2-1. 가장 신뢰하는 기관

문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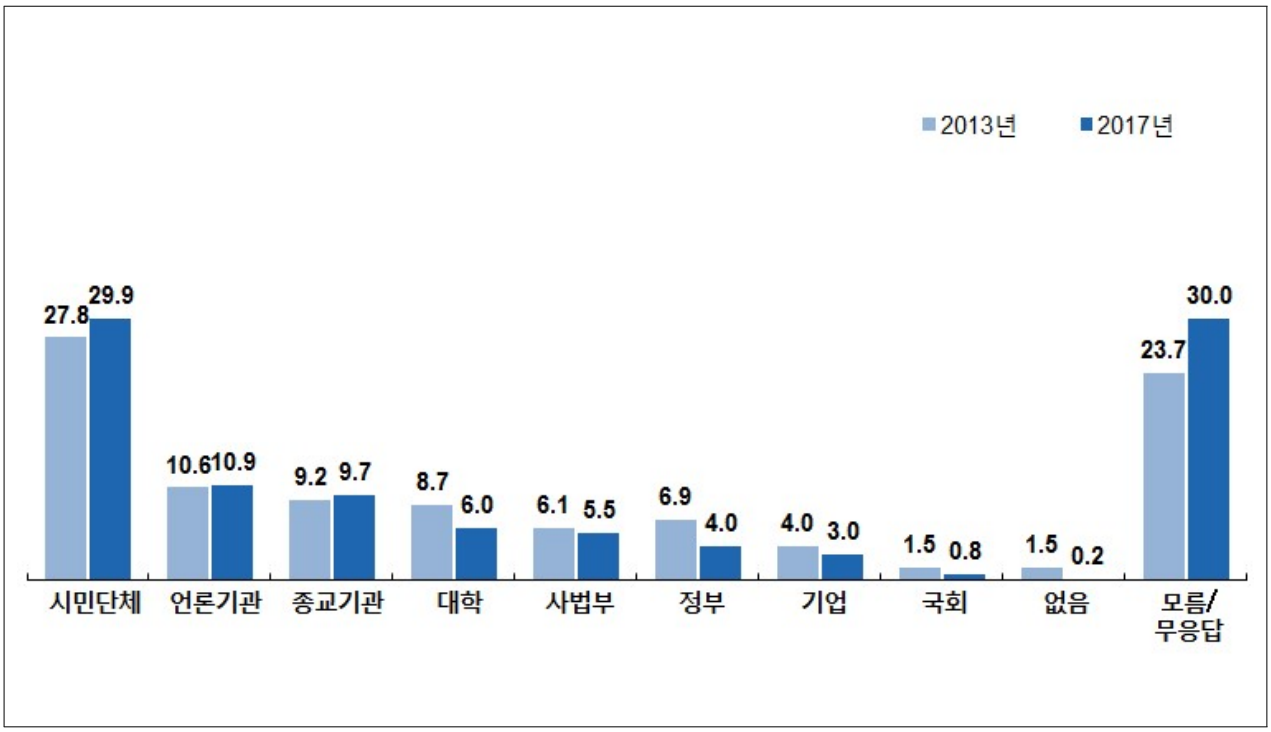
○○님께서 다음 중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일반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들을 제시하고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시민단체'가 29.9%로 1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언론기관', '종교기관', '대학', '사법부' 등의 순을 보였다.

지난 2013년 조사 대비 대체로 유사한 비율과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종교기관의 경우 10%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로 언론기관과 비슷하게 2위권을 유지했다.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 응답은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 주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종교별로는 기독교(29.7%) 및 가톨릭(19.6%)에서 종교기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가장 신뢰하는 기관 (N=1000, %)



[표 4] 가장 신뢰하는 기관 (N=1000, %)

구분		사례수(명)	시민단체	언론기관	종교기관	대학	사법부	정부	기업	국회	없음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00)	29.9	10.9	9.7	6.0	5.5	4.0	3.0	0.8	0.2	30.0	100.0
성별	남자	(498)	28.9	11.2	7.8	7.4	6.2	4.8	5.0	0.8	0.0	27.9	100.0
	여자	(502)	30.9	10.7	11.7	4.5	4.9	3.2	1.1	0.8	0.3	32.0	100.0
연령	만 19~29세	(178)	26.1	15.1	4.6	9.5	11.0	5.2	3.3	0.0	0.0	25.2	100.0
	30대	(179)	36.1	11.0	7.2	4.4	4.5	1.5	0.5	0.5	0.0	34.2	100.0
	40대	(206)	44.6	14.5	6.1	4.5	5.6	1.1	2.4	0.5	0.8	20.1	100.0
	50대	(199)	29.2	8.5	**13.6**	5.7	3.1	2.7	3.4	0.6	0.0	33.2	100.0
	60대 이상	(238)	15.9	6.8	**15.3**	5.9	4.1	8.7	4.9	2.0	0.0	36.3	100.0
학력	고졸 이하	(377)	25.1	9.2	12.1	3.9	4.3	6.2	2.2	1.4	0.4	35.1	100.0
	대재 이상	(623)	32.8	12.0	8.3	7.2	6.2	2.7	3.5	0.4	0.0	26.9	100.0
직업	농/임/어업	(23)	22.6	11.0	5.4	10.1	2.9	13.9	3.6	2.6	0.0	27.9	100.0
	자영업	(175)	33.1	12.5	8.7	5.0	4.0	3.3	2.5	0.5	0.0	30.5	100.0
	블루칼라	(89)	35.4	19.8	7.1	3.3	3.3	4.0	5.3	0.0	0.0	21.8	100.0
	화이트 칼라	(279)	35.9	9.3	6.6	7.4	8.9	1.3	2.4	0.6	0.6	27.0	100.0
	가정주부	(231)	24.8	9.4	15.9	3.6	2.3	3.5	1.9	1.2	0.0	37.3	100.0
	학생	(104)	28.7	14.2	5.2	12.5	9.8	6.9	4.3	0.0	0.0	18.4	100.0
	무직/기타	(99)	17.3	4.6	14.4	3.8	4.2	8.8	4.6	1.8	0.0	40.5	100.0
종교	기독교	(193)	26.0	7.3	**29.7**	2.9	3.4	3.7	3.1	0.5	0.0	23.5	100.0
	가톨릭	(83)	28.1	7.7	**19.6**	6.7	8.8	5.4	0.9	0.0	0.0	22.8	100.0
	불교	(178)	26.3	14.3	3.2	6.9	3.7	7.2	3.7	1.0	0.0	33.7	100.0
	기타 종교	(6)	25.3	22.2	5.0	14.5	7.4	0.0	10.1	0.0	0.0	15.6	100.0
	종교 없음	(540)	32.8	11.5	3.3	6.5	6.3	2.9	3.1	0.9	0.3	32.3	100.0
지역	서울	(199)	25.6	12.8	11.5	4.0	4.0	2.6	3.0	1.4	0.0	35.0	100.0
	인천/경기	(301)	28.9	9.2	12.1	5.7	7.7	4.6	3.2	0.3	0.6	27.8	100.0
	대전/충청	(105)	29.8	11.5	7.6	6.3	4.8	7.2	2.9	1.1	0.0	28.9	100.0
	광주/전라	(105)	35.7	15.0	6.1	7.1	4.3	2.1	4.2	0.6	0.0	24.9	100.0
	대구/경북	(101)	30.1	4.8	9.8	7.8	6.8	6.6	2.7	0.9	0.0	30.3	100.0
	부산/경남	(159)	33.4	12.0	8.3	4.7	3.9	2.9	2.8	0.9	0.0	31.0	100.0
	강원	(30)	29.0	14.2	1.8	16.8	4.4	0.0	0.0	0.0	0.0	33.8	100.0
생활수준	상/상중	(218)	33.3	11.7	10.7	5.1	5.5	2.2	5.7	0.4	0.0	25.3	100.0
	중	(440)	31.7	12.1	8.4	6.5	5.8	5.0	2.5	0.6	0.4	27.1	100.0
	중하/하	(342)	25.3	8.9	10.8	5.8	5.1	4.0	2.0	1.3	0.0	36.8	100.0
이념성향	보수	(265)	20.4	10.3	13.5	4.0	4.9	5.9	6.5	1.7	0.0	32.9	100.0
	중도	(347)	26.8	11.7	8.0	6.9	5.9	4.8	0.9	0.8	0.5	33.8	100.0
	진보	(332)	43.2	11.9	9.1	7.4	6.5	1.5	2.4	0.2	0.0	17.9	100.0

2-2. 가장 신뢰하는 종교

문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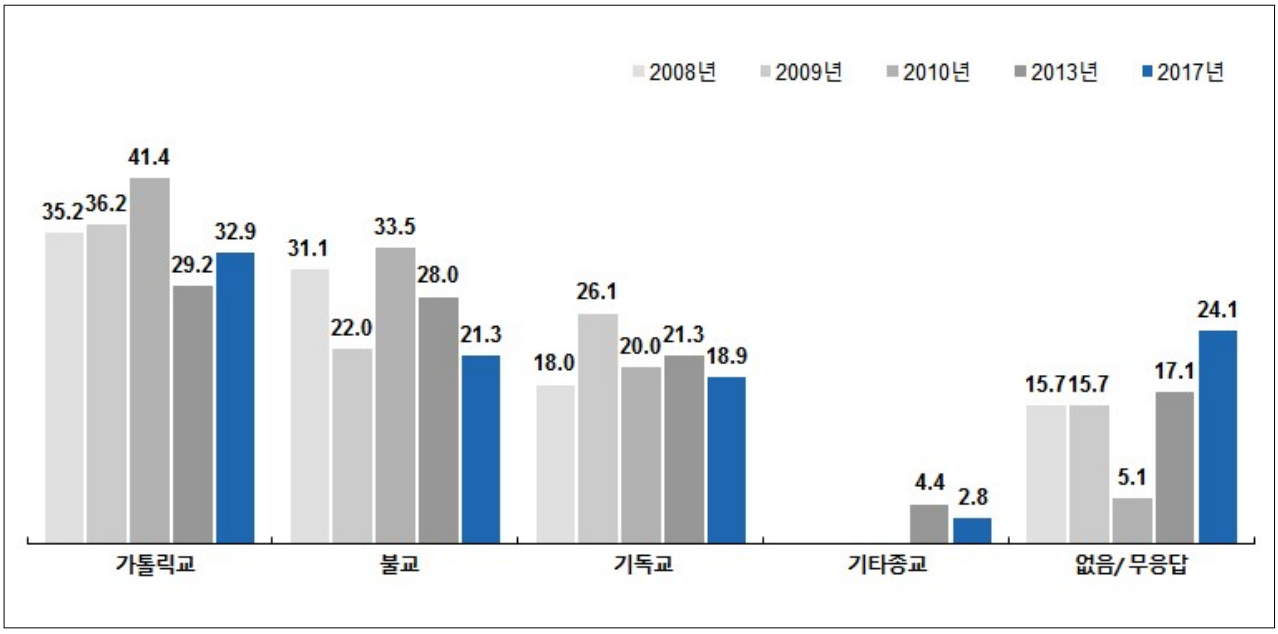
다음의 종교 중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이번에는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았는데, '가톨릭'이라는 응답이 3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불교' 21.3%, '기독교' 18.9%의 순을 보였다. 신뢰하는 종교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4.0%로 높게 나타났다.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톨릭>불교>기독교 순은 동일한데, 가톨릭의 경우 3.7%p 소폭 상승한 반면, 불교(6.7%p)와 기독교(2.4%p)의 경우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가톨릭은 상승세를, 불교는 하락세를, 기독교의 경우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기독교는 세 종교 중 단연 꼴찌를 보이고 있고, 30~50대 연령층에서는 불교와 비슷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종교인별로 자기 종교 선택률은 가톨릭(89.7%), 기독교(76.8%), 불교(65.4%)의 순으로 가톨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가장 신뢰하는 종교 (N=1000, %)



[표 5] 가장 신뢰하는 종교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기독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유교	없음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00)	18.9	32.9	21.3	0.8	2.0	9.7	14.3	100.0
성별	남자	(498)	14.1	33.6	23.7	1.4	2.8	9.4	14.9	100.0
	여자	(502)	**23.6**	32.2	18.9	0.2	1.2	10.1	13.8	100.0
연령	만 19~29세	(178)	15.0	26.0	23.8	0.6	1.9	15.2	17.4	100.0
	30대	(179)	18.8	33.5	19.1	0.8	0.9	10.4	16.5	100.0
	40대	(206)	18.0	**39.3**	17.0	0.0	1.6	10.3	13.8	100.0
	50대	(199)	19.5	**37.0**	19.0	1.3	3.4	7.8	11.9	100.0
	60대 이상	(238)	**22.1**	28.7	26.6	1.2	2.2	6.3	12.8	100.0
학력	고졸 이하	(377)	22.0	25.7	26.0	0.5	2.9	7.8	15.0	100.0
	대재 이상	(623)	17.0	**37.3**	18.4	1.0	1.5	10.9	13.9	100.0
직업	농/임/어업	(23)	12.6	22.0	40.2	0.0	3.8	6.9	14.5	100.0
	자영업	(175)	17.1	35.3	23.0	1.5	1.8	7.2	14.0	100.0
	블루칼라	(89)	20.8	25.8	33.0	0.0	1.3	11.8	7.3	100.0
	화이트 칼라	(279)	16.2	**41.6**	12.4	0.0	1.6	12.2	16.1	100.0
	가정주부	(231)	26.4	28.9	21.5	0.5	2.1	8.2	12.4	100.0
	학생	(104)	15.2	26.1	26.1	1.1	2.0	12.3	17.1	100.0
	무직/기타	(99)	15.6	30.0	22.5	3.1	3.6	7.3	18.0	100.0
종교	기독교	(193)	**76.8**	10.3	0.4	0.0	0.5	2.2	9.8	100.0
	가톨릭	(83)	1.7	**89.7**	4.6	0.0	0.0	0.0	4.0	100.0
	불교	(178)	0.9	20.4	**61.5**	3.9	1.6	4.8	6.9	100.0
	기타 종교	(6)	8.7	24.1	14.1	0.0	42.5	0.0	10.7	100.0
	종교 없음	(540)	6.9	36.5	18.1	0.2	2.6	15.7	20.1	100.0
지역	서울	(199)	20.5	33.8	15.3	0.7	2.7	11.8	15.3	100.0
	인천/경기	(301)	22.4	33.5	21.4	0.4	1.8	7.7	12.7	100.0
	대전/충청	(105)	20.0	37.8	17.6	0.0	0.7	9.5	14.4	100.0
	광주/전라	(105)	19.4	39.8	14.6	1.9	3.1	8.1	13.2	100.0
	대구/경북	(101)	11.9	29.9	28.0	1.1	2.9	13.8	12.2	100.0
	부산/경남	(159)	15.0	26.9	31.2	1.5	1.1	8.3	16.1	100.0
	강원	(30)	11.5	22.5	19.6	0.0	2.2	17.9	26.4	100.0
생활수준	상/상중	(218)	15.6	35.9	19.6	2.8	3.3	10.7	12.1	100.0
	중	(440)	16.7	35.8	22.2	0.0	1.6	8.7	14.9	100.0
	중하/하	(342)	**23.8**	27.3	21.1	0.6	1.8	10.5	15.0	100.0
이념성향	보수	(265)	20.0	30.7	22.5	0.9	1.9	8.6	15.5	100.0
	중도	(347)	13.6	31.7	23.5	0.4	2.7	11.4	16.7	100.0
	진보	(332)	22.8	**39.0**	17.3	1.3	1.5	8.3	9.7	100.0

3. 종교 관련 인식

3-1. 사회봉사 활동 적극 수행 종교

문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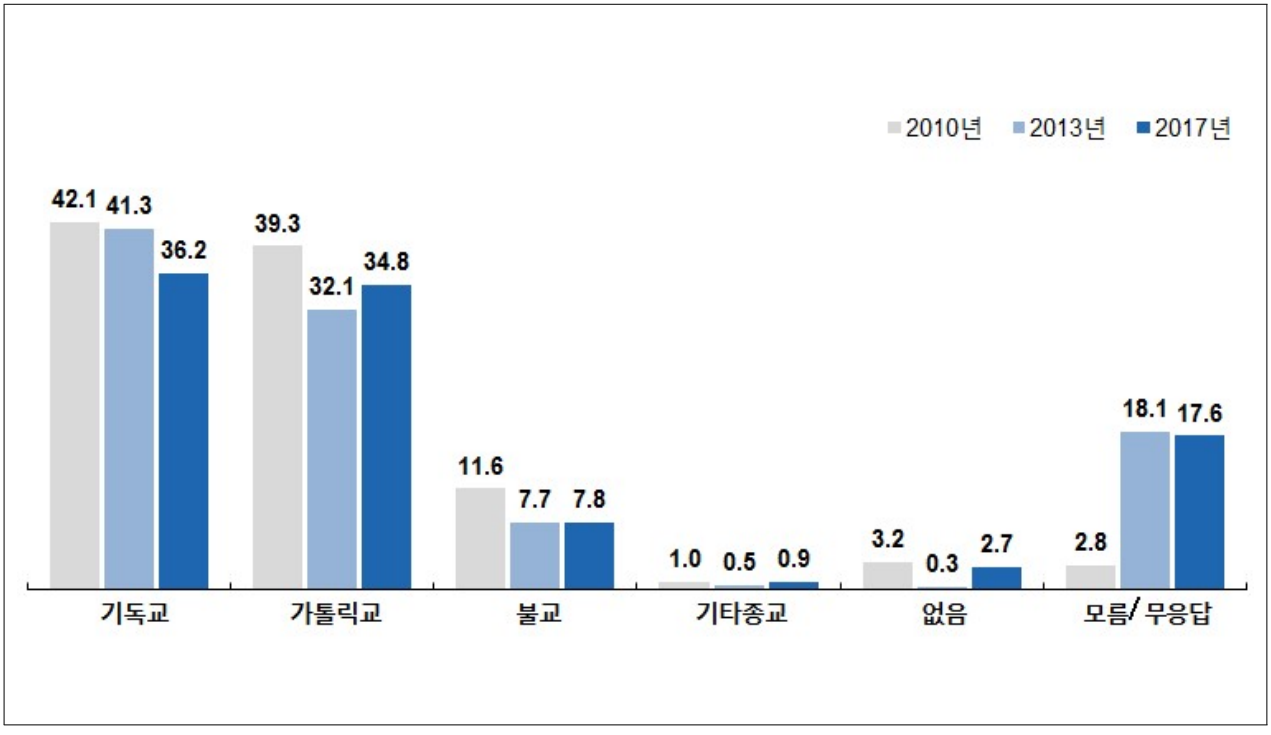
다음 중 어느 종교가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종교가 어디인지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 '기독교' 36.2%, '가톨릭' 34.8%, '불교' 7.8%로 나타나 기독교와 가톨릭이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종교로 응답되었다.

지난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기독교는 5.1%p 하락, 가톨릭은 2.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는 2010년 조사 이후 약간씩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이번 조사에서는 가톨릭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사회봉사 적극 수행 종교로 기독교를 꼽은 응답자들은 여성, 19-29세 연령, 주부/학생층, 대구/경북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톨릭은 50대, 화이트칼라 계층, 서울지역에서 높았다. 한편,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은 기독교(45.2%)를, 진보층은 가톨릭(40.1%)을 각각 1위로 평가했다.
종교별로 기독교 및 가톨릭 신자들은 각각 자신의 종교를 1위로 꼽았으나, 불교 신자는 자신의 종교보다 오히려 기독교와 가톨릭을 비슷하게 1위로 꼽았으며, 무종교자들은 가톨릭을 기독교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

[그림 5] 사회봉사 활동 적극 수행 종교 (N=1000, %)



[표 6] 사회봉사 활동 적극 수행 종교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기독교	가톨릭	불교	기타종교	없음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00)	36.2	34.8	7.8	0.9	2.7	17.6	100.0
성별	남자	(498)	31.8	32.5	11.7	1.1	3.8	19.1	100.0
	여자	(502)	**40.5**	37.1	3.9	0.7	1.6	16.2	100.0
연령	만 19~29세	(178)	**41.8**	25.5	10.5	1.0	4.1	17.1	100.0
	30대	(179)	34.4	36.6	8.7	0.5	3.3	16.4	100.0
	40대	(206)	32.9	39.3	6.4	1.2	2.4	17.8	100.0
	50대	(199)	32.5	**43.7**	6.5	0.2	3.0	14.1	100.0
	60대 이상	(238)	39.3	29.2	7.4	1.5	1.0	21.7	100.0
학력	고졸 이하	(377)	36.4	28.8	8.7	1.5	2.1	22.4	100.0
	대재 이상	(623)	36.1	38.4	7.3	0.5	3.0	14.7	100.0
직업	농/임/어업	(23)	54.1	17.0	0.0	2.9	0.0	26.0	100.0
	자영업	(175)	31.1	38.5	11.3	0.5	2.9	15.6	100.0
	블루칼라	(89)	38.0	27.5	10.1	0.4	2.1	21.9	100.0
	화이트 칼라	(279)	33.8	**41.9**	6.9	1.0	3.2	13.3	100.0
	가정주부	(231)	**42.1**	35.1	2.5	0.9	1.2	18.2	100.0
	학생	(104)	**41.6**	30.4	8.4	1.4	3.1	15.1	100.0
	무직/기타	(99)	26.9	22.9	15.7	0.8	4.9	28.8	100.0
종교	기독교	(193)	**69.3**	21.4	1.3	0.3	0.0	7.7	100.0
	가톨릭	(83)	20.9	**66.6**	1.0	0.0	0.0	11.4	100.0
	불교	(178)	**27.9**	**27.4**	14.7	1.5	3.0	25.5	100.0
	기타 종교	(6)	19.3	41.9	5.0	14.0	4.6	15.2	100.0
	종교 없음	(540)	29.6	**37.1**	8.9	0.9	3.9	19.6	100.0
지역	서울	(199)	36.4	**40.2**	3.1	0.6	4.7	14.9	100.0
	인천/경기	(301)	34.3	33.7	9.6	1.3	1.4	19.8	100.0
	대전/충청	(105)	35.5	36.1	4.3	1.1	1.1	21.8	100.0
	광주/전라	(105)	36.7	34.5	10.3	1.8	3.6	13.0	100.0
	대구/경북	(101)	**47.6**	23.2	8.8	0.9	3.3	16.1	100.0
	부산/경남	(159)	32.6	38.3	8.4	0.0	3.0	17.6	100.0
	강원	(30)	34.8	27.0	17.8	0.0	0.0	20.4	100.0
생활수준	상/상중	(218)	36.1	36.8	9.0	0.8	1.8	15.4	100.0
	중	(440)	37.5	35.5	7.2	0.7	1.6	17.6	100.0
	중하/하	(342)	34.6	32.7	7.9	1.1	4.6	19.1	100.0
이념성향	보수	(265)	**45.2**	31.9	4.6	0.5	1.9	15.8	100.0
	중도	(347)	32.6	35.7	6.7	0.7	2.3	21.9	100.0
	진보	(332)	34.0	**40.1**	11.1	0.9	2.1	11.8	100.0

3-2. 향후 10년 후 증가할 종교

문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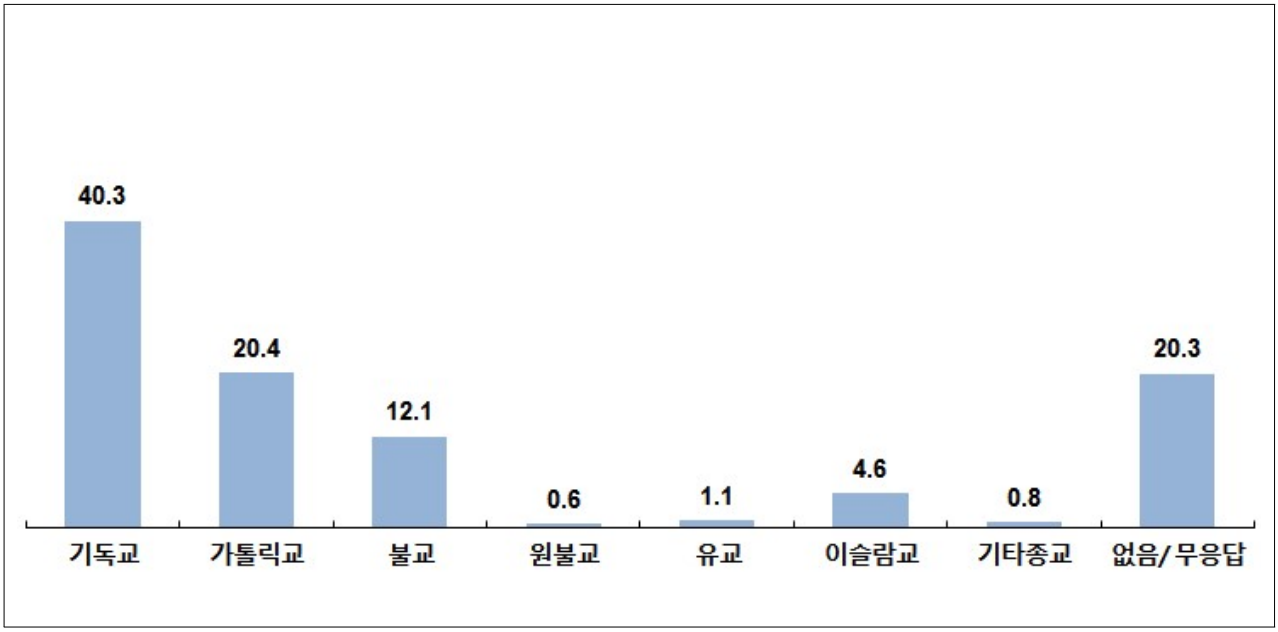
○○님께서는 향후 10년 후 우리나라의 어느 종교가 가장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10년 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로 '기독교' 40.3%, '가톨릭' 20.4%, '불교' 12.1% 순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들은 국내 종교 중 기독교의 전망을 가장 밝게 내다보고 있었다. 반면, 최근 우리나라의 아시아권 외국인 거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보기 항목으로 제시해 보았는데 응답자의 4.6%만이 이슬람교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향후 10년 후 기독교가 가장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19-29세 연령층에서, 블루칼라 및 학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슬람교의 경우 20대(9.5%), 화이트칼라(7.7%), 학생(9.7%)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됐다.
종교별로는 기독교 신자에서 자신의 종교가 가장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67.9%)이 가톨릭(48.4%)이나 불교(22.1%) 신자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6] 향후 10년 후 증가할 종교

(N=1000, %)



[표 7] 향후 10년 후 증가할 종교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기독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기타종교	없음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00)	40.3	20.4	12.1	0.6	1.1	4.6	0.8	0.1	20.2	100.0
성별	남자	(498)	38.7	17.5	13.7	0.5	1.4	6.2	0.7	0.1	21.1	100.0
	여자	(502)	41.8	23.3	10.4	0.6	0.8	2.9	0.9	0.0	19.4	100.0
연령	만 19~29세	(178)	**46.7**	10.3	10.3	0.7	2.0	**9.5**	0.0	0.0	20.4	100.0
	30대	(179)	**42.3**	20.3	11.8	0.0	0.5	4.2	1.9	0.0	18.9	100.0
	40대	(206)	38.4	24.9	12.7	0.0	1.6	5.9	1.8	0.0	14.6	100.0
	50대	(199)	37.1	23.7	13.0	0.6	0.0	3.1	0.4	0.0	22.1	100.0
	60대 이상	(238)	38.2	21.3	12.1	1.4	1.2	1.1	0.0	0.2	24.5	100.0
학력	고졸 이하	(377)	40.3	18.5	13.2	1.0	1.2	2.3	0.9	0.1	22.4	100.0
	대재 이상	(623)	40.2	21.5	11.3	0.3	1.0	5.9	0.8	0.0	18.9	100.0
직업	농/임/어업	(23)	35.8	15.4	12.6	0.0	8.6	0.0	0.0	0.0	27.5	100.0
	자영업	(175)	39.2	22.3	10.8	0.0	1.5	4.6	0.7	0.3	20.5	100.0
	블루칼라	(89)	48.7	20.0	18.8	1.3	0.0	1.6	1.1	0.0	8.4	100.0
	화이트 칼라	(279)	37.7	22.2	10.4	0.4	0.3	**7.7**	0.9	0.0	20.4	100.0
	가정주부	(231)	41.7	24.4	11.3	0.9	0.0	1.4	0.9	0.0	19.5	100.0
	학생	(104)	46.5	10.9	10.8	0.0	3.4	**9.7**	0.0	0.0	18.7	100.0
	무직/기타	(99)	33.0	14.1	15.6	1.4	1.6	1.2	1.3	0.0	31.8	100.0
종교	기독교	(193)	**67.9**	10.5	2.3	0.2	0.3	6.0	1.6	0.0	11.3	100.0
	가톨릭	(83)	23.8	**48.4**	7.5	0.0	0.0	0.0	1.4	0.0	18.8	100.0
	불교	(178)	**28.3**	18.9	22.1	1.2	1.4	3.0	0.0	0.0	25.1	100.0
	기타 종교	(6)	34.5	7.4	25.8	0.0	3.6	13.1	0.0	0.0	15.6	100.0
	종교 없음	(540)	**36.9**	20.3	12.8	0.6	1.4	5.2	0.7	0.1	22.1	100.0
지역	서울	(199)	37.4	24.5	9.4	0.2	1.4	4.6	1.0	0.3	21.1	100.0
	인천/경기	(301)	43.5	20.9	9.0	0.4	1.7	5.8	0.7	0.0	18.1	100.0
	대전/충청	(105)	39.9	28.1	15.1	1.0	0.5	3.3	0.0	0.0	12.1	100.0
	광주/전라	(105)	40.1	15.8	11.5	1.1	0.0	1.9	1.2	0.0	28.5	100.0
	대구/경북	(101)	41.0	21.3	11.7	0.0	1.5	4.0	0.0	0.0	20.5	100.0
	부산/경남	(159)	38.3	12.5	16.7	1.2	0.5	5.0	1.6	0.0	24.3	100.0
	강원	(30)	37.2	15.2	28.8	0.0	0.0	5.4	0.0	0.0	13.4	100.0
생활수준	상/상중	(218)	34.6	23.4	11.5	0.0	0.9	6.9	1.5	0.0	21.1	100.0
	중	(440)	42.7	19.9	15.1	0.4	1.1	2.8	0.0	0.0	18.0	100.0
	중하/하	(342)	40.8	19.0	8.5	1.2	1.0	5.3	1.4	0.2	22.6	100.0
이념성향	보수	(265)	43.6	21.5	11.6	0.3	0.6	2.9	1.2	0.2	18.0	100.0
	중도	(347)	36.6	20.6	13.3	0.7	1.8	3.8	0.3	0.0	22.7	100.0
	진보	(332)	41.5	22.0	10.8	0.3	0.8	7.5	1.1	0.0	16.0	100.0

4. 한국교회 관련 인식

4-1.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견

문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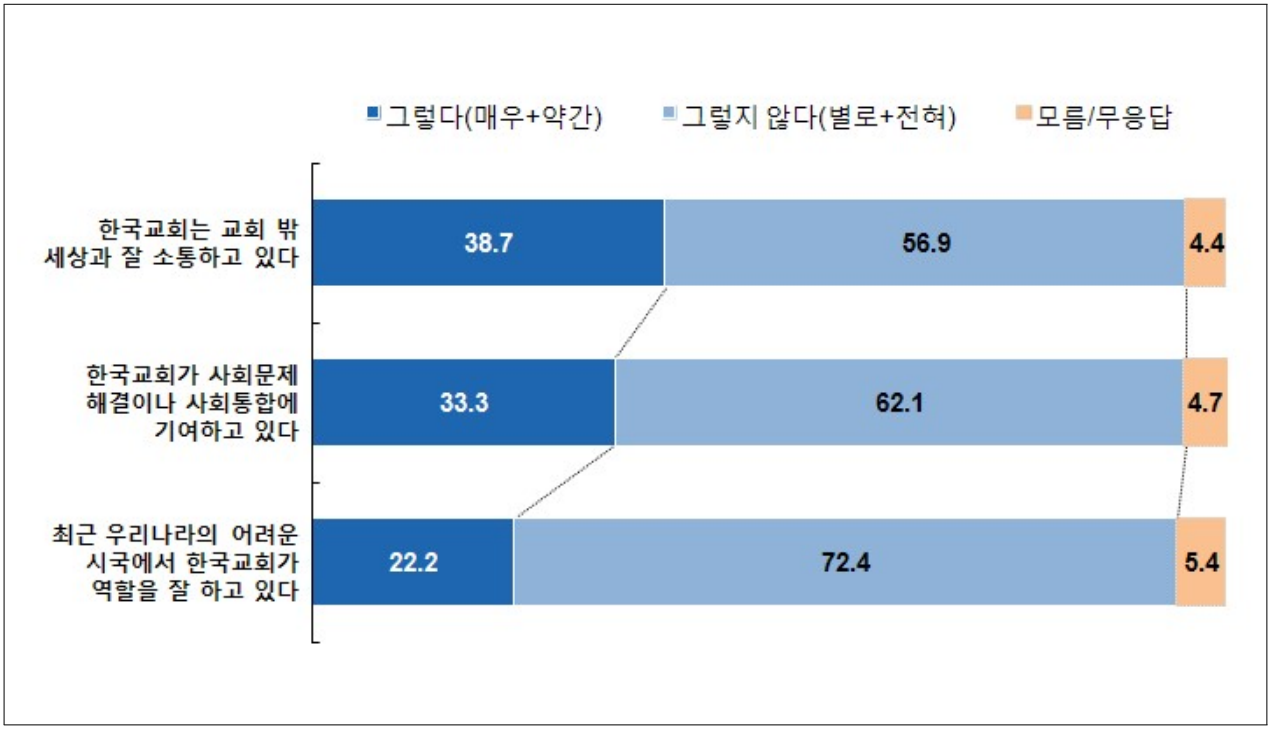
한국교회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역할과 관련한 세 가지 의견(이번 년도 신규문항), 즉 세상과의 소통, 사회통합 기여, 최근 시국에서의 역할에 대해 각각 얼마나 공감하는지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 전체적으로 40%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한국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다'(38.7%)는 의견에서 가장 높은 긍정 비율을 나타냈으며, '사회문제 해결/사회통합에 기여한다'가 33.3%, '최근 어려운 시국에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가 22.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긍정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지 못하는 가운데 특히 현 시국에 대한 종교적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매우 높았다.

그래도 한국교회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응답자는 여성, 60대 이상 연령층, 저학력층 학력자, 보수 이념성향자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종교별로 기독교 신자들의 응답을 보면, '세상과 소통'(62.7%), '사회 통합'(55.6)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비율이 과반을 넘어서고 있으나, '현 시국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36.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한국교회에 대한 의견 (N=1000, %)



[표 8] 한국교회에 대한 의견 (N=1000, %)

구분		사례수(명)	한국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국에서 한국교회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그렇다(매우+약간)	그렇지않다(별로+전혀)	모름/ 무응답	그렇다(매우+약간)	그렇지않다(별로+전혀)	모름/ 무응답	그렇다(매우+약간)	그렇지않다(별로+전혀)	모름/ 무응답
전체		(1,000)	38.7	56.9	4.4	33.3	62.1	4.7	22.2	72.4	5.4
성별	남자	(498)	30.9	**66.0**	3.0	27.9	68.4	3.7	19.0	76.9	4.0
	여자	(502)	46.3	47.9	5.8	38.6	55.8	5.6	25.4	67.9	6.7
연령	만 19~29세	(178)	41.9	54.8	3.3	28.8	66.6	4.6	21.4	75.1	3.5
	30대	(179)	27.3	**70.7**	2.0	25.6	71.5	3.0	14.8	82.1	3.1
	40대	(206)	37.2	59.9	2.9	28.9	68.1	2.9	15.6	80.7	3.7
	50대	(199)	35.4	60.4	4.3	32.7	62.4	4.8	24.7	70.5	4.7
	60대 이상	(238)	**48.8**	42.7	8.6	**46.5**	46.0	7.4	**32.0**	57.5	10.5
학력	고졸 이하	(377)	**45.0**	48.6	6.4	**42.4**	50.2	7.4	**29.2**	62.0	8.8
	대재 이상	(623)	34.8	62.0	3.2	27.7	69.2	3.0	18.0	78.7	3.3
직업	농/임/어업	(23)	67.6	26.8	5.7	69.9	22.2	8.0	54.4	33.2	12.4
	자영업	(175)	32.5	63.3	4.2	29.4	66.7	3.9	19.3	76.7	4.0
	블루칼라	(89)	38.7	60.3	0.9	32.2	63.8	4.0	24.8	70.9	4.3
	화이트 칼라	(279)	30.1	67.3	2.6	24.0	74.3	1.7	14.2	84.1	1.6
	가정주부	(231)	49.1	44.5	6.4	44.4	48.0	7.6	28.4	62.6	9.1
	학생	(104)	44.5	49.8	5.6	25.4	67.7	6.9	17.9	77.4	4.7
	무직/기타	(99)	36.4	56.7	6.9	41.1	53.6	5.3	30.4	59.5	10.1
종교	기독교	(193)	**62.7**	34.3	3.0	**55.6**	41.4	3.0	**36.4**	57.7	5.8
	가톨릭	(83)	42.2	49.4	8.5	48.1	48.4	3.5	28.1	64.2	7.7
	불교	(178)	34.0	60.0	6.0	35.3	56.3	8.4	20.7	69.2	10.1
	기타 종교	(6)	25.5	70.9	3.7	18.9	72.5	8.6	7.8	76.6	15.6
	종교 없음	(540)	31.2	65.0	3.8	22.5	73.3	4.2	16.9	79.9	3.2
지역	서울	(199)	40.5	54.9	4.6	32.6	63.7	3.8	21.2	76.4	2.4
	인천/경기	(301)	30.2	65.3	4.5	31.1	63.6	5.3	20.1	75.2	4.7
	대전/충청	(105)	42.4	52.3	5.3	34.2	63.2	2.6	22.6	71.6	5.8
	광주/전라	(105)	41.7	54.7	3.7	34.1	58.9	7.0	23.7	69.6	6.7
	대구/경북	(101)	42.5	50.9	6.6	30.6	62.4	7.1	28.2	61.4	10.3
	부산/경남	(159)	44.0	53.3	2.7	38.5	57.7	3.8	25.8	68.0	6.3
	강원	(30)	46.6	49.7	3.8	34.2	65.8	0.0	4.5	90.7	4.8
생활수준	상/상중	(218)	32.8	64.4	2.8	26.1	70.8	3.1	15.2	82.1	2.7
	중	(440)	44.1	51.6	4.2	34.2	61.1	4.7	25.6	68.6	5.8
	중하/하	(342)	35.3	59.0	5.7	36.5	57.8	5.7	22.3	71.1	6.6
이념성향	보수	(265)	**46.7**	50.5	2.8	**39.3**	57.0	3.7	**27.5**	68.4	4.1
	중도	(347)	37.3	57.0	5.7	30.7	65.1	4.2	21.0	73.4	5.6
	진보	(332)	34.4	62.4	3.2	32.2	64.4	3.4	19.0	76.1	4.8

4-2. 올해 대선 과정에서의 기독교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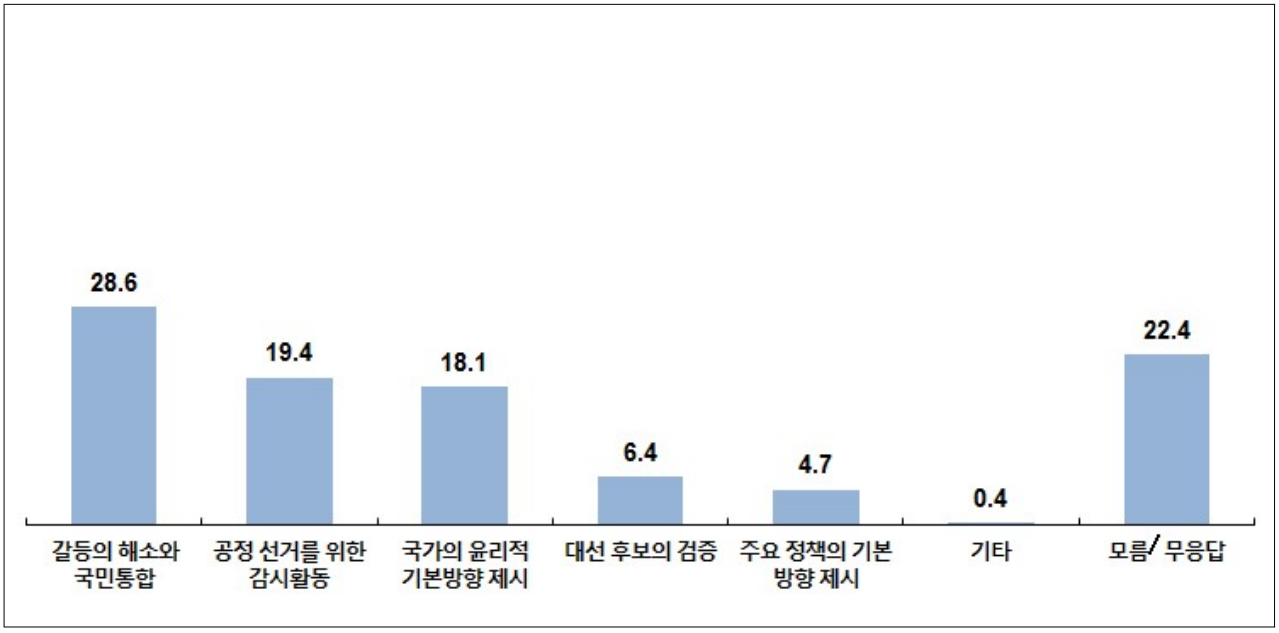
문11

○○님께서는 올해 대선 과정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올해 국가적으로 최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공정선거를 위한 감시활동'(19.4%), '국가의 기본 방향제시'(18.1%) 등의 순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20-30대 젊은층은 국민통합 의견 다음으로 '국가의 윤리적 기본방향 제시'를 두 번째로 지적한 점이 눈에 띄며, 종교별로 기독교인들도 '국가의 윤리적 기본방향 제시'를 두 번째로 꼽았다.

[그림 8] 올해 대선 과정에서의 기독교 역할 (N=1000, %)



[표 9] 올해 대선 과정에서의 역할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갈등의 해소와 국민통합	공정 선거를 위한 감시활동	국가의 윤리적 기본방향 제시	대선 후보의 검증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전체		(1,000)	28.6	19.4	18.1	6.4	4.7	0.4	22.4	100.0
성별	남자	(498)	26.6	18.6	17.9	6.5	3.7	0.5	26.3	100.0
	여자	(502)	30.6	20.2	18.4	6.3	5.7	0.3	18.5	100.0
연령	만 19~29세	(178)	15.4	28.8	**19.3**	10.3	2.9	1.4	21.9	100.0
	30대	(179)	26.0	16.6	**21.3**	4.6	3.2	0.0	28.4	100.0
	40대	(206)	35.2	17.6	16.0	5.4	1.6	0.7	23.5	100.0
	50대	(199)	32.4	16.5	19.7	5.9	7.9	0.0	17.7	100.0
	60대 이상	(238)	31.6	18.6	15.4	6.2	7.1	0.0	21.1	100.0
학력	고졸 이하	(377)	30.6	20.1	16.0	5.9	5.8	0.3	21.3	100.0
	대재 이상	(623)	27.4	19.0	19.4	6.8	4.0	0.4	23.0	100.0
직업	농/임/어업	(23)	52.3	15.8	6.3	9.9	2.5	0.0	13.2	100.0
	자영업	(175)	28.0	21.5	18.3	5.5	5.2	0.0	21.5	100.0
	블루칼라	(89)	36.6	18.5	19.8	9.8	4.9	0.0	10.4	100.0
	화이트 칼라	(279)	26.3	18.6	18.5	4.7	3.3	0.5	28.0	100.0
	가정주부	(231)	35.7	18.5	14.9	5.3	6.2	0.0	19.5	100.0
	학생	(104)	16.5	22.2	22.4	13.6	3.9	1.2	20.2	100.0
	무직/기타	(99)	19.8	18.8	21.1	4.0	5.5	1.2	29.7	100.0
종교	기독교	(193)	**32.7**	14.3	**22.3**	7.4	6.6	0.0	16.6	100.0
	가톨릭	(83)	**31.7**	25.0	**24.3**	5.6	4.0	0.0	9.5	100.0
	불교	(178)	31.1	17.2	15.5	6.2	6.1	0.0	23.9	100.0
	기타 종교	(6)	33.0	20.6	10.4	4.1	5.0	0.0	27.1	100.0
	종교 없음	(540)	25.8	21.1	16.7	6.3	3.6	0.7	25.8	100.0
지역	서울	(199)	30.5	14.8	20.1	4.9	3.6	0.0	26.0	100.0
	인천/경기	(301)	20.6	23.1	19.5	6.7	5.0	0.8	24.3	100.0
	대전/충청	(105)	35.1	24.3	20.7	3.5	4.3	0.0	12.1	100.0
	광주/전라	(105)	30.5	21.2	20.2	5.2	4.2	0.0	18.7	100.0
	대구/경북	(101)	37.5	17.3	11.1	6.2	3.7	0.0	24.3	100.0
	부산/경남	(159)	28.5	16.5	15.2	10.4	6.4	0.8	22.3	100.0
	강원	(30)	37.9	11.9	14.5	7.8	6.7	0.0	21.2	100.0
생활수준	상/상중	(218)	21.0	22.2	22.8	5.9	4.0	0.6	23.4	100.0
	중	(440)	30.9	19.4	16.7	7.7	4.9	0.0	20.3	100.0
	중하/하	(342)	30.5	17.5	16.9	5.1	4.9	0.7	24.3	100.0
이념성향	보수	(265)	31.5	20.5	15.6	5.4	6.6	0.0	20.4	100.0
	중도	(347)	27.0	17.1	18.6	8.3	5.2	1.1	22.7	100.0
	진보	(332)	29.7	22.0	21.0	5.0	3.5	0.0	18.9	100.0

4-3. 한국교회 활동 정보 인지 경로

DQ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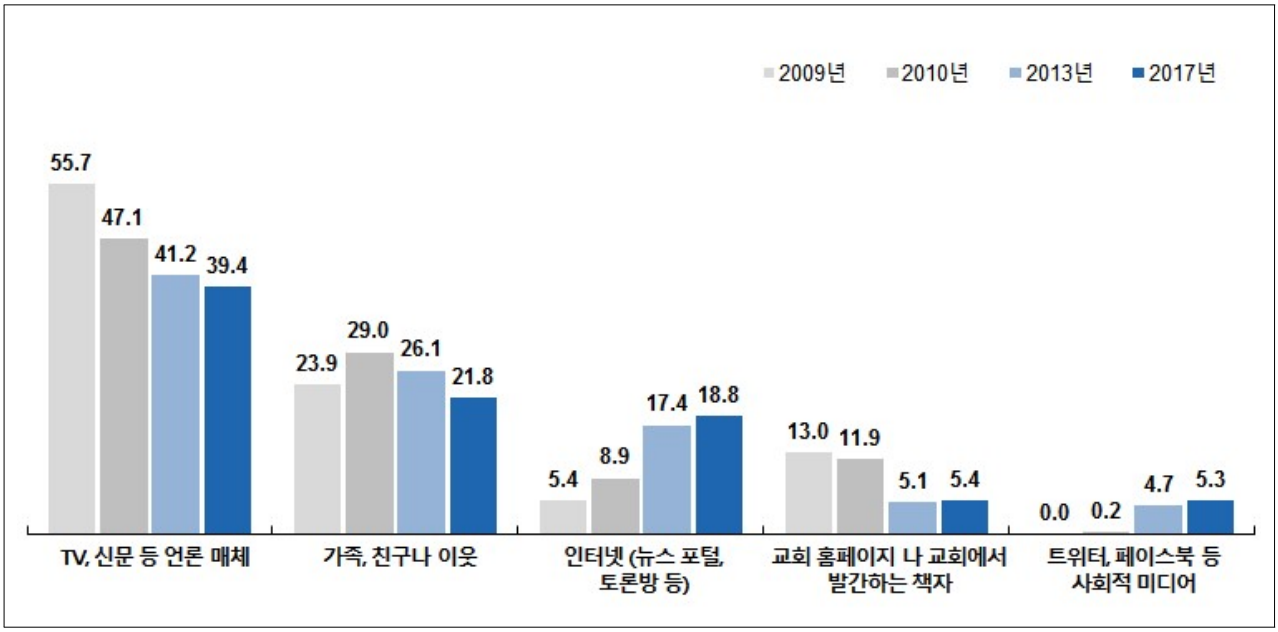
○○님께서는 한국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를 통해 얻으십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정보 인지 경로로 '언론매체'(39.4%)가 올해에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가족/친구/이웃'(21.8%), '인터넷'(18.8%), '교회 홈페이지/발간자료'(5.4%), '사회적 미디어'(5.3%) 등의 순을 보였다.

과거 조사 결과와 추이를 분석해 보면, '언론매체' 응답이 계속 1순위를 점유하고 있으나 '가족/친구/이웃' 응답과 비슷하게 점점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사회적 미디어(SNS)' 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언론매체'는 60대 이상, 자영업자, 보수이념 성향자에서, '가족/친구/이웃' 응답은 여성, 가정주부층에서, '인터넷'은 40대 이하 젊은층, 화이트칼라 및 학생층, 생활수준 상/중상층, 진보 성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종교별로 기독교의 경우 '인터넷'(28.3%)이 '언론매체'(27.8%)와 함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림 9] 한국교회 활동 정보 인지 경로 (N=1000, %)



[표 10] 한국교회 활동 정보 인지 경로 (N=1000, %)

구분		사례수 (명)	TV, 신문 등 언론 매체	가족, 친구나 이웃	인터넷 (뉴스 포털, 토론방 등)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에서 발간하는 책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적 미디어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전체		(1,000)	39.4	21.8	18.8	5.4	5.3	0.6	8.8	100.0
성별	남자	(498)	**42.6**	17.7	20.0	4.3	5.1	0.5	9.8	100.0
	여자	(502)	36.2	**25.9**	17.5	6.4	5.4	0.6	7.9	100.0
연령	만 19~29세	(178)	27.1	20.8	**26.0**	5.3	**11.0**	1.4	8.4	100.0
	30대	(179)	34.8	18.3	21.8	4.1	**10.4**	0.8	9.7	100.0
	40대	(206)	40.6	21.6	**26.2**	3.7	2.9	0.0	5.0	100.0
	50대	(199)	**44.8**	23.0	18.4	5.7	2.0	0.0	6.1	100.0
	60대 이상	(238)	**46.5**	24.4	5.0	7.6	1.9	0.7	13.9	100.0
학력	고졸 이하	(377)	**42.5**	22.3	12.9	6.1	2.9	0.2	13.0	100.0
	대재 이상	(623)	37.4	21.5	22.3	5.0	6.7	0.7	6.2	100.0
직업	농/임/어업	(23)	60.0	16.8	0.0	0.0	2.9	0.0	20.3	100.0
	자영업	(175)	**45.1**	20.5	19.1	4.4	2.7	0.0	8.1	100.0
	블루칼라	(89)	40.9	23.9	19.5	4.6	5.3	0.0	5.8	100.0
	화이트 칼라	(279)	38.1	19.6	**25.4**	3.2	7.6	0.0	6.1	100.0
	가정주부	(231)	38.1	**26.7**	13.4	7.8	4.0	0.6	9.4	100.0
	학생	(104)	27.8	21.8	**25.4**	7.3	8.8	1.5	7.4	100.0
	무직/기타	(99)	42.0	18.1	8.8	7.6	3.0	2.5	17.9	100.0
종교	기독교	(193)	27.8	16.4	**28.3**	14.1	5.5	0.0	7.9	100.0
	가톨릭	(83)	**43.7**	22.1	19.3	4.8	2.1	1.0	7.0	100.0
	불교	(178)	**44.3**	23.0	12.4	6.4	4.3	0.5	9.1	100.0
	기타 종교	(6)	24.7	35.0	23.5	7.4	0.0	0.0	9.5	100.0
	종교 없음	(540)	41.4	23.2	17.3	2.0	6.1	0.7	9.3	100.0
지역	서울	(199)	30.4	25.1	21.3	4.8	8.4	0.4	9.6	100.0
	인천/경기	(301)	35.7	25.9	18.6	4.5	5.1	0.8	9.5	100.0
	대전/충청	(105)	50.7	15.2	17.1	5.0	4.4	0.0	7.7	100.0
	광주/전라	(105)	44.5	16.8	19.3	7.4	4.1	0.7	7.1	100.0
	대구/경북	(101)	37.5	24.4	20.5	8.9	2.1	0.0	6.7	100.0
	부산/경남	(159)	44.8	15.5	17.6	5.7	4.9	1.0	10.5	100.0
	강원	(30)	55.2	24.9	8.3	0.0	6.6	0.0	5.0	100.0
생활수준	상/상중	(218)	39.5	23.0	**24.2**	4.2	3.8	0.4	4.9	100.0
	중	(440)	39.8	22.5	19.2	5.7	5.3	0.7	6.9	100.0
	중하/하	(342)	38.8	20.2	14.7	5.8	6.3	0.5	13.7	100.0
이념성향	보수	(265)	**46.9**	20.3	12.4	7.0	3.5	0.6	9.2	100.0
	중도	(347)	38.6	24.2	19.0	4.6	5.0	0.7	7.9	100.0
	진보	(332)	36.5	21.4	**23.9**	4.8	7.6	0.4	5.4	100.0

5. 한국교회의 과제

5-1.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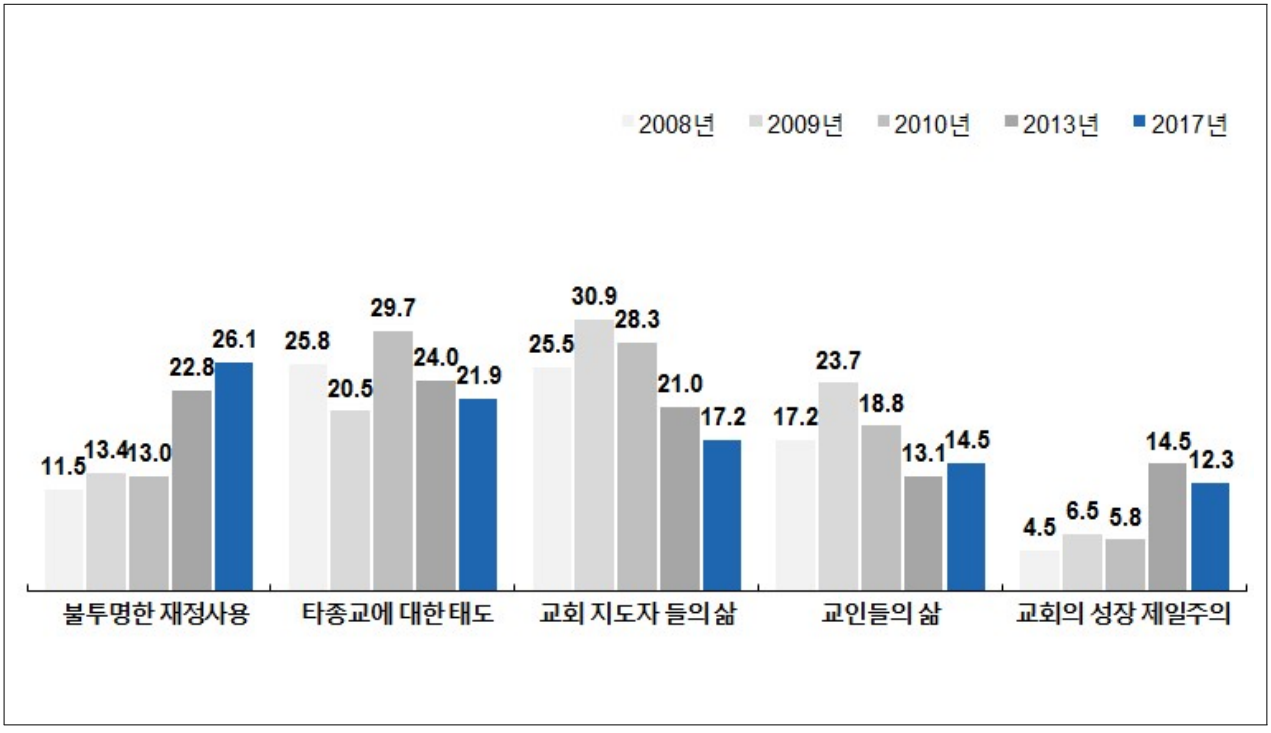
○○님께서는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한 개선점으로 '불투명한 재정사용'이라는 응답이 26.1%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이는 지난 2008년 조사 이래 계속적으로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올해 조사에서 1위로 순위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으로 '타종교에 대한 태도'(21.9%), '교회 지도자들의 삶'(17.2%), '교인들의 삶'(14.5%), '교회성장 제일주의'(12.3%) 등의 순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불투명한 재정사용' 의견은 특히 종교 이탈비율이 높은 20-30대 젊은 층에서 가장 높은 점이 주목된다.
종교별로 살펴보면, 기독교 신자의 경우 '교인들의 삶'(27.9%)과 '교회 지도자들의 삶'(24.3%)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응답된 반면, 가톨릭 신자의 경우 '불투명한 재정사용'(28.4%)을, 불교 신자의 경우 '타종교에 대한 태도'(34.2%)를 기독교가 가장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고 있어 종교인별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10]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상위 5순위) (N=1000, %)



[표 11]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불투명한 재정사용	타종교에 대한 태도	교회 지도자들의 삶	교인들의 삶	교회의 성장 제일주의	기타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00)	26.1	21.9	17.2	14.5	12.3	0.6	7.5	100.0
성별	남자	(498)	26.9	20.1	17.8	12.7	14.4	0.8	7.4	100.0
	여자	(502)	25.3	23.8	16.6	16.3	10.2	0.3	7.6	100.0
연령	만 19~29세	(178)	**29.5**	26.3	15.9	12.1	7.9	0.5	7.8	100.0
	30대	(179)	**35.5**	23.0	15.8	10.8	12.7	0.0	2.1	100.0
	40대	(206)	27.7	17.9	19.4	16.4	14.6	0.4	3.5	100.0
	50대	(199)	22.9	19.9	19.0	17.0	12.4	0.4	8.5	100.0
	60대 이상	(238)	17.6	23.0	15.8	15.3	13.1	1.3	13.8	100.0
학력	고졸 이하	(377)	22.9	19.5	16.1	17.4	10.3	0.5	13.2	100.0
	대재 이상	(623)	28.0	23.4	17.8	12.7	13.5	0.6	4.0	100.0
직업	농/임/어업	(23)	20.3	11.0	22.4	21.7	11.9	0.0	12.7	100.0
	자영업	(175)	25.4	17.0	19.0	16.2	17.1	0.9	4.3	100.0
	블루칼라	(89)	29.7	25.9	15.3	14.5	8.1	0.0	6.5	100.0
	화이트 칼라	(279)	31.2	20.6	17.6	11.5	12.5	0.5	6.1	100.0
	가정주부	(231)	21.3	25.2	15.7	18.8	10.0	0.4	8.5	100.0
	학생	(104)	30.4	28.9	15.1	11.5	8.5	0.9	4.6	100.0
	무직/기타	(99)	17.1	17.9	19.1	11.4	16.3	1.1	17.1	100.0
종교	기독교	(193)	16.1	16.0	**24.3**	**27.9**	9.8	1.2	4.7	100.0
	가톨릭	(83)	**28.4**	20.7	17.5	10.4	11.9	0.6	10.6	100.0
	불교	(178)	23.6	**34.2**	10.7	7.1	13.1	0.0	11.3	100.0
	기타 종교	(6)	21.8	29.7	23.9	3.3	17.7	0.0	3.7	100.0
	종교 없음	(540)	**30.1**	20.1	16.7	12.9	12.9	0.6	6.8	100.0
지역	서울	(199)	26.0	18.6	21.4	15.2	14.5	1.4	2.9	100.0
	인천/경기	(301)	25.6	24.7	16.3	14.0	10.7	0.3	8.3	100.0
	대전/충청	(105)	30.1	22.0	15.1	14.8	10.2	0.6	7.2	100.0
	광주/전라	(105)	29.0	16.7	23.3	13.1	10.2	0.9	6.8	100.0
	대구/경북	(101)	17.0	22.1	10.3	19.2	17.5	0.0	13.9	100.0
	부산/경남	(159)	27.5	23.5	16.2	11.4	12.5	0.3	8.5	100.0
	강원	(30)	29.3	24.2	12.8	19.0	9.0	0.0	5.7	100.0
생활수준	상/상중	(218)	27.4	25.9	15.2	12.4	14.0	0.4	4.6	100.0
	중	(440)	27.0	22.2	17.7	15.3	12.0	0.4	5.4	100.0
	중하/하	(342)	23.9	19.1	17.9	14.9	11.5	0.9	11.9	100.0
이념성향	보수	(265)	19.7	25.3	21.1	15.4	9.6	0.6	8.3	100.0
	중도	(347)	25.5	21.9	18.9	12.7	11.6	0.9	8.5	100.0
	진보	(332)	32.6	20.8	13.0	14.3	15.8	0.3	3.2	100.0

5-2.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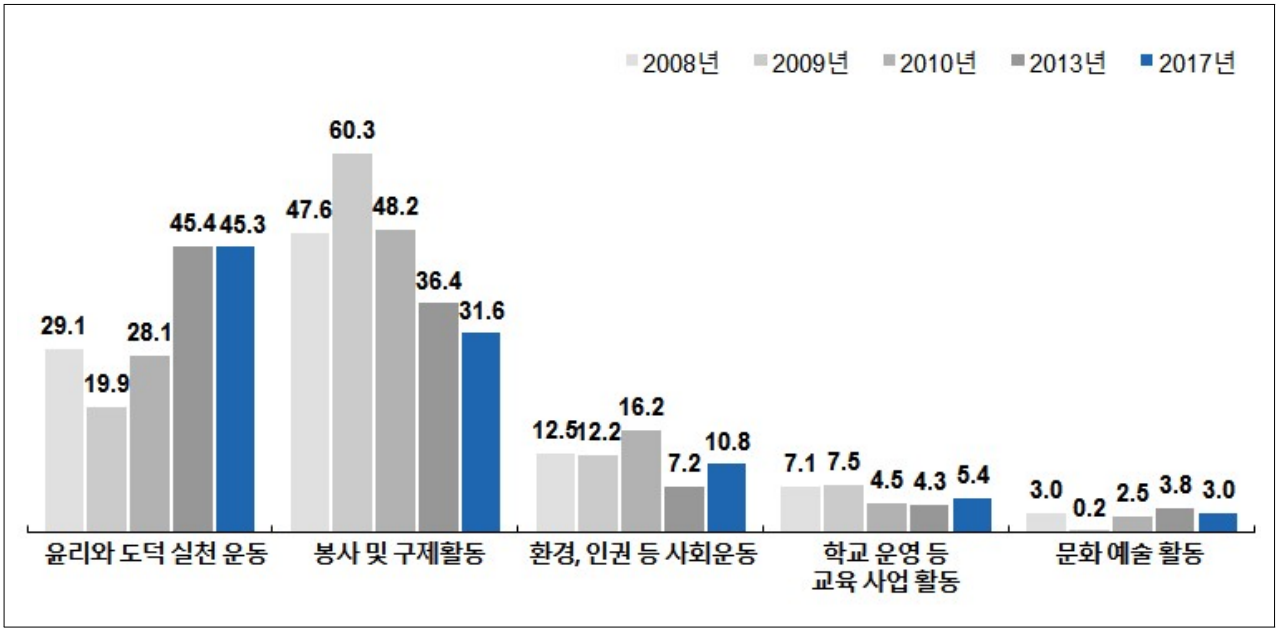
그럼 다음의 사회적 활동 중에서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는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라는 응답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일반국민의 절반 가까이 한국교회의 윤리/도덕적 사회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봉사/구제활동' 31.6%, '환경/인권 등 사회운동' 10.8%, '교육 사업 활동' 5.4%, '문화예술 활동' 3.0% 등의 순을 보였다.

과거 조사 대비 추이를 살펴보면, '윤리/도덕 실천 운동'은 2013년도 결과와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봉사/구제 활동'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폭이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국민들의 인식이 '사회복지 활동'에서 '윤리실천운동'로 이전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윤리/도덕 실천 운동' 활동을 중요하게 보는 응답은 대재 이상 학력자, 화이트칼라 계층, 대구/경북지역, 생활수준 상/중상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종교별로 타종교 및 무종교인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계층에서 높은 경향이 뚜렷했다.

[그림 11]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상위 5순위) (N=1000, %)



[표 12]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봉사 및 구제활동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	학교 운영 등 교육 사업 활동	문화 예술 활동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전체		(1,000)	45.3	31.6	10.8	5.4	3.0	0.6	3.3	100.0
성별	남자	(498)	47.5	29.5	10.7	4.8	2.3	1.0	4.2	100.0
	여자	(502)	43.2	33.8	10.8	5.9	3.6	0.2	2.5	100.0
연령	만 19~29세	(178)	42.3	27.8	**15.1**	6.3	5.7	1.0	1.8	100.0
	30대	(179)	48.5	29.0	**14.5**	4.0	0.8	1.3	1.9	100.0
	40대	(206)	46.8	33.0	9.7	3.5	1.9	0.7	4.4	100.0
	50대	(199)	46.7	31.1	8.4	8.0	1.8	0.0	4.0	100.0
	60대 이상	(238)	42.8	35.7	7.5	5.1	4.4	0.2	4.1	100.0
학력	고졸 이하	(377)	38.4	37.9	10.0	6.2	3.4	0.1	4.0	100.0
	대재 이상	(623)	**49.5**	27.8	11.2	4.9	2.7	0.9	2.9	100.0
직업	농/임/어업	(23)	37.1	36.7	10.6	8.2	7.4	0.0	0.0	100.0
	자영업	(175)	44.1	35.3	10.9	5.5	1.0	0.0	3.0	100.0
	블루칼라	(89)	42.7	32.0	12.9	7.2	3.0	1.7	0.5	100.0
	화이트 칼라	(279)	**50.0**	27.9	11.2	4.2	2.6	0.8	3.3	100.0
	가정주부	(231)	43.0	38.6	6.3	5.0	3.4	0.0	3.7	100.0
	학생	(104)	46.2	21.8	16.6	3.9	7.4	0.9	3.1	100.0
	무직/기타	(99)	43.0	28.1	11.7	8.6	0.5	1.4	6.7	100.0
종교	기독교	(193)	**37.7**	**40.5**	7.8	6.8	2.5	0.3	4.4	100.0
	가톨릭	(83)	**52.9**	30.6	6.8	6.4	1.7	1.0	0.6	100.0
	불교	(178)	44.7	30.8	11.6	3.5	6.2	0.9	2.3	100.0
	기타 종교	(6)	57.2	23.4	5.8	13.6	0.0	0.0	0.0	100.0
	종교 없음	(540)	**47.0**	28.9	12.2	5.3	2.3	0.6	3.7	100.0
지역	서울	(199)	47.2	30.0	9.0	7.2	1.3	1.5	3.8	100.0
	인천/경기	(301)	45.7	30.2	9.6	6.7	3.4	0.6	3.8	100.0
	대전/충청	(105)	39.7	36.0	18.7	3.3	1.4	0.0	0.9	100.0
	광주/전라	(105)	42.9	35.3	15.2	4.1	0.9	0.0	1.5	100.0
	대구/경북	(101)	**52.9**	27.0	4.4	4.0	5.3	1.5	4.9	100.0
	부산/경남	(159)	41.7	34.6	10.3	4.8	5.1	0.0	3.5	100.0
	강원	(30)	50.9	28.3	13.7	0.0	2.4	0.0	4.8	100.0
생활수준	상/상중	(218)	**52.0**	29.9	8.9	3.3	3.4	0.8	1.7	100.0
	중	(440)	45.8	31.3	11.0	5.5	3.3	0.3	3.0	100.0
	중하/하	(342)	40.5	33.2	11.7	6.6	2.2	1.0	4.8	100.0
이념성향	보수	(265)	45.7	32.8	7.7	5.8	4.2	0.2	3.5	100.0
	중도	(347)	45.5	31.2	10.3	5.8	3.0	1.0	3.1	100.0
	진보	(332)	48.3	28.9	13.0	4.8	2.1	0.7	2.3	100.0
한국교회 신뢰	신뢰	(202)	37.4	36.4	10.8	7.3	3.8	1.2	3.2	100.0
	보통	(286)	40.9	35.9	9.8	5.5	4.6	0.0	3.3	100.0
	비신뢰	(512)	**51.0**	27.4	11.3	4.5	1.7	0.8	3.4	100.0

5-3.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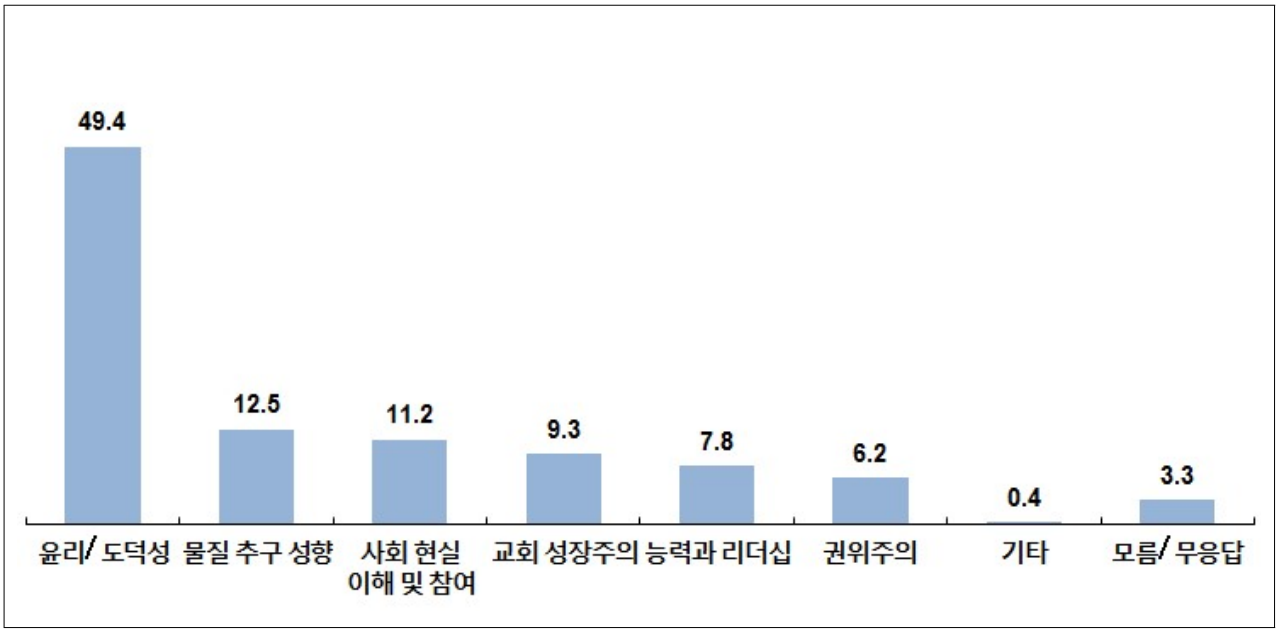
문4

○○님께서는 현재 한국교회" 목사"들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2017년도 신규 추가 문항)으로 '윤리/도덕성'(49.4%) 문제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물질 추구 성향'(12.5%), '사회 현실 이해/참여'(11.2%), '교회 성장주의'(9.3%) 등의 순으로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는 일반국민들이 한국교회를 볼 때 목회자들의 윤리/도덕성 문제를 매우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목회자들의 '윤리/도덕성' 요구 응답은 30대 연령층, 자영업자, 광주/전라 및 대구/경북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종교별로는 대체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무종교인(55.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그림 12]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표 13]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윤리/ 도덕성	물질 추구 성향	사회 현실 이해 및 참여	교회 성장주의	능력과 리더십	권위주의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전체		(1,000)	49.4	12.5	11.2	9.3	7.8	6.2	0.4	3.3	100.0
성별	남자	(498)	48.5	14.1	11.3	8.3	7.3	6.2	0.5	3.8	100.0
	여자	(502)	50.3	11.0	11.1	10.3	8.2	6.1	0.2	2.7	100.0
연령	만 19~29세	(178)	49.0	16.1	13.7	4.2	5.1	**9.4**	0.5	1.9	100.0
	30대	(179)	**53.5**	14.1	12.5	10.3	3.7	5.0	0.0	0.9	100.0
	40대	(206)	48.7	12.8	11.2	13.9	2.4	**9.0**	0.5	1.5	100.0
	50대	(199)	49.3	10.5	10.4	8.3	**10.7**	4.2	0.6	6.1	100.0
	60대 이상	(238)	47.3	10.2	9.0	9.2	**15.0**	3.9	0.3	5.2	100.0
학력	고졸 이하	(377)	46.6	10.1	11.1	7.3	12.2	6.8	0.0	5.9	100.0
	대재 이상	(623)	51.1	14.0	11.2	10.5	5.1	5.8	0.6	1.7	100.0
직업	농/임/어업	(23)	57.7	5.2	13.6	3.6	7.8	2.6	0.0	9.4	100.0
	자영업	(175)	**57.9**	11.0	7.7	8.2	5.9	6.5	0.0	2.8	100.0
	블루칼라	(89)	40.7	11.2	11.1	14.8	8.0	7.1	0.0	7.1	100.0
	화이트 칼라	(279)	47.8	14.7	14.4	9.9	5.1	5.9	0.6	1.6	100.0
	가정주부	(231)	48.9	11.1	10.7	9.4	11.9	5.5	0.5	2.0	100.0
	학생	(104)	46.2	19.0	9.2	7.2	6.9	10.2	0.0	1.2	100.0
	무직/기타	(99)	49.4	8.7	10.7	7.9	9.7	3.7	0.9	9.0	100.0
종교	기독교	(193)	40.8	14.3	7.6	11.4	13.4	8.3	0.6	3.6	100.0
	가톨릭	(83)	49.4	15.7	9.6	9.4	4.8	5.3	2.2	3.7	100.0
	불교	(178)	40.9	10.2	14.4	11.0	10.3	8.6	0.0	4.6	100.0
	기타 종교	(6)	45.2	6.5	24.4	7.8	8.7	0.0	0.0	7.3	100.0
	종교 없음	(540)	**55.3**	12.3	11.5	8.0	5.4	4.8	0.1	2.6	100.0
지역	서울	(199)	44.5	13.0	11.6	13.6	6.0	8.6	0.4	2.2	100.0
	인천/경기	(301)	52.5	14.6	8.1	8.2	7.0	6.0	0.2	3.2	100.0
	대전/충청	(105)	48.6	11.8	11.6	12.0	6.5	4.6	0.0	4.8	100.0
	광주/전라	(105)	55.1	7.7	11.3	6.6	8.6	8.7	0.0	2.0	100.0
	대구/경북	(101)	55.4	8.6	10.3	6.2	7.5	5.8	0.0	6.2	100.0
	부산/경남	(159)	42.6	14.0	14.1	9.0	12.7	4.3	1.3	2.0	100.0
	강원	(30)	48.9	13.9	24.2	4.4	3.0	0.0	0.0	5.6	100.0
생활수준	상/상중	(218)	51.2	15.1	8.6	12.1	3.5	6.9	0.4	2.2	100.0
	중	(440)	49.8	12.6	12.0	8.2	9.1	5.9	0.6	1.7	100.0
	중하/하	(342)	47.7	10.8	11.8	8.9	8.8	6.0	0.0	6.0	100.0
이념성향	보수	(265)	50.3	10.1	10.1	10.4	9.5	5.4	0.4	3.9	100.0
	중도	(347)	49.1	11.9	11.8	8.0	8.0	6.6	0.4	4.2	100.0
	진보	(332)	50.1	14.6	12.0	10.8	5.9	5.5	0.3	0.7	100.0

5-4.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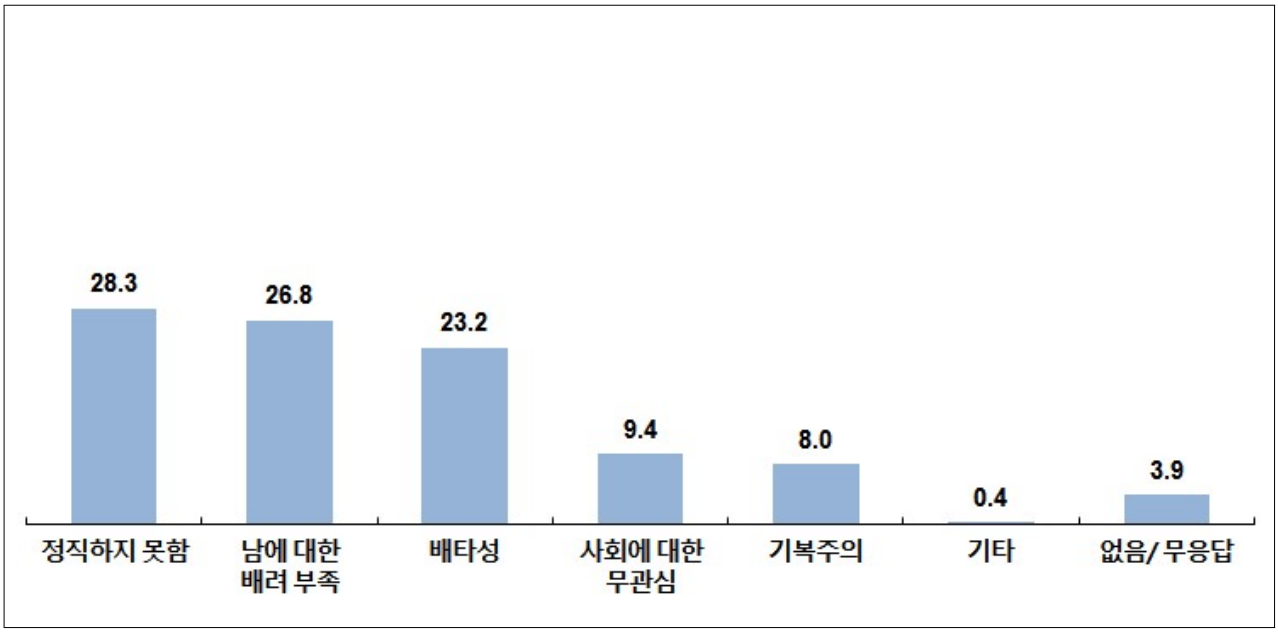
문5

그럼, 기독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다음으로 기독교인이 신뢰받기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정직하지 못함'(28.3%), '남에 대한 배려 부족'(26.8%), '배타성'(23.2%) 등이 상위 그룹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반면, '사회에 대한 무관심', '기복주의' 등은 10% 미만의 응답을 보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정직하지 못함'은 50대, 자영업자, 고졸이하 저학력층, 부산/경남지역에서, '배려 부족'은 60대 이상, 블루칼라와 가정주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기독교인의 경우 '정직하지 못함'과 '배려 부족'을, 가톨릭교인은 '정직하지 못함'과 '배타성'을, 불교인은 '배려 부족'을 기독교인이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림 13]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표 14]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정직하지 못함	남에 대한 배려 부족	배타성	사회에 대한 무관심	기복주의	기타	없음	모름/ 무응답	계
전체		(1,000)	28.3	26.8	23.2	9.4	8.0	0.4	0.3	3.6	100.0
성별	남자	(498)	28.5	24.6	24.7	10.4	7.6	0.5	0.4	3.4	100.0
	여자	(502)	28.2	29.0	21.8	8.3	8.4	0.4	0.2	3.8	100.0
연령	만 19~29세	(178)	26.8	27.0	23.4	9.7	7.7	0.5	0.5	4.3	100.0
	30대	(179)	27.0	20.0	33.7	9.0	8.1	0.0	0.5	1.6	100.0
	40대	(206)	23.4	26.8	27.8	11.0	9.5	1.0	0.0	0.5	100.0
	50대	(199)	**34.3**	27.2	19.3	6.7	8.0	0.4	0.0	4.2	100.0
	60대 이상	(238)	29.7	**31.3**	14.5	10.1	6.8	0.3	0.5	6.9	100.0
학력	고졸 이하	(377)	**32.6**	26.8	15.1	11.0	7.9	0.4	0.6	5.7	100.0
	대재 이상	(623)	25.7	26.8	28.1	8.4	8.1	0.5	0.2	2.3	100.0
직업	농/임/어업	(23)	32.2	17.0	9.8	16.7	11.7	0.0	0.0	12.6	100.0
	자영업	(175)	**34.4**	24.2	20.3	9.6	7.7	1.4	0.0	2.2	100.0
	블루칼라	(89)	24.3	**32.5**	29.9	4.2	6.2	0.0	1.1	1.8	100.0
	화이트 칼라	(279)	25.6	20.0	31.7	10.5	7.9	0.3	0.3	3.6	100.0
	가정주부	(231)	29.7	**32.3**	16.1	8.2	9.6	0.0	0.5	3.6	100.0
	학생	(104)	27.9	28.1	24.2	9.5	8.0	0.9	0.0	1.4	100.0
	무직/기타	(99)	24.9	32.9	17.2	11.1	5.8	0.0	0.0	8.1	100.0
종교	기독교	(193)	24.2	25.7	15.4	12.5	16.9	1.1	0.0	4.3	100.0
	가톨릭	(83)	28.5	26.2	28.9	6.9	9.5	0.0	0.0	0.0	100.0
	불교	(178)	25.7	30.3	25.5	10.2	1.9	0.0	0.6	5.6	100.0
	기타 종교	(6)	21.0	41.3	6.2	3.7	19.9	0.0	0.0	7.8	100.0
	종교 없음	(540)	30.7	25.9	24.6	8.4	6.5	0.4	0.4	3.2	100.0
지역	서울	(199)	24.6	27.5	26.8	5.1	12.5	1.3	1.0	1.1	100.0
	인천/경기	(301)	28.1	29.5	19.1	11.1	6.7	0.6	0.0	4.9	100.0
	대전/충청	(105)	27.3	28.0	23.9	10.2	6.0	0.0	0.0	4.6	100.0
	광주/전라	(105)	28.3	21.4	20.0	16.3	12.4	0.0	0.0	1.5	100.0
	대구/경북	(101)	24.8	24.0	31.8	5.6	6.4	0.0	0.0	7.5	100.0
	부산/경남	(159)	**35.1**	27.0	23.3	6.1	4.8	0.0	0.7	2.9	100.0
	강원	(30)	35.2	16.9	19.8	22.2	4.1	0.0	0.0	1.8	100.0
생활수준	상/상중	(218)	25.5	23.0	29.8	9.3	8.8	0.4	0.0	3.1	100.0
	중	(440)	27.7	29.3	23.9	9.3	6.5	0.3	0.2	2.7	100.0
	중하/하	(342)	31.0	25.9	18.0	9.4	9.3	0.6	0.6	5.1	100.0
이념성향	보수	(265)	29.4	26.3	21.4	9.4	8.3	1.0	1.2	3.0	100.0
	중도	(347)	31.1	27.8	20.9	9.3	6.2	0.2	0.0	4.6	100.0
	진보	(332)	23.4	25.8	29.9	9.0	10.1	0.3	0.0	1.6	100.0

6. 기타

6-1. 종교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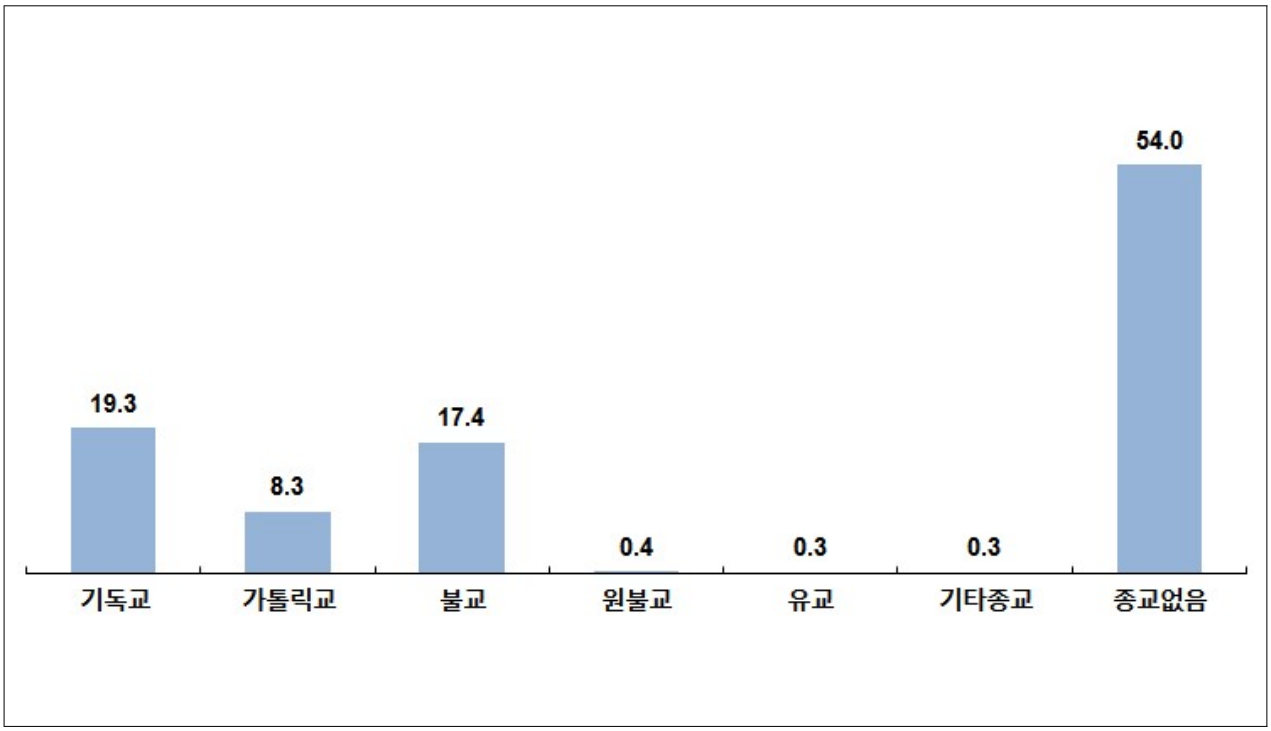
문DQ1

○○님은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본 조사에서는 현재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질문하여 2015년 인구센서스 결과 중 만 20세 이상 종교분포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주어 집계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 19.3%, 가톨릭 8.3%, 불교 17.4%, 기타종교 1.0%, 종교없음 54.0%로 나타났다.

각 종교별 계층별 특성을 보면, 기독교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고, 연령별로 20대(12.9%)와 30대 이후(19~22%)가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기독교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으며 이념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가톨릭은 50대 연령대까지는 비슷한 비율을 보이다 60대 이상층(12.6%)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불교 역시 60대 이상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경상도 지역과 보수성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14] 종교분포 (N=1000, %)



[표 15] 종교분포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기독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종교없음	계
전체		(1,000)	19.3	8.3	17.4	0.4	0.3	0.3	54.0	100.0
성별	남자	(498)	14.2	6.2	15.8	0.6	0.5	0.4	62.2	100.0
	여자	(502)	24.3	10.3	19.0	0.2	0.0	0.2	45.9	100.0
연령	만 19~29세	(178)	12.9	7.1	7.7	0.0	0.2	0.7	71.4	100.0
	30대	(179)	**18.7**	5.4	12.7	0.8	0.2	0.0	62.3	100.0
	40대	(206)	**19.5**	6.9	15.4	0.0	0.0	0.5	57.6	100.0
	50대	(199)	**21.9**	8.4	17.7	0.7	0.4	0.3	50.6	100.0
	60대 이상	(238)	**22.1**	**12.6**	**29.7**	0.5	0.6	0.1	34.4	100.0
학력	고졸 이하	(377)	20.5	9.5	**22.7**	0.3	0.4	0.2	46.3	100.0
	대재 이상	(623)	18.5	7.6	14.2	0.4	0.2	0.4	58.6	100.0
직업	농/임/어업	(23)	7.4	8.5	29.8	0.0	0.9	0.0	53.5	100.0
	자영업	(175)	18.5	5.3	20.3	0.8	0.5	0.2	54.4	100.0
	블루칼라	(89)	17.4	4.6	21.3	0.0	0.7	0.3	55.7	100.0
	화이트 칼라	(279)	18.3	8.0	8.2	0.0	0.1	0.4	64.9	100.0
	가정주부	(231)	26.5	12.2	26.3	0.5	0.1	0.3	34.1	100.0
	학생	(104)	14.8	5.8	7.9	0.0	0.0	0.8	70.8	100.0
	무직/기타	(99)	15.7	11.3	21.3	1.4	0.7	0.0	49.6	100.0
종교	기독교	(193)	100.0	0.0	0.0	0.0	0.0	0.0	0.0	100.0
	가톨릭	(83)	0.0	100.0	0.0	0.0	0.0	0.0	0.0	100.0
	불교	(178)	0.0	0.0	97.8	2.2	0.0	0.0	0.0	100.0
	기타 종교	(6)	0.0	0.0	0.0	0.0	47.4	52.6	0.0	100.0
	종교 없음	(54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지역	서울	(199)	**24.7**	9.5	11.9	0.7	0.4	0.5	52.4	100.0
	인천/경기	(301)	**21.1**	7.5	14.6	0.0	0.2	0.1	56.5	100.0
	대전/충청	(105)	14.0	10.0	13.0	0.0	0.0	0.7	62.4	100.0
	광주/전라	(105)	**23.7**	8.2	14.0	1.1	0.8	0.0	52.2	100.0
	대구/경북	(101)	13.3	10.2	22.0	0.0	0.7	0.3	53.4	100.0
	부산/경남	(159)	15.1	6.1	29.7	0.9	0.0	0.5	47.7	100.0
	강원	(30)	11.4	8.2	28.9	0.0	0.0	0.0	51.6	100.0
생활수준	상/상중	(218)	17.9	5.2	17.2	1.3	0.1	0.3	57.9	100.0
	중	(440)	18.3	9.5	16.3	0.0	0.3	0.2	55.3	100.0
	중하/하	(342)	**21.4**	8.7	19.0	0.3	0.3	0.4	49.8	100.0

6-2. 종교적 믿음의 깊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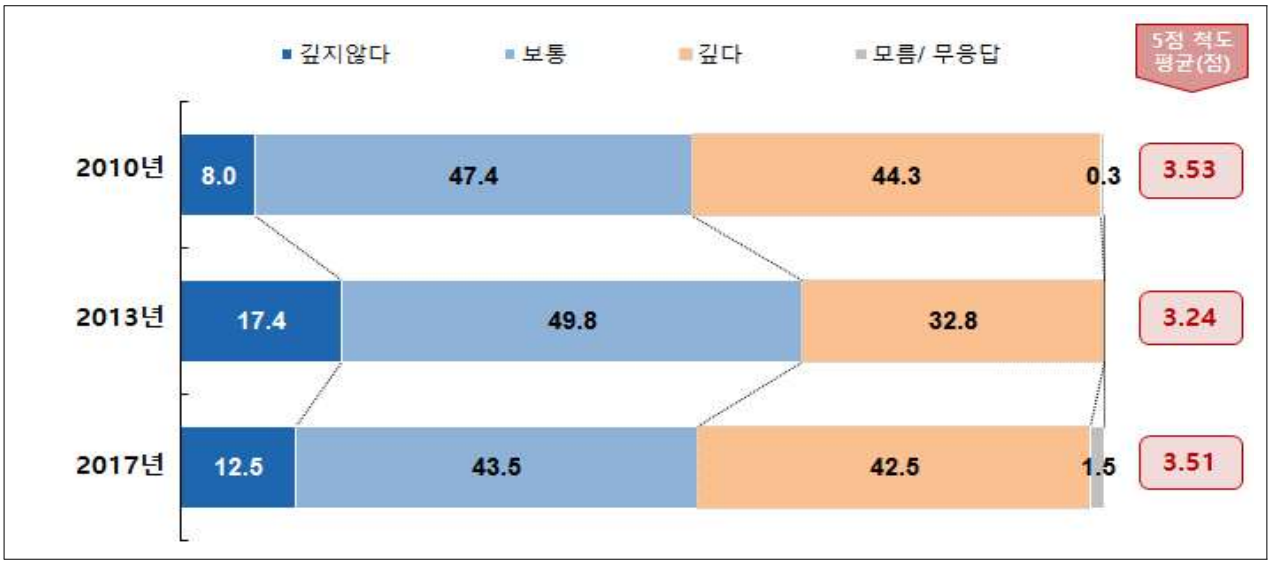
문DQ6

○○님께서는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얼마나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인별 종교적 믿음의 깊이를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자신의 믿음이 '깊이가 있다' 42.5%, '깊지 않다' 12.5%로 나타났다. 이를 종교인별로 살펴보면 기독교인 56.6%, 가톨릭교인 38.6%, 불교인 28.9%로 각각 나타나, 기독교가 타종교에 비해 '자신의 믿음이 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단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를 2010년 2013년 과거 조사와 비교하면, 자신의 '믿음이 깊다'는 응답은 2010년 대비 2013년은 하락했다가 2017년은 다시 2010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신의 '믿음이 깊다'고 인식하는 계층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성향의 응답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자신의 종교적 믿음의 깊이 (전체) (N=1000, %)



[표 16] 자신의 종교적 믿음의 깊이 '깊다' (2010년 2013년 2017년 비교) - 종교별 (N=1000, %)

	기독교			가톨릭			불교		
	2010	2013	2017	2010	2013	2017	2010	2013	2017
깊음	57.1	45.6	**56.6**	52.3	33.2	**38.6**	29.8	19.0	**28,9**
보통	36.4	43.2	35.3	41.3	40.6	38.0	60.4	61.7	55.3
깊지 않음	6.5	11.2	6.3	6.4	26.2	23.5	9.8	19.2	14.1

[표 17] 종교적 믿음의 깊이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깊지 않다	별로 깊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깊다	매우 깊다	깊지 않다 (전혀+별로)	보통	깊다 (약간+매우)	모름/무응답	계	평균 (5점 척도)
전체		(460)	2.0	10.5	43.5	20.5	22.0	12.5	43.5	42.5	1.5	100.0	3.51
성별	남자	(188)	2.6	12.1	46.8	23.5	14.0	14.7	46.8	37.5	1.0	100.0	3.35
	여자	(272)	1.5	9.4	41.2	18.4	27.6	10.9	41.2	**46.1**	1.8	100.0	3.62
연령	만 19~29세	(51)	8.2	4.6	28.0	33.8	21.4	12.7	28.0	**55.2**	4.0	100.0	3.58
	30대	(67)	3.4	6.9	53.6	20.3	12.9	10.3	53.6	33.2	3.0	100.0	3.33
	40대	(87)	1.0	11.6	42.7	21.1	22.4	12.7	42.7	43.5	1.2	100.0	3.53
	50대	(98)	0.7	17.8	36.9	15.0	29.3	18.5	36.9	44.4	0.3	100.0	3.55
	60대 이상	(156)	0.7	8.8	48.7	19.4	21.4	9.4	48.7	40.8	1.0	100.0	3.53
학력	고졸 이하	(202)	0.6	10.8	46.0	16.8	25.1	11.4	46.0	41.9	0.7	100.0	3.55
	대재 이상	(258)	3.0	10.3	41.5	23.4	19.6	13.3	41.5	43.1	2.1	100.0	3.47
직업	농/임/어업	(10)	0.0	15.7	76.5	0.0	5.9	15.7	76.5	5.9	1.9	100.0	2.96
	자영업	(80)	1.1	10.7	40.1	23.2	24.9	11.8	40.1	48.1	0.0	100.0	3.60
	블루칼라	(40)	2.1	19.6	25.5	20.1	23.1	21.6	25.5	43.3	9.7	100.0	3.47
	화이트 칼라	(98)	2.5	11.7	47.7	19.4	16.6	14.2	47.7	36.0	2.1	100.0	3.37
	가정주부	(152)	1.5	7.8	46.8	19.9	23.3	9.3	46.8	43.2	0.6	100.0	3.56
	학생	(31)	6.7	3.4	34.3	30.3	25.2	10.1	34.3	55.6	0.0	100.0	3.64
	무직/기타	(50)	1.1	12.1	43.4	18.6	24.8	13.2	43.4	43.4	0.0	100.0	3.54
종교	기독교	(193)	1.7	4.6	35.3	24.2	32.3	**6.3**	**35.3**	**56.6**	1.8	100.0	3.82
	가톨릭	(83)	4.5	19.0	38.0	21.1	17.5	**23.5**	**38.0**	**38.6**	0.0	100.0	3.28
	불교	(178)	1.2	12.9	55.3	16.0	12.9	**14.1**	**55.3**	**28.9**	1.7	100.0	3.27
	기타 종교	(6)	0.0	11.4	29.4	26.2	24.8	11.4	29.4	50.9	8.2	100.0	3.70
지역	서울	(95)	3.7	9.5	36.9	23.5	22.8	13.2	36.9	46.3	3.6	100.0	3.54
	인천/경기	(131)	4.2	9.3	42.5	22.3	21.7	13.5	42.5	44.0	0.0	100.0	3.48
	대전/충청	(40)	0.0	9.8	52.3	16.6	21.3	9.8	52.3	37.9	0.0	100.0	3.49
	광주/전라	(50)	0.0	6.4	44.4	22.9	26.0	6.4	44.4	48.9	0.4	100.0	3.69
	대구/경북	(47)	0.0	12.5	53.7	17.7	15.4	12.5	53.7	33.1	0.6	100.0	3.36
	부산/경남	(83)	0.0	15.9	37.8	16.6	26.0	15.9	37.8	42.6	3.7	100.0	3.55
	강원	(15)	0.0	6.5	67.5	18.2	7.8	6.5	67.5	26.0	0.0	100.0	3.27
생활수준	상/상중	(92)	1.0	9.5	39.2	24.4	25.9	10.5	39.2	50.2	0.0	100.0	3.65
	중	(197)	2.3	9.2	44.5	22.1	20.7	11.5	44.5	42.8	1.1	100.0	3.50
	중하/하	(172)	2.1	12.5	44.6	16.6	21.5	14.6	44.6	38.1	2.8	100.0	3.44

6-3. 종교별 이념성향

문12

귀하의 이념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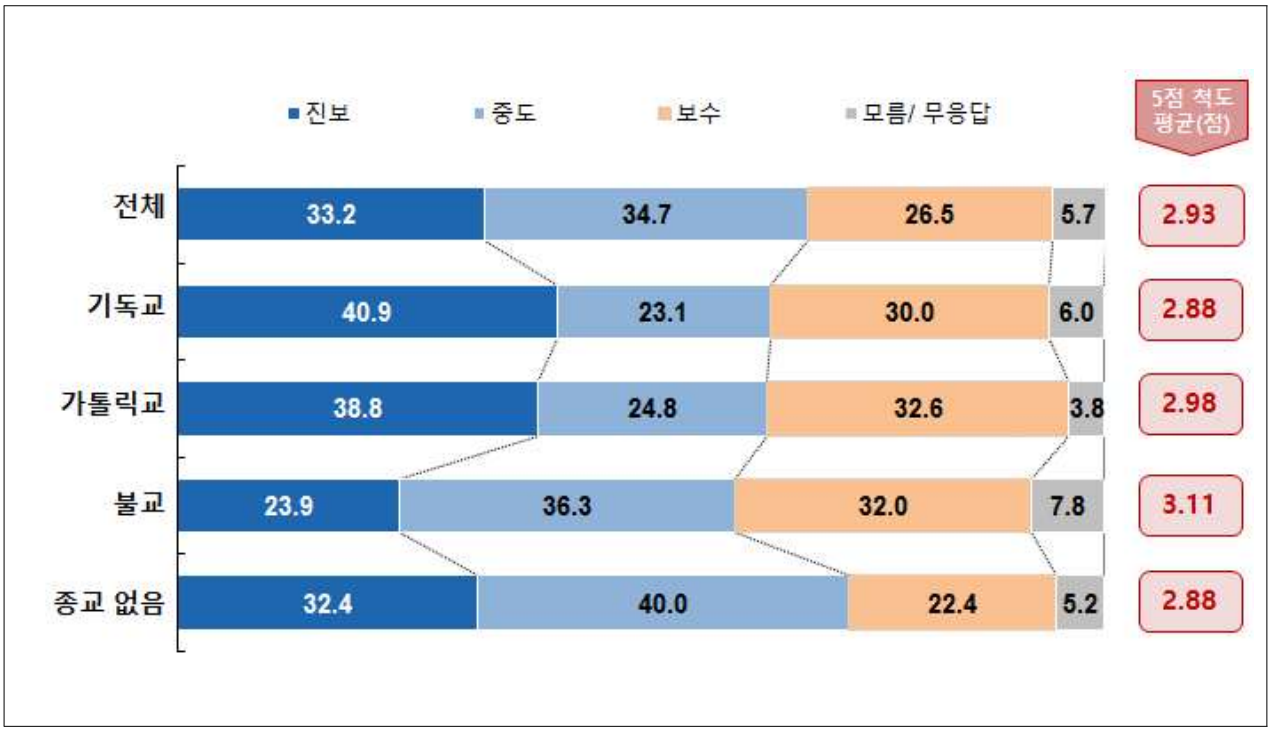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일반국민들의 이념성향은 '진보적' 33.2%, '보수적' 26.5%, '중도' 34.7%로 나타났다.

이를 종교별로 살펴보면, 기독교(40.9%)와 가톨릭(38.8%)에서 '진보적' 성향이 비슷하게 높았으며, 불교(36.3%)와 무종교(40.0%)에서는 '중도' 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교회 신뢰 여부에 따라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자에서는 '보수적'(35.8%) 성향이 다소 높은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에서는 '진보적'(34.7%) 성향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16] 종교별 이념성향

(N=1000, %)



[표 15] 이념성향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진보적이다	약간 진보적인 편이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약간 보수적인 편이다	매우 보수적이다	진보	중도	보수	모름/무응답	계	평균 (5점 척도)
전체		(1,000)	5.5	27.6	34.7	21.2	5.3	33.2	34.7	26.5	5.7	100.0	2.93
성별	남자	(498)	5.6	28.4	32.6	22.8	5.7	33.9	32.6	28.5	4.9	100.0	2.94
	여자	(502)	5.4	26.9	36.7	19.7	4.8	32.4	36.7	24.5	6.5	100.0	2.91
연령	만 19~29세	(178)	6.1	32.6	37.7	14.6	0.6	38.7	37.7	15.2	8.4	100.0	2.68
	30대	(179)	5.2	35.9	39.8	14.6	1.7	41.1	39.8	16.2	2.9	100.0	2.71
	40대	(206)	6.4	38.5	30.6	18.2	3.4	44.8	30.6	21.6	3.0	100.0	2.73
	50대	(199)	5.6	23.5	34.4	23.1	8.6	29.1	34.4	31.7	4.8	100.0	3.06
	60대 이상	(238)	4.5	11.8	32.3	32.3	10.3	16.3	32.3	42.6	8.8	100.0	3.35
학력	고졸 이하	(377)	3.9	18.3	34.1	24.6	7.8	22.2	34.1	32.5	11.2	100.0	3.16
	대재 이상	(623)	6.5	33.3	35.0	19.2	3.7	39.8	35.0	22.9	2.3	100.0	2.80
직업	농/임/어업	(23)	0.0	19.0	56.2	18.6	3.2	19.0	56.2	21.8	3.1	100.0	3.06
	자영업	(175)	8.0	26.6	27.1	28.2	6.4	34.6	27.1	34.6	3.8	100.0	2.98
	블루칼라	(89)	4.1	38.6	30.7	16.3	3.0	42.7	30.7	19.4	7.2	100.0	2.74
	화이트 칼라	(279)	7.8	35.6	37.8	14.2	2.6	43.3	37.8	16.9	2.0	100.0	2.68
	가정주부	(231)	2.9	20.0	34.8	24.7	7.8	22.8	34.8	32.6	9.8	100.0	3.16
	학생	(104)	5.6	30.5	40.1	17.2	1.1	36.0	40.1	18.3	5.6	100.0	2.76
	무직/기타	(99)	3.4	14.2	31.8	29.8	11.6	17.6	31.8	41.4	9.2	100.0	3.35
종교	기독교	(193)	7.8	33.1	23.1	22.8	7.2	40.9	23.1	30.0	6.0	100.0	2.88
	가톨릭	(83)	5.1	33.7	24.8	22.7	9.9	38.8	24.8	32.6	3.8	100.0	2.98
	불교	(178)	4.9	19.0	36.3	25.3	6.7	23.9	36.3	32.0	7.8	100.0	3.11
	기타 종교	(6)	11.6	35.6	15.3	30.7	3.6	47.1	15.3	34.3	3.3	100.0	2.79
	종교 없음	(540)	4.9	27.5	40.0	19.0	3.4	32.4	40.0	22.4	5.2	100.0	2.88
지역	서울	(199)	5.6	24.8	37.9	23.8	2.6	30.5	37.9	26.4	5.2	100.0	2.92
	인천/경기	(301)	5.4	29.2	32.0	20.1	7.7	34.6	32.0	27.7	5.7	100.0	2.95
	대전/충청	(105)	5.4	26.9	38.7	16.4	3.5	32.3	38.7	20.0	9.0	100.0	2.84
	광주/전라	(105)	11.3	34.4	23.6	21.0	1.7	45.7	23.6	22.7	7.9	100.0	2.65
	대구/경북	(101)	2.8	22.7	34.1	30.4	7.0	25.5	34.1	37.4	3.0	100.0	3.17
	부산/경남	(159)	2.9	26.6	40.9	17.8	7.1	29.5	40.9	24.9	4.8	100.0	3.00
	강원	(30)	9.1	32.0	33.0	21.4	1.8	41.1	33.0	23.2	2.7	100.0	2.74
생활수준	상/상중	(218)	5.8	29.5	36.4	22.9	3.3	35.3	36.4	26.2	2.2	100.0	2.88
	중	(440)	6.4	30.5	33.2	19.6	5.5	36.9	33.2	25.1	4.7	100.0	2.87
	중하/하	(342)	4.2	22.8	35.4	22.2	6.3	26.9	35.4	28.5	9.2	100.0	3.04
한국교회 신뢰	신뢰	(202)	4.9	25.4	28.8	26.9	8.9	30.3	28.8	35.8	5.0	100.0	3.10
	보통	(286)	6.0	26.4	34.1	23.8	4.3	32.3	34.1	28.1	5.5	100.0	2.94
	비신뢰	(512)	5.5	29.2	37.3	17.6	4.4	34.7	37.3	21.9	6.0	100.0	2.85

여론조사 질문지

2017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지앤컴리서치의 면접원 ㅇㅇㅇ 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 종교가 사회로부터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 처리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귀하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 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 **연 령** : 1) 만19~29세 ➜ **만 18세 이하 면접중단**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 **성 별** : 1) 남자 2) 여자

문1) ○○님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1번, 약간 그렇다 2번, 보통이다 3번, 별로 그렇지 않다 4번, 전혀 그렇지 않다 5번 중에서 하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기독교 또는 한국교회는 가톨릭 또는 가톨릭 성당이 아니라 기독교 또는 기독교회를 의미합니다.

항 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한국교회의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1-2.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1	2	3	4	5
1-3.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1	2	3	4	5
1-4.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1	2	3	4	5

문2) ○○님께서는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응답보기 로테이션)

1. 교회 지도자들의 삶
2. 타종교에 대한 태도
3. 교인들의 삶
4. 불투명한 재정사용
5. 교회의 성장제일주의
6. 기타 _____

문3) 그럼 다음의 사회적 활동 중에서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응답보기 로테이션)

1. 봉사 및 구제활동
2.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
3. 학교 운영 등 교육 사업 활동
4.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5. 문화 예술 활동
6. 기타_____

문4) ○○님께서는 현재 한국교회 “목사” 들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응답보기 로테이션)

1. 윤리/도덕성
2. 능력과 리더십
3. 물질 추구 성향
4. 교회 성장주의
5. 권위주의
6. 사회 현실 이해 및 참여
7. 기타 _____

문5) 그럼, 기독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응답보기 로테이션)

1. 정직하지 못함
2. 배타성
3. 기복주의
4. 남에 대한 배려 부족
5. 사회에 대한 무관심
6. 기타 _____

문6) ○○님께서 다음 중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만)(응답보기 로테이션)

1. 종교기관
2. 정부
3. 국회
4. 사법부
5. 언론기관
6. 시민단체
7. 기업
8. 대학
9. 기타 _____

문7) 다음의 종교 중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1. 기독교(기독교)
2. 가톨릭교
3. 불교
4. 원불교
5. 유교
6. 기타 _____

문8) 다음 중 어느 종교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1. 기독교(기독교)
2. 가톨릭교
3. 불교
4. 원불교
5. 유교
6. 기타 _____

문9) 한국교회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1번, 약간 그렇다 2번, 별로 그렇지 않다 3번, 전혀 그렇지 않다 4번 중 하나로 대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1) 한국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다 ..... ( )
2)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 ( )
3) 최근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국에서 한국교회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 ..... ( )

문10) ○○님께서는 향후 10년 후 우리나라의 어느 종교가 가장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1. 기독교(기독교)
2. 가톨릭교
3. 불교
4. 원불교
5. 유교
6. 이슬람교
7. 기타 _____

문11) ○○님께서는 올해 대선 과정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응답보기 로테이션)

1. 갈등의 해소와 국민통합
2. 국가의 윤리적 기본방향 제시
3. 대선후보의 검증
4. 공정선거를 위한 감시활동
5.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6. 기타_____

문12) 귀하의 이념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1. 매우 진보적이다
2. 약간 진보적인 편이다
3.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4. 약간 보수적인 편이다
5. 매우 보수적이다

통계 처리용 질문

※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DQ1) ○○님은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1. 기독교(기독교)
2. 가톨릭교
3. 불교
4. 원불교
5. 유교
6. 기타 종교
7. 종교없음

DQ2) [DQ1에서 1로 응답한 경우]

○○님께서는 현재 출석하는 교회 이외의 다른 교회 정보를 주로 어디를 통해 얻으십니까? (응답보기 로테이션)

[DQ1에서 2~7로 응답한 경우]

○○님께서는 한국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를 통해 얻으십니까? (응답보기 로테이션)

1.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에서 발간하는 책자
2. TV, 신문 등 언론 매체
3. 가족, 친구나 이웃
4. 인터넷 (뉴스 포털, 토론방 등)
5.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적 미디어
6. 기타 _____

DQ3)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업/임업/어업
2. 자영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생산/기능/노무직
5. 사무/관리
6. 전문직
7. 가정주부
8. 학생
9. 무직/퇴직/기타
10. 모름/무응답

DQ4) ○○님 댁의 가구소득 수준은 다음의 5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5. 하

DQ5)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1. 고졸 이하
2. 대재 또는 대졸 이상

DQ6) [DQ1에서 종교 있는 사람만]

○○님께서는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얼마나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깊지 않다
2. 별로 깊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깊다
5. 매우 깊다

◐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분석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윤실 이사

Ⅰ.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의 취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3년까지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네 차례 하였으며, 이어 올해 2017년에도 동일 주제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성별/연령/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확인하여 한국교회가 국민들이 보기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교회 신뢰 회복과 부흥의 단초를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람들이 만약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 교인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건강성의 주요한 기준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사람들의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빛은 발해야 사물을 볼 수 있다. 소금은 세상 속에 녹아들어야 그 짠맛을 낸다. 하지만 빛이 발하지 못하고, 소금이 그 짠 맛을 잃게 되면 더 이상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 교회도 그러하다. 그 '밝은 광채', '짠 맛'과 같은 세상 속에 속하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무엇인가를 잃게 된다면 우리의 메시지, 복음에 대한 선포는 설득력을 잃고 만다.

기윤실에서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조사 결과는 '교인들과 이웃의 평가가 한결 같이 교회를 높게 신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쓰는 상황에서 결과는 그렇게 바라는 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싫어하고 부끄러운 것은 숨기고, 사람들에게 기독교[1]가 걸림이 되는 이러한 상황과 사실에 대해 덮어둔다면 교회의 갱신과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을 점검하여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다시 헌신할 필요가 있다. 이원규(2013)는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분석'에 대한 발제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를 한국교회의 부도덕성 혹은 세속화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3년 조사 결과, 한국교회가 불신을 받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언행일치가 되지 않음"이나 "교회 내의 비리/부정부패"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으로 "윤리와 도덕실천운동"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이원규(2013)는 "성직자가 성직자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한 것이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추락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종교의 신뢰 수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사회봉사 및 이타적 활동'이 아니라 '도덕성 수준'이기 때문이다.[2] 하지

1) 본 여론조사와 본 글에서의 '기독교' 또는 '한국교회'는 '가톨릭교' 또는 '가톨릭 성당'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아닌, '개신교' 또는 '개신교회'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이원규 (2009). 종교와 도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 기독교의 도덕성 수준의 문제를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64**, 125-174.

만 타종교와 비교하였을 때 교회에 대한 신뢰도, 건강성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들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한국교회의 윤리와 도덕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얻는 신뢰는 우리(성도, 교회)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심하게는 기독교를 멸시하는 부정적 표현을 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일 수 있다.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설문의 결과는 오히려 감추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덮어두기보다 드러내고 자기반성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속이고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고 감추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고 하였다. 과연 한국교회의 신뢰수준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다른 종교기관 혹은 사회기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만약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낮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기독교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과 기대는 어떠한가?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를 다음의 가장 중요한 물음에 직면하도록 만들었다. 과연 사람들에게 한국교회는 믿을만한 존재인가?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Ⅱ. 설문 문항 작성의 원칙 및 설문의 구조

우리는 설문 문항의 작성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객관적인 신뢰도를 도출하기 위해 수치화할 수 있는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즉 신뢰도는 5점 척도로 표현하여 횡단면적인 비교(예: 한국의 사회기관 또는 다른 종교기관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설문의 보기들은 가능한 한 배타적이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응답 결과, 응답자 중에서의 기독교인의 비중이 전체 인구 중에서의 기독교인의 비중보다 많아짐으로써 응답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 우리나라 인구의 종교 구성 비율에 따라 표본의 종교에 가중치를 부과하였다. 셋째, 가능한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기보다는 과거와 동일한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여 시계열적 비교를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본 설문은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를 물어보고, 세부적인 분석을 위하여 신뢰도의 구성 요소를 기독교인, 기독교 목사, 그리고 한국교회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개별 구성요소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했다. 이러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종교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또한 2013년과 같이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적 과제와 기독교 목사들이 개선되어야 할 점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2017년 설문에서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사회적 활동과 기독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설문하였다.

2017년 설문에서도 한국교회와 사회 내의 다른 기관들, 그리고 다른 종교 기관들의 신뢰도를 상호 비교하는 설문을 포함하였다. 또한 향후 10년 후 가장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는 종교에 대한 설문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한국교회 신뢰도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사회인식조사의 특징은 연차별 변화를 추적해 나간다는 목적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사 설문과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2017년 조사에서는 최근 한국교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거나 문항을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교회가 배타적이고 자교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사회 밖 세상과 소통하는 정도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에 대한 기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최근 한국의 어려운 시국에서 한국교회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또한 2017년 치러질 대선 과정에서 기독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설문함으로써 한국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회의 기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 지역, 연령, 성별, 이념성향, 종교, 한국교회에 관한 주된 정보 획득 경로, 직업, 가구 소득수준, 학력, 본인이 평가한 신앙의 깊이 등의 인구사회학적 질문을 포함하였다. 전반적인 설문 문항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설문 문항 구조

구분	문항
한국교회의 신뢰도와 구성요소	• 한국교회 활동에 대한 신뢰도 (문1-1) • 기독교 목사에 대한 신뢰도 (문1-2) •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 (문1-3) • 전반적인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문1-4)
신뢰도 개선방안	• 한국교회 신뢰를 위한 최우선 개선과제 (문2) • 한국교회 신뢰를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 (문3) • 기독교 목사들이 개선되어야 할 점 (문4) • 기독교인이 개선되어야 할 점(문5)
한국교회와의 비교 검토	• 가장 신뢰하는 기관 (문6) • 가장 신뢰하는 종교 (문7) • 가장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종교 (문8) • 향후 10년 후 가장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는 종교 (문10)
한국교회 관련 인식 및 기대	• 한국교회가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는 정도 (문9-1) •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도 (문9-2) • 한국교회가 최근 어려운 시국에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정도 (문9-3) • 올해 대선 과정에서 기독교가 해야 하는 역할 (문11)
인구사회학적 질문	• 거주 지역, 연령, 성별 • 이념성향 (문12) • 종교(DQ1), 한국교회에 관한 주된 정보 획득 경로(DQ2) • 직업(DQ3), 가구 소득수준(DQ4), 학력(DQ5) • 본인이 평가한 신앙의 깊이 (DQ6)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2> 참조). 거주 지역의 경우 인천/경기지역이 301명(30.1%)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의 경우 20대에서 60대까지 연령대별로 약 200명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60대의 경우가 238명(23.8%)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자가 498명(49.8%), 여자가 502명(50.2%)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념성향의 경우 자신을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47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의 경우는 없는 경우가 540명(54.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기독교가 193명(19.3%)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교회에 관한 주된 정보 획득 경로는 언론 매체를 통한 경우가 394명(39.4%)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의 경우 화이트칼라가 279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주부가 231명(23.1%)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구 소득수준은 중인 경우가 440명(4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중하/하인 경우가 342명(34.2%), 상/상중인 경우가 218명(21.8%)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는 대재 이상이 623명(62.3%), 고졸 이하가 377명(37.7%)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평가한 신앙의 깊이를 측정하였을 때 보통이라는 응답이 200명(44.1%)으로 가장 많았고, 깊다라는 응답이 196명(43.2%), 깊지 않다는 응답이 57명(12.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거주 지역	서울	199	19.9
	인천/경기	301	30.1
	대전/충청	105	10.5
	광주/전라	105	10.5
	대구/경북	101	10.1
	부산/경남	159	15.9
	강원	30	3.0
연령	20대	178	17.8
	30대	179	17.9
	40대	206	20.6
	50대	199	19.9
	60대 이상	238	23.8
성별	남자	498	49.8
	여자	502	50.2
이념성향	보수	265	28.1
	중도	347	36.8
	진보	332	35.2
종교	기독교	193	19.3
	가톨릭교	83	8.3
	불교	178	17.8
	기타종교	6	0.6
	종교없음	540	54.0
한국교회에 관한 주된 정보 획득 경로	교회 홈페이지 및 발간물	54	5.4
	언론	394	39.4
	가족/지인	218	21.8
	인터넷/SNS	241	24.1
	기타	6	0.6
	모름/무응답	88	8.8
직업	농업/임업/어업	23	2.3
	자영업	175	17.5
	블루칼라	89	8.9
	화이트칼라	279	27.9
	가정주부	231	23.1
	학생	104	10.4
	무직/기타	99	9.9
가구 소득수준	상/상중	218	21.8
	중	440	44.0
	중하/하	342	34.2
학력	고졸 이하	377	37.7
	대재 이상	623	62.3
본인이 평가한 신앙의 깊이	깊다	196	43.2
	보통	200	44.1
	깊지 않다	57	12.7

Ⅲ. 설문 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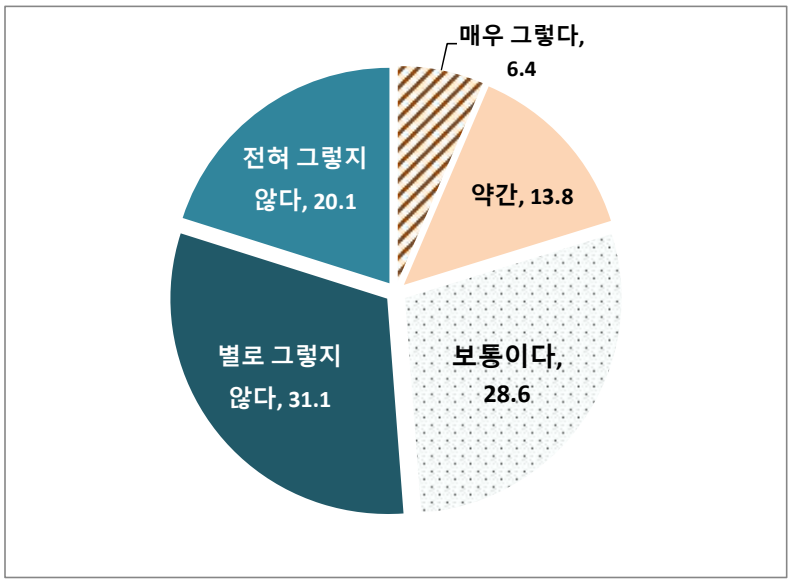
본 조사는 2017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 동안 만 19세 이상의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유무선 전화에 의한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급적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조사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 3.1%P이다.

1. 한국교회의 신뢰도 수준

1)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 수준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 점수는 5점 만점에 2.5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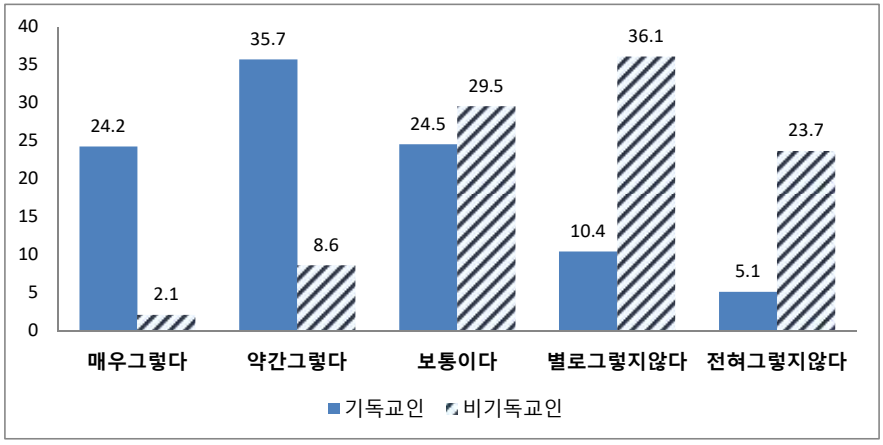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진술에 대하여 동의의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다섯 가지의 보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 각각의 보기에 대해 5점, 4점, 3점, 2점, 1점을 부여하고 응답자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5점 척도의 점수로 변환하였다. 조사 결과 이와 같이 5점 척도로 평가한 평균 점수는 2.55점으로 나타났다. 즉 중간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보기인 "보통 정도"라는 응답이 3점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은 셈이다. 또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응답자의 20.2%에 불과한 반면, 신뢰도 불신도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28.6% 이었으며 불신한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51.2%로 조사되었다(<그림 1> 참조).[3]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0.8%P로 미미하게 상승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6.6%P 증가하여 전체 평균은 0.0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1> 일반국민의 한국교회 전반적 신뢰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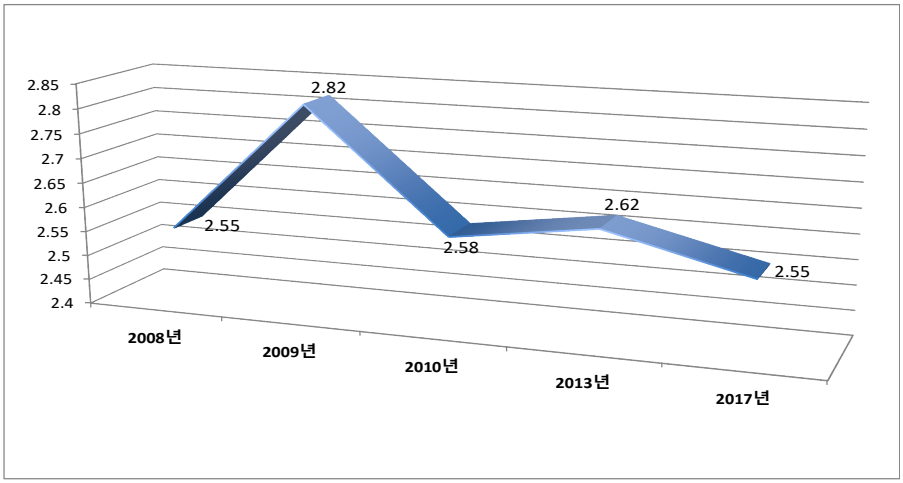
3) 이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을 합하여 불신하는 그룹으로 분류했으며 "약간 신뢰한다"와 "매우 신뢰한다"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을 합해서 신뢰하는 그룹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응답 내용을 종교별로 살펴보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여부에 따라 응답비율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기독교인에 경우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59.9%를 차지하는 반면, 비기독교인의 경우에는 10.7%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또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비중은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15.5%를 차지하는 반면, 비기독교인 중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비중은 59.8%를 차지하였다. 2013년과 비교해볼 때, 기독교인 중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비율은 12.4%P 증가한 반면, 비기독교인 중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비율은 0.6%P 감소하였다. 또한 기독교인 중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비율은 11.4%P 감소한 반면, 비기독교인 중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비율은 29.7%P 증가하였다(<그림 2> 참조). 따라서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에 비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2013년에 비해 2017년에 기독교인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정도와 비기독교인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정도가 각각 심화된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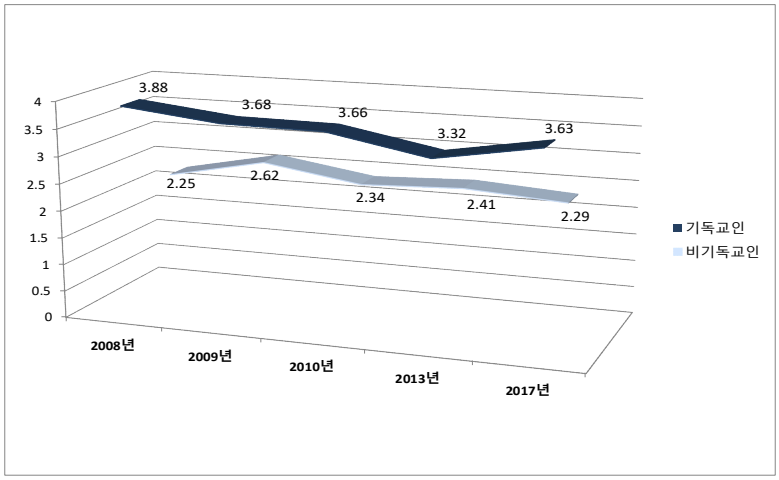
<그림 2> 기독교인/비기독교인 별 한국교회 전반적 신뢰수준 (단위: %)

2017년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와 2008년~2013년의 신뢰도를 비교함으로써, 10년 동안 신뢰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올해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2.55점으로, 2013년에 비해 미세한 하락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2009년에 2.82점의 신뢰도를 보이며 다른 연도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2.6점 내외로 수렴하는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그림 3> 참조). 3점을 보통의 기준으로 간주하였을 때,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보통이하의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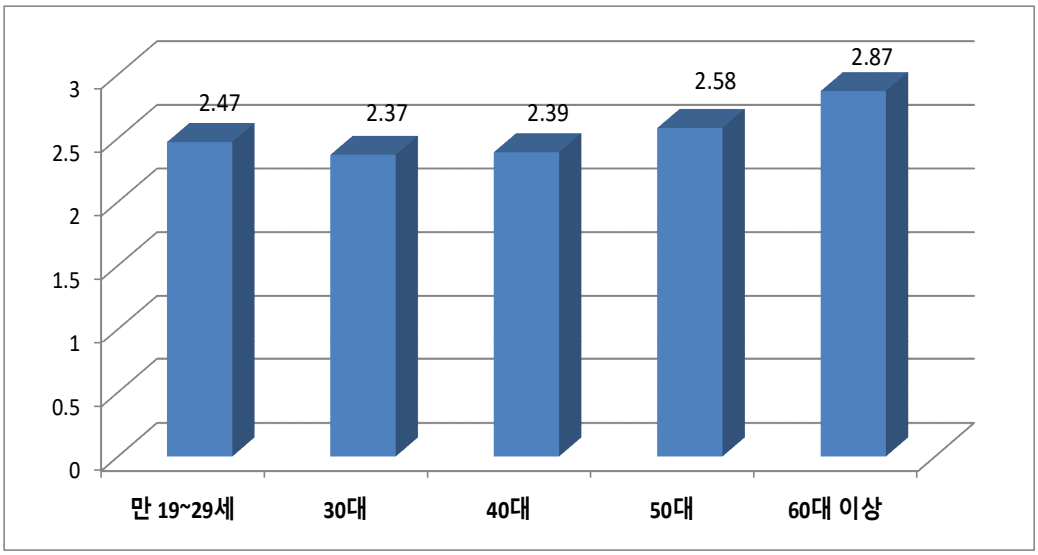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한국교회 전반적 신뢰수준 (단위: 5점 척도)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에 대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서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에 비해, 한국교회에 대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또한 기독교인의 신뢰도는 2008년 3.88점에서 2013년까지는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7년에는 다시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반면 비기독교인의 경우에는 2008년 2.25점에서 시작하여, 소폭하락한 후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에 기독교인의 신뢰도가 감소하고, 비기독교인의 신뢰도가 증가한 것과 반대로 2017년에는 기독교인의 신뢰도가 증가하고 비기독교인의 신뢰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추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한국교회가 기독교인에 비해 비기독교인들에게 낮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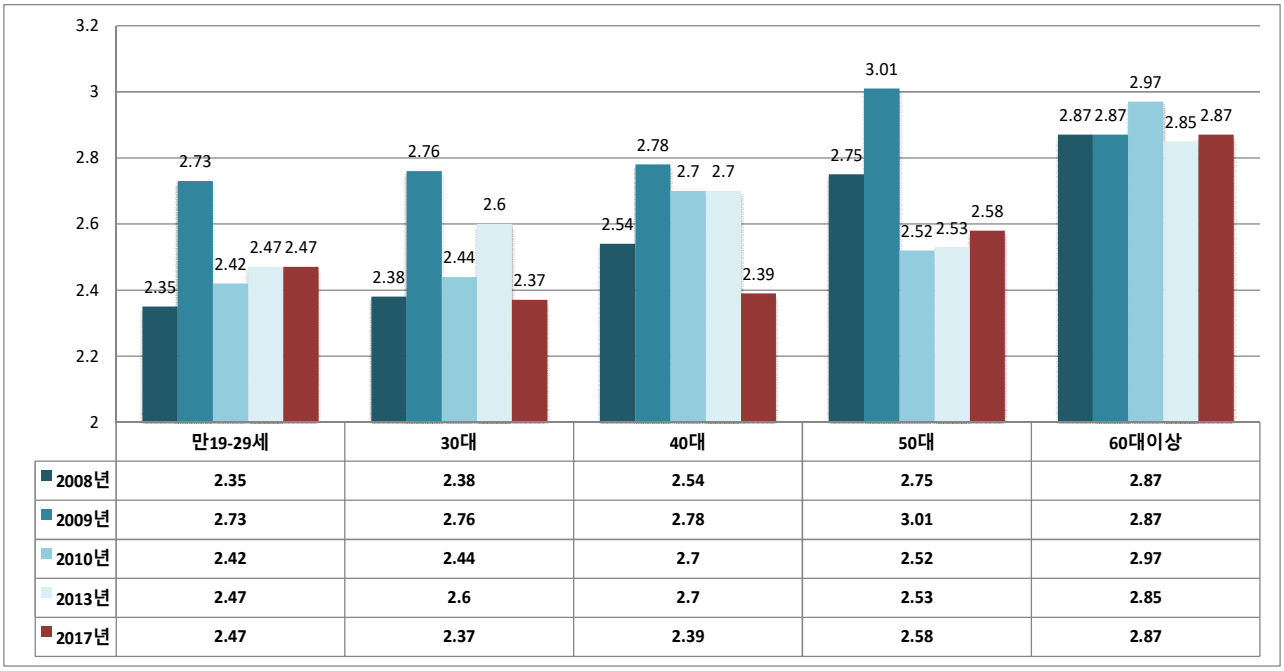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기독교인/비기독교인 전반적 신뢰수준 (단위: 5점 척도)

연령대별로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수준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신뢰수준(2.87점)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50대 이상(2.58점), 19~29세(2.47점), 40대(2.39점), 30대(2.37점)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즉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의 장년층 및 노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30-40대의 중장년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5> 연령대 별 한국교회 전반적 신뢰도 수준 (단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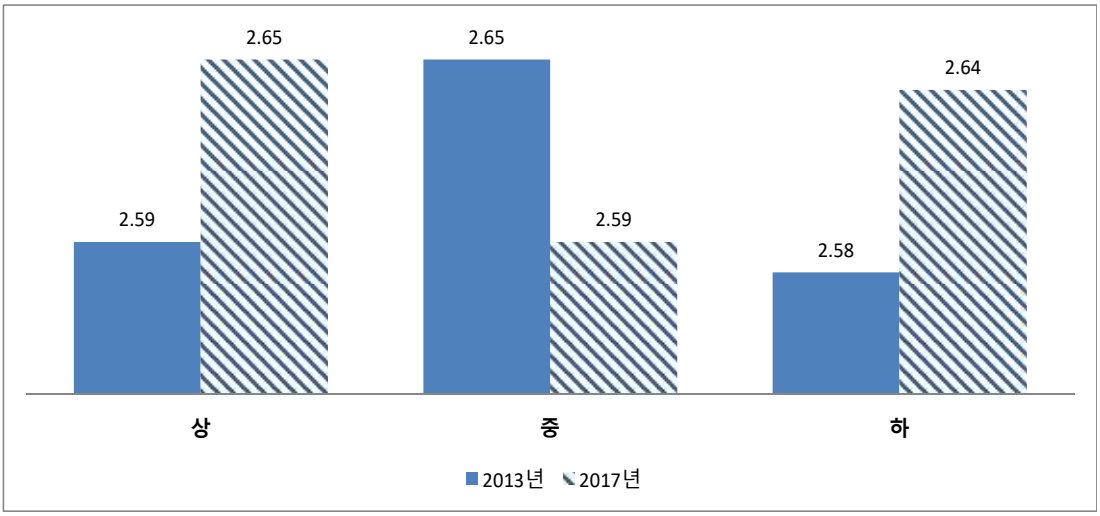
또한 연령대 별로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추이를 살펴본 결과, 50대 및 60대 이상 집단과 19-29세 이상 집단은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었으나, 30대에서는 0.23점, 40대에서는 0.31점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그림 6> 참조). 즉 2013년에 비해 2017년에는 30-40대 집단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였다.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008년	2.35	2.38	2.54	2.75	2.87
2009년	2.73	2.76	2.78	3.01	2.87
2010년	2.42	2.44	2.7	2.52	2.97
2013년	2.47	2.6	2.7	2.53	2.85
2017년	2.47	2.37	2.39	2.58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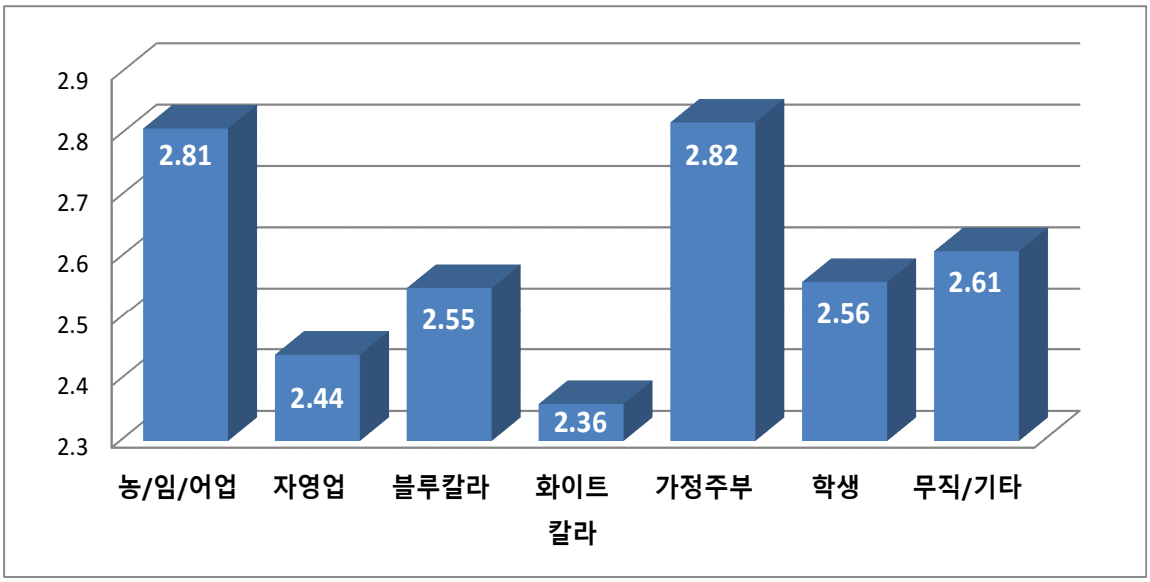
<그림 6> 연령대 별 한국교회 전반적 신뢰도 연도별 추이 (단위: 5점 척도)

소득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한국교회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소득수준이 상에 속하는 사람들이 2.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득수준이 하에 속하는 사람들이 2.64점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2.65점으로 가장 높은 신뢰수준을 나타내었던 소득수준 중에 속한 사람들은, 2017년엔 오히려 가장 낮은 신뢰도인 2.59점을 보였다(<그림 7> 참조). 즉 2013년에 비해 소득수준이 상, 하에 속한사람들의 신뢰도는 증가하였으나, 소득수준이 중인 집단의 신뢰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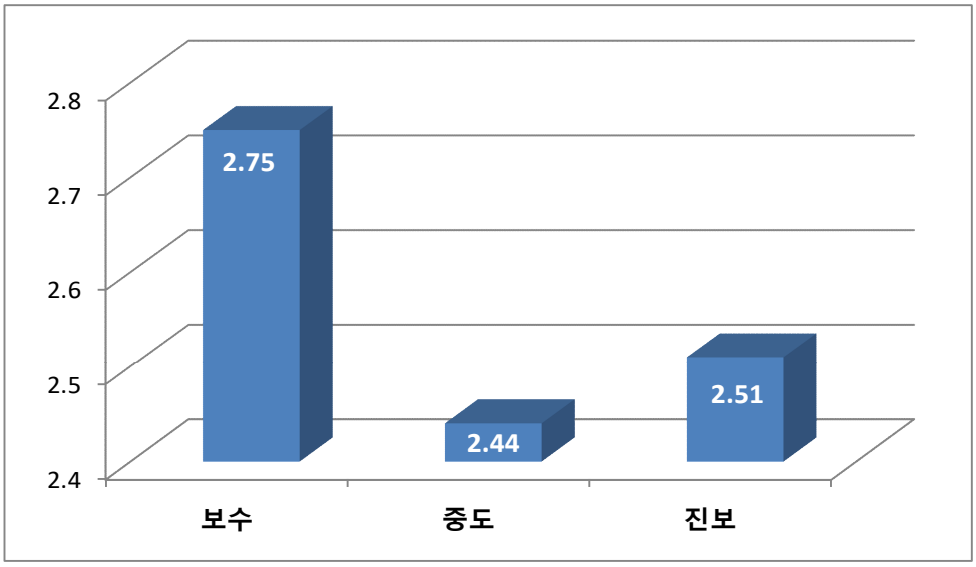
<그림 7> 소득별 한국교회 전반적 신뢰도 수준 (단위: 5점 척도)

직종별로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수준을 살펴본 결과, 가정주부(2.82점)과 농/임/어업(2.81점)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직/기타(2.61점), 학생(2.56점), 블루칼라(2.55점), 자영업(2.44점)순으로 나타났으며, 화이트칼라(2.36점)이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그림 8> 참조).



<그림 8> 직종별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단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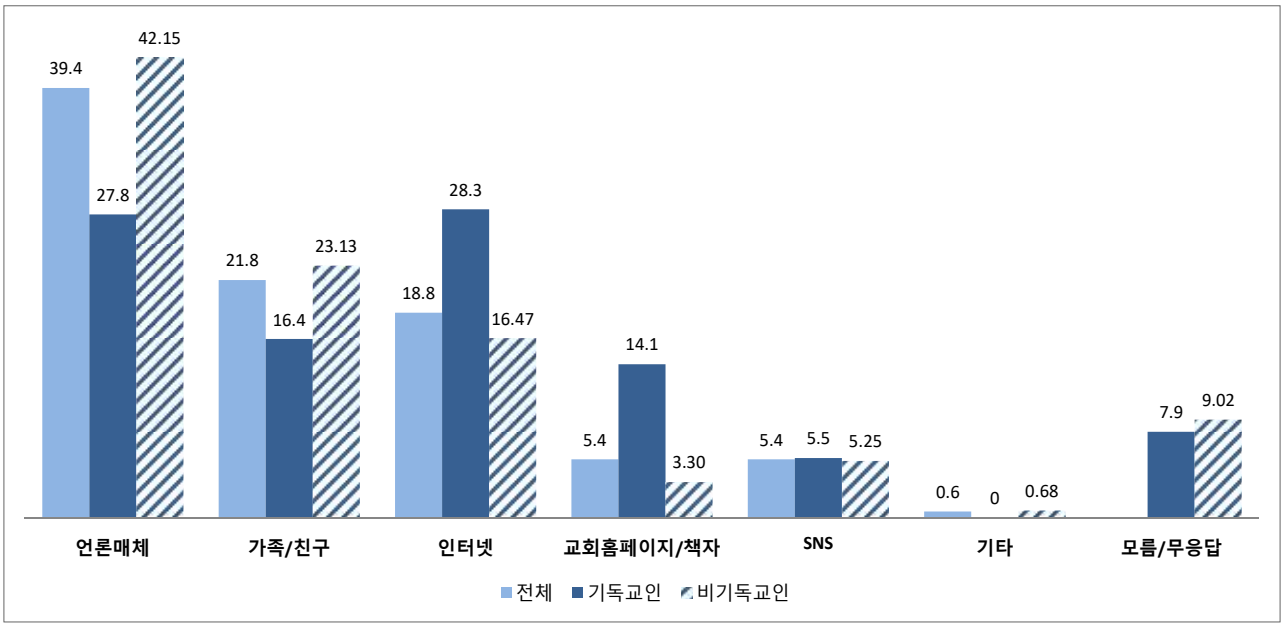
정치적 성향별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2.75점).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정치성향이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2.51점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정치성향이 중도라고 응답한 집단의 신뢰도가 2.4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그림 9> 참조).



<그림 9> 정치적 성향별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단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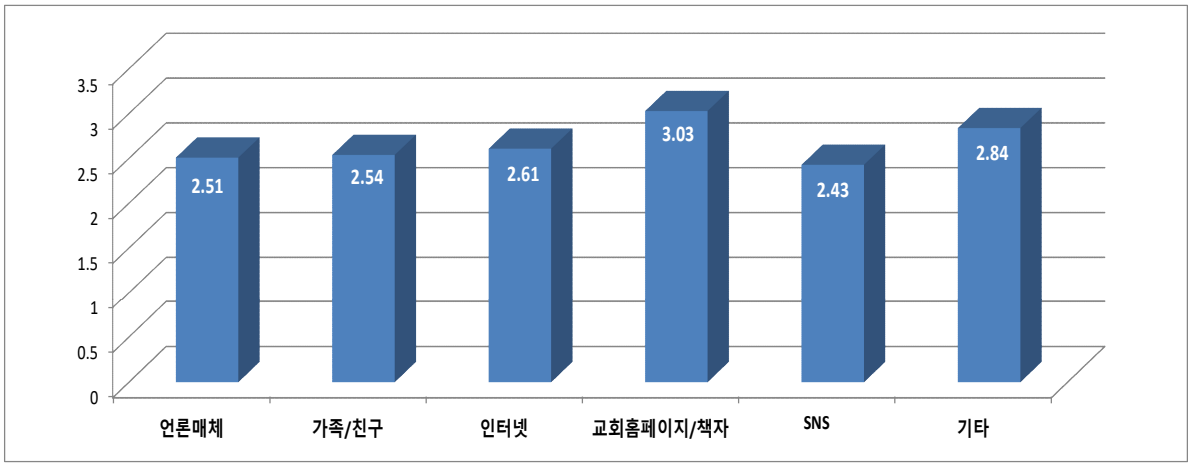
한국교회의 활동 정보 인지 경로 별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국교회의 활동 정보 인지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한국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는 비중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친구(21.8%), 인터넷(18.8%)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독교인과 비기독

교인별로 분류해 본 결과,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는 비중이 28.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언론매체(27.8%), 가족/친구(16.4%), 교회홈페이지/책자(14.1%) 순으로 나타났다. 비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언론매체를 통해 한국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는 비중이 42.1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친구(23.13%), 인터넷(16.47%), SNS(5.25%)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한국교회의 활동 정보 인지 경로

한국교회의 활동정보 인지경로에 따른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교회 홈페이지/책자에 대한 신뢰도가 3.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SNS를 통해 한국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은 집단의 신뢰도는 2.4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언론매체로 2.51점이었다(<그림 11> 참조). 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 홈페이지/책자를 통해 정보를 얻는 응답자들 중 비기독교인에 비해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언론매체의 경우에는 기독교인에 비해 비기독교인의 비중이 높아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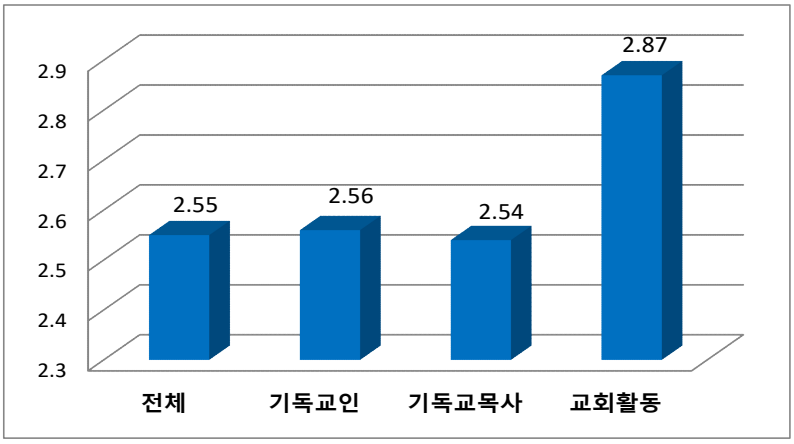


<그림 11> 한국교회 활동 정보 인지 경로별 신뢰도

2) 한국교회의 세부 속성별 신뢰도 수준

"교회활동 > 기독교인 > 기독교 목사 순으로 신뢰"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 측정과 함께 교회활동, 기독교인, 기독교 목사에 대한 신뢰도를 나누어 측정하였다.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교회의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는 문항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는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라는 문항으로, 기독교 목사에 대해서는 "기독교 목사님의 설교와 행동에 믿음이 간다"라는 문항으로 표현되었고, 위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신뢰도가 측정되었다.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는 2.8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독교인과 기독교 목사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2.56점과 2.54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림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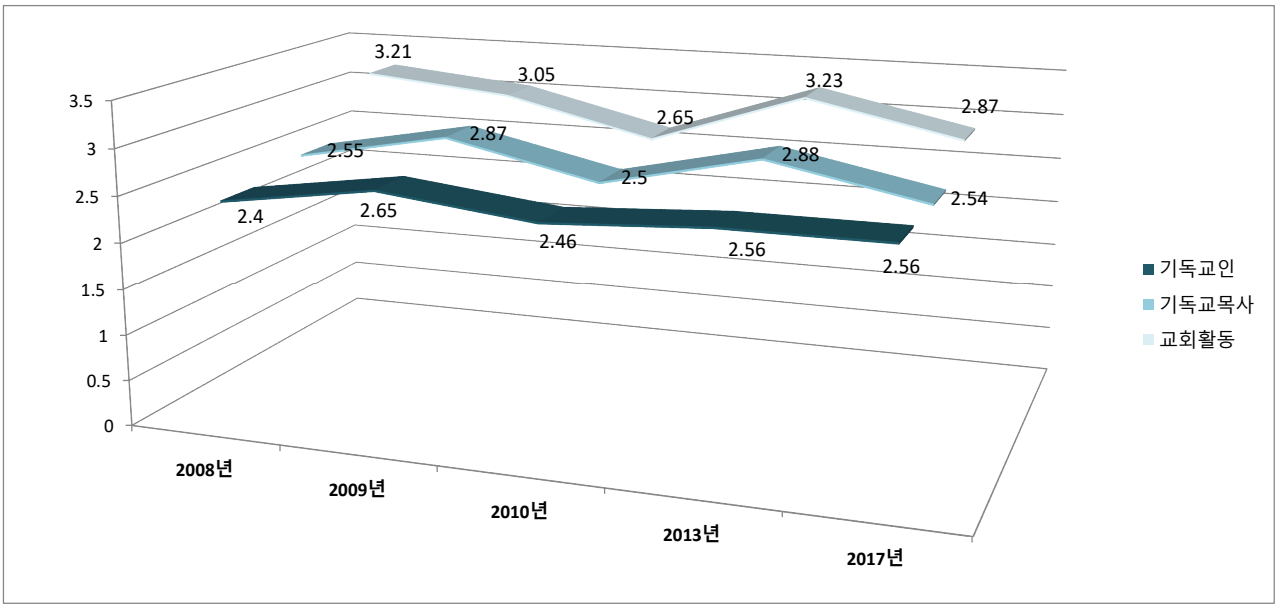
<그림 12> 세부 속성별 신뢰도 수준

한국교회의 속성별 신뢰비율을 살펴본 결과, 교회활동을 신뢰하는 비율은 27.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 목사를 신뢰하는 비율이 20.4%로 높았으며, 기독교인을 신뢰하는 비율은 18%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 비율은 기독교 목사가 50.3%로 가장 높았으며,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48.8%, 교회활동을 신뢰하지 않는 비율은 36.9%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기독교인, 기독교목사,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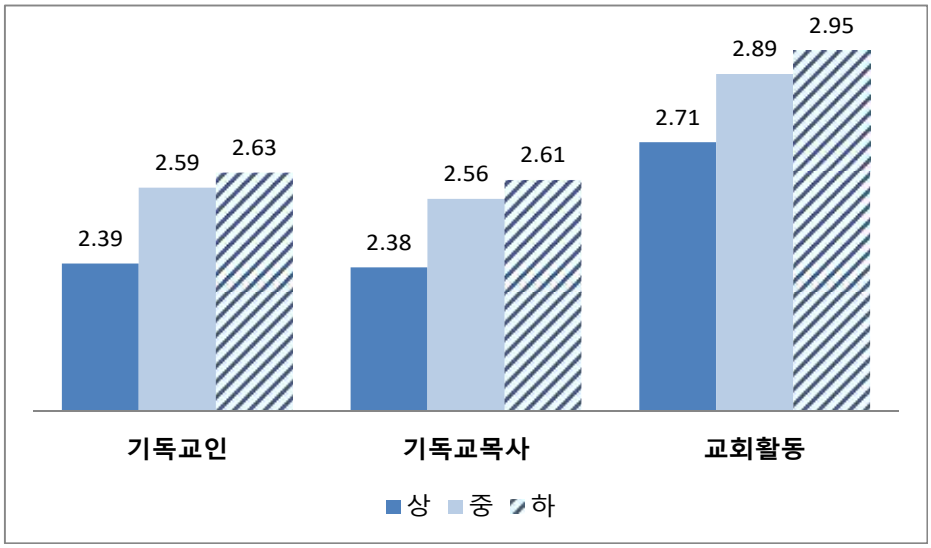
	전혀 신뢰하지 않음	별로 신뢰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신뢰함	매우 신뢰함
기독교인	18.7%	30.1%	33.1%	12.7%	5.3%
기독교 목사	22.6%	27.7%	29.3%	14.2%	6.2%
교회활동	15.4%	21.5%	35.4%	16.5%	11.3%

각 세부 속성에 대한 신뢰도를 재작년, 작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신뢰도의 순서는 6년 동안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에 비해 교회활동과 기독교목사의 신뢰도는 각각 0.36점, 0.34점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는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그림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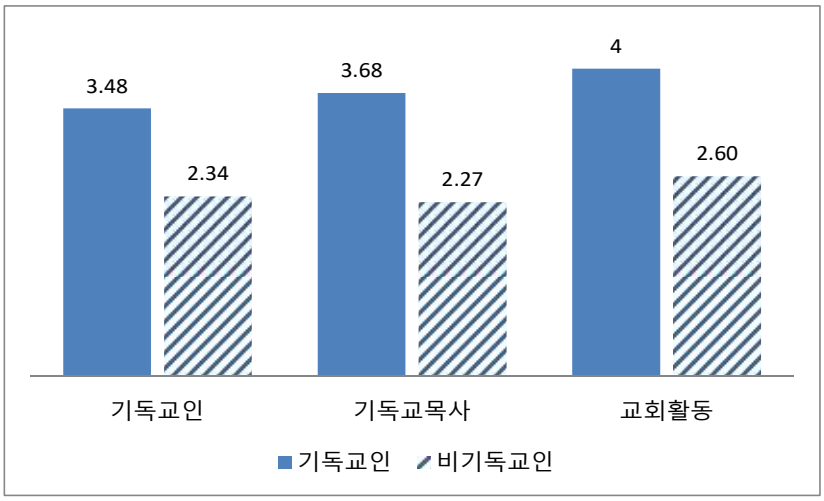
<그림 13> 기독교인, 기독교목사, 교회활동 신뢰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 (단위: 5점 척도)

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각 기독교 세부 속성별 요소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는 소득수준이 하일 경우 2.95점, 소득수준이 중일 경우 2.89점, 소득수준이 상일 경우 2.71점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목사에 대한 신뢰수준은 소득수준이 하일 경우 2.61점, 소득수준이 중일 경우 2.56점, 소득수준이 상인 경우 2.38점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수준은 소득수준이 하일 경우 2.63점, 소득수준이 중일 경우 2.59점, 소득수준이 상일 경우 2.39점으로 나타났다(<그림 14> 참조).



<그림 14> 소득별 기독교인, 기독교목사,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 (단위: 5점척도)

한국교회의 속성별 신뢰도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상이하게 나타났다. 모든 속성에 대해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반면 기독교인은 교회활동 > 기독교목사 > 기독교인 순으로 신뢰도 보인 반면, 비기독교인은 교회활동 > 기독교인 > 기독교 목사에 대한 순으로 신뢰도를 나타냈다(<그림 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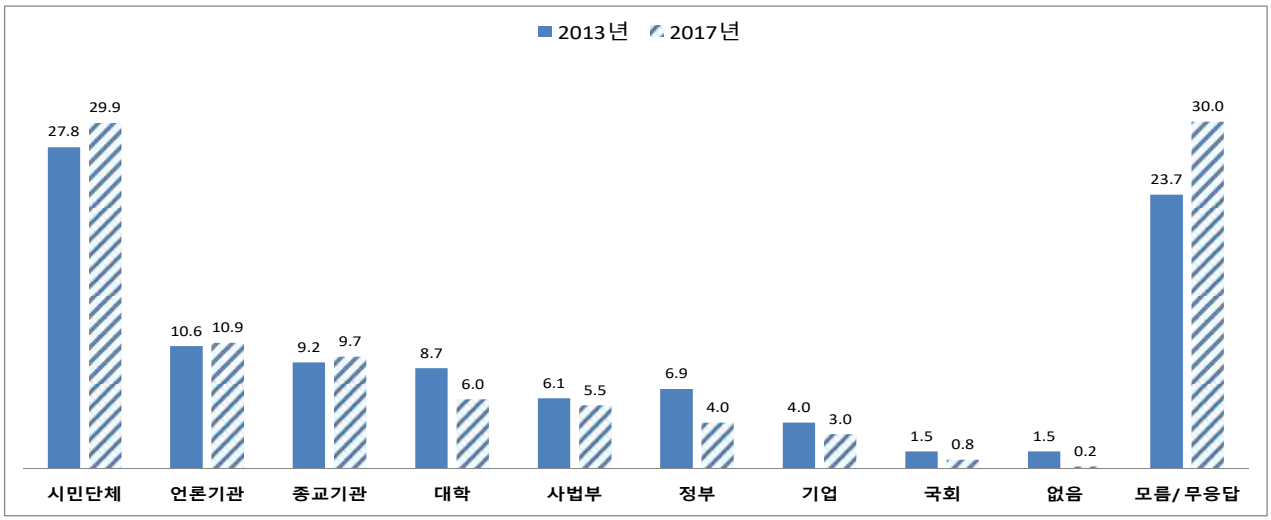
<그림 15> 기독교인/비기독교인의 한국교회 속성별 신뢰도

2. 신뢰하는 기관 및 종교 평가

1) 가장 신뢰하는 기관

"가장 신뢰하는 기관 1순위는 시민단체, 종교기관은 3순위로 10% 미만의 신뢰도"

상대적인 기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을 제시하고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주요기관으로는 국회, 기업, 대학, 사법부, 시민단체, 언론기관, 정부, 종교기관을 제시하였다. 주요기관의 상대적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29.9%가 시민단체를 신뢰하며, 10.9%가 언론기관, 9.7%가 종교기관, 6.0%가 대학, 5.5%가 사법부, 4.0%가 기업, 0.8%가 국회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모름/무응답의 비중은 30%였으며,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0.2%로 나타났다(<그림 16> 참조)). 2013년 조사와 비교해보았을 때 대체로 유사한 비율과 순위가 나타난다. 이에 종교기관의 상대적인 신뢰도의 위치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상대적인 기관 신뢰도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으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 연도별 가장 신뢰하는 기관 (단위: %)

응답자의 종교별로 종교기관이라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기독교인은 전체응답자의 29.7%, 가톨릭 신자는 전체응답의 19.6%, 불교신자는 전체응답의 3.2%,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응답의 3.3%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단체라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기독교인은 전체응답자의 26.0%, 가톨릭신자는 전체응답의 28.1%, 불교신자는 전체응답의 26.3%,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응답의 32.8%로 나타났다(<표 4> 참조). 2017년에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종교기관이 1순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종교유형을 불문하고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시민단체가 1순위를 차지하였던 2013년 조사와 다른 결과이다. 기독교인의 종교기관에 대한 상대적 신뢰 비율은 2013년에 비해 높지만 여전히 타 종교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시민단체가 응답되었다. 특히 불교나 종교가 없는 경우에 종교기관에 대한 상대적 신뢰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타 종교는 자기의 신앙의 터전인 종교기관보다 시민단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독교인은 자신의 신앙의 터전을 시민단체보다 신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Gallup에서 실시한 미국인의 기관 신뢰도를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종교단체의 상대적 신뢰수준은 법원, 은행, 언론단체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European Commission(2004)의 조사에 의하면 덴마크나 그리스에서도 종교단체의 신뢰도는 언론 및 노조보다 높게 나타났다.[4] 물론 조사방법에 차이로 인해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해외의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가 종교기관이 시민단체나 언론기관보다 신뢰도 수준이 낮게 측정된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표 4> 종교별 응답자와 가장 신뢰하는 기관

기관 / 종교	1순위	2순위	3순위
기독교	종교기관(29.7%/▲10.4%)	시민단체(26.0%/▲2.8%)	언론기관(7.3%/▲1.5%)
가톨릭교	시민단체(28.1%/▲2%)	종교기관(19.6%/▲0.1%)	사법부(8.8%/▲2.8%)
불교	시민단체(26.3%/▲5.2%)	언론기관(14.3%/▲1.4%)	정부(7.2%/▲0.3%)
종교없음	시민단체(32.8%/▼1.4%)	언론기관(11.5%/-)	대학(6.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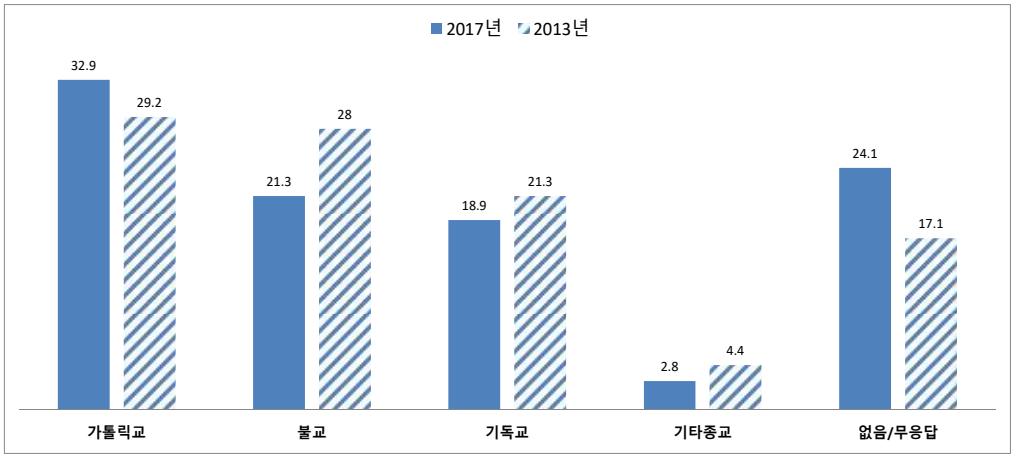
▲2013년대비 증가, ▼2013년대비 감소

2) 가장 신뢰하는 종교

"가장 신뢰하는 종교 1순위는 가톨릭교, 기독교는 3순위"

상대적인 종교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가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는 가톨릭교를 뽑았고(32.9%), 그 다음으로는 불교(21.3%), 기독교(18.9%)로 나타났다(<그림 17> 참조). 2013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신뢰하는 종교의 상대적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가톨릭교의 상대적 신뢰비율은 3.7%P 증가하였으나, 불교의 상대적 신뢰비율은 6.7%P 감소하였고, 기독교의 상대적 신뢰비율 또한 2.4%P 감소하였다.

4) '김재한 (2009). 『동서양의 신뢰』 서울: 아카넷'에서 재인용



<그림 17> 연도별 가장 신뢰하는 종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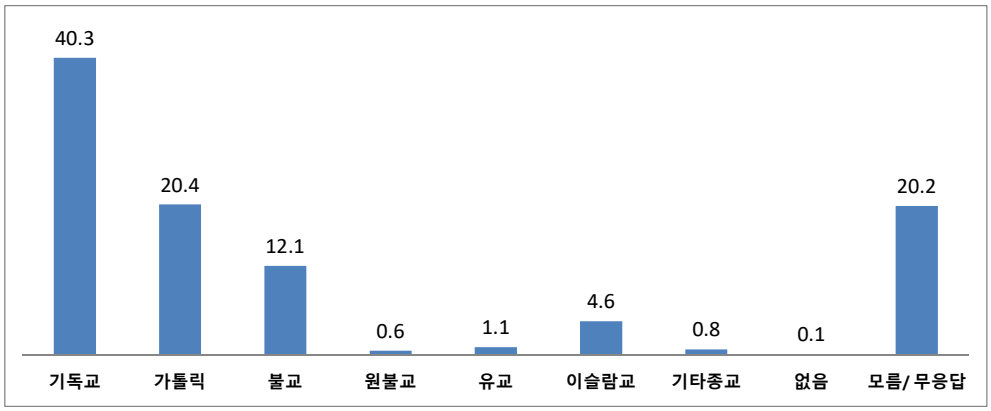
응답자의 종교별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교차하여 검토해 보았다. 종교별로 살펴볼 때 기독교인, 가톨릭교인, 불교신자 모두 자신의 종교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지만, 2013년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종교유형과 상관없이 소폭 감소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표 5> 참조). 종교가 없는 사람들로만 한정해 볼 때 가톨릭에 대한 신뢰도가 전체응답의 36.5%로 가장 높게 타났으나, 종교 유형을 불문하고 상대적인 신뢰도 비율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2013년에 비해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대한 문항에 "없음"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13.1%P 증가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비종교인에게 종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감소하였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상대적 신뢰도는 종교유형을 불문하고 감소하였는데, 오차범위를 고려해 볼 때 기독교인 및 종교가 없는 사람들 집단에서 기독교에 대한 상대적인 신뢰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응답자 종교 유형 별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

실제종교 \ 신뢰종교	기독교	가톨릭교	불교
기독교	76.8%(▼7.7%)	10.3%(▼3.2%)	0.4%(▼1.6%)
가톨릭교	1.7%(▼0.4%)	89.7%(▼3.1%)	4.6%(▲0.5%)
불교	0.9%(▼0.7%)	20.4%(▲4.9%)	61.5%(▼20.9%)
종교없음	6.9%(▼5.6%)	36.5%(▼10.5%)	18.1%(▼19.9%)

▲2013년대비 증가, ▼2013년대비 감소

또한 조사 대상자들에게 10년 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를 질문하였고, 응답자들 중 40.3%는 기독교가 향후 10년 뒤 가장 증가할 종교라고 선택하였다. 가톨릭은 20.4%, 불교는 12.1%가 향후 10년 뒤에 증가할 종교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10년 뒤에 기독교가 가장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19-29세 연령층에서, 블루칼라 및 학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18> 향후 10년 뒤 증가할 종교

응답자의 종교별로 향후 10년 뒤 증가할 종교를 교차하여 검토해 보았다. 종교별로 살펴보았을 때, 기독교인은 자신의 종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타 종교에 비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67.9%), 가톨릭교인 또한 자신의 종교가 증가할 것이라고 선택하는 비율(48.4%)이 가장 높았다. 반면 불교신자의 경우 기독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28.3%)하는 응답자가 가장 높았다. 또한 종교가 없는 집단의 경우 향후 10년 뒤 기독교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36.9%로 가장 높았다(<표 6> 참조). 하지만 본 문항으로부터 기독교의 전망이 밝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소 위험하며, 응답자별로 증가할 종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문항은 2017년도에 추가된 문항으로 연도별 비교는 불가하다.

<표 6> 응답자 종교 유형 별 향후 10년 뒤 증가할 종교

신뢰종교 / 실제종교	기독교	가톨릭교	불교
기독교	67.9%	10.5%	2.3%
가톨릭교	23.8%	48.4%	7.5%
불교	28.3%	18.9%	22.1%
종교없음	36.9%	20.3%	12.8%

3.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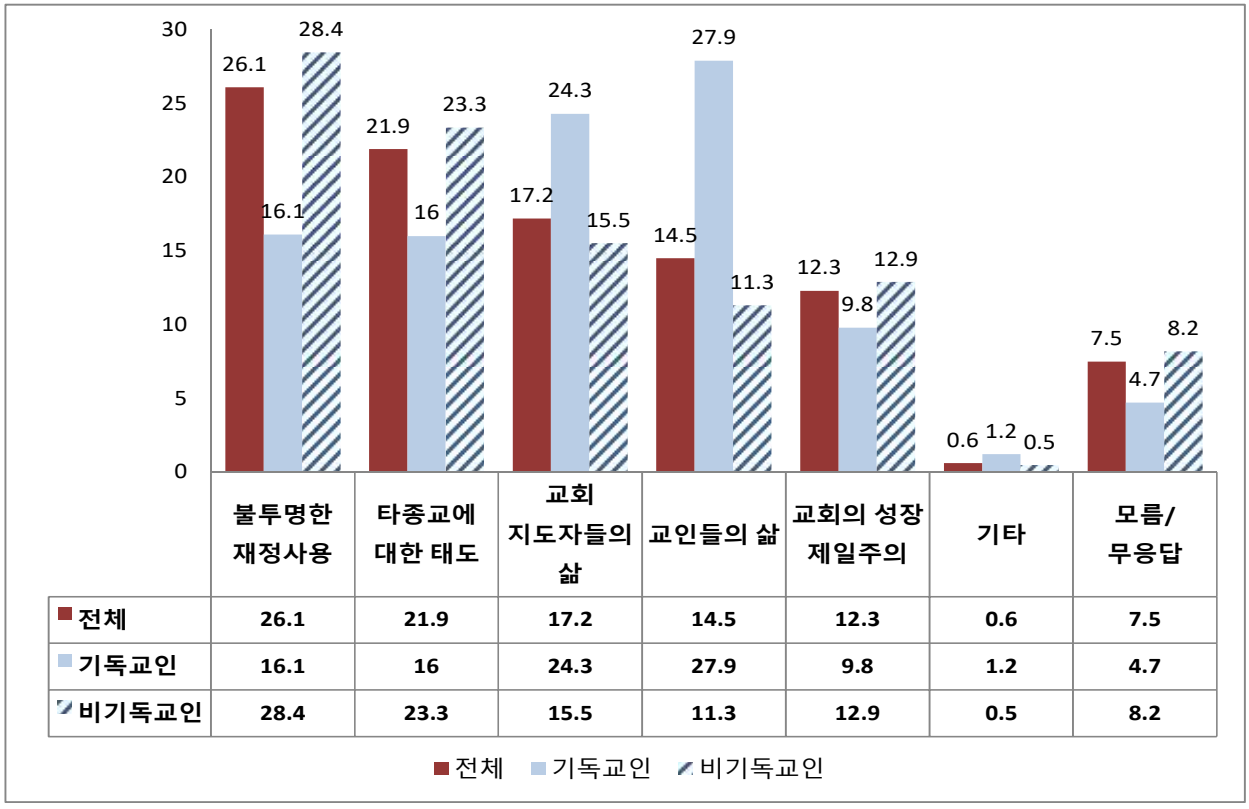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의 현황과 추이, 상대적인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며, 여전히 한국교회는 사회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이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교회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쇄신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최우선적 개선점

“불투명한 재정사용이 개선점 1순위”

“기독교인들은 교인들의 삶, 비기독교인은 불투명한 재정사용을 각각 1순위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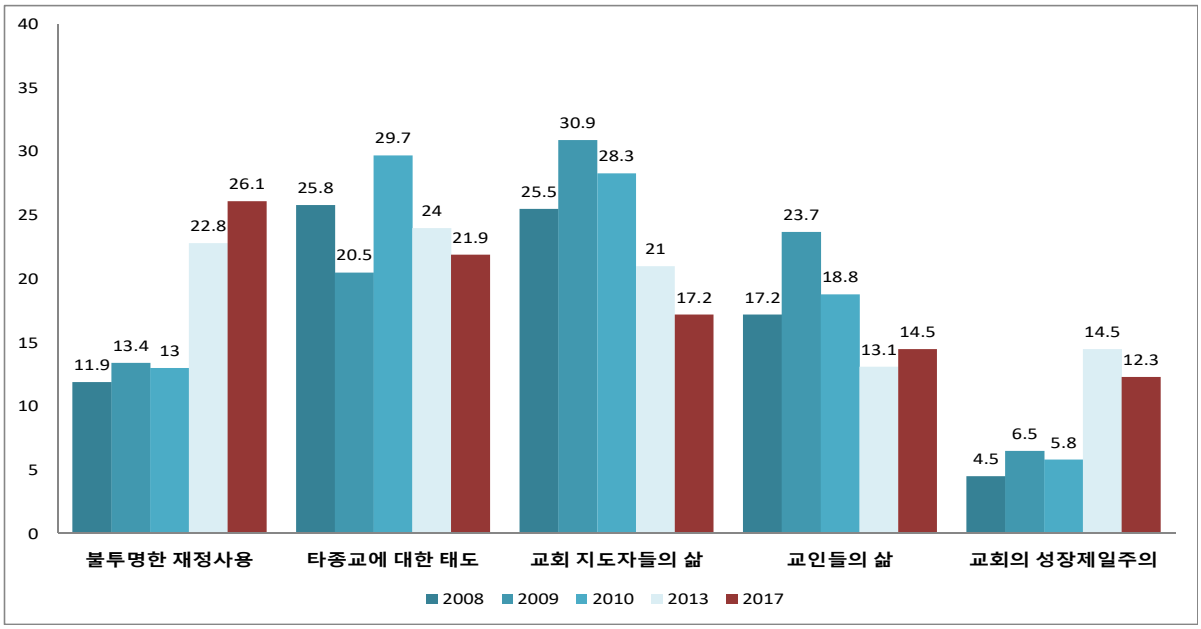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최우선적 개선점으로 응답자들은 불투명한 재정 사용(26.1%)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타종교에 대한 태도(21.9%), 기독교 목사들의 삶(17.2%), 기독교인들의 삶(14.5%), 교회성장제일우선주의(12.3%)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19> 참조).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의 삶(27.9%), 기독교 목사들의 삶(24.3%), 불투명한 재정사용(16.1%), 타종교에 대한 태도(16%), 교회성장제일주의(9.8%)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비기독교인들은 불투명한 재정사용(28.4%), 타종교에 대한 태도(23.3%), 기독교목사들의 삶(15.5%), 교회성장제일주의(23.9%), 기독교인들의 삶(11.3%)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기독교인들은 교인들의 삶이나, 기독교목사의 삶 등 개인적인 요인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비기독교인들은 재정사용이나 타종교에 대한 태도 등 비교적 조직적 차원에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불투명한 재정사용	타종교에 대한 태도	교회 지도자들의 삶	교인들의 삶	교회의 성장 제일주의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26.1	21.9	17.2	14.5	12.3	0.6	7.5
기독교인	16.1	16	24.3	27.9	9.8	1.2	4.7
비기독교인	28.4	23.3	15.5	11.3	12.9	0.5	8.2

<그림 19>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최우선적 개선점 (단위: %)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최우선적 개선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불투명한 재정사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타종교에 대한 태도를 최우선적 개선점으로 삼는 응답비율은 2010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회지도자들의 삶과 교인들의 삶을 최우선적 개선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교회의 성장제일 우선주의 항목은 2013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 감소추세를 보이나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인 양상인지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그림 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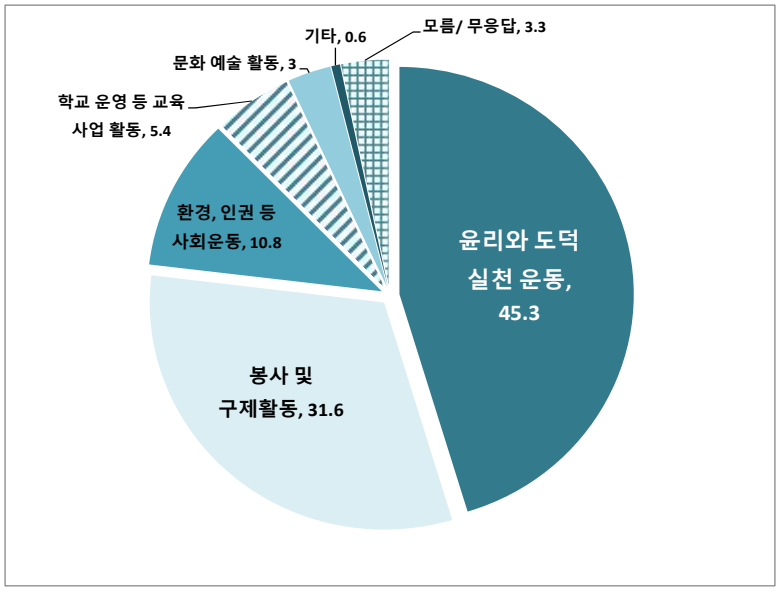


<그림 20> 연도별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최우선적 개선점 (단위: %)

2)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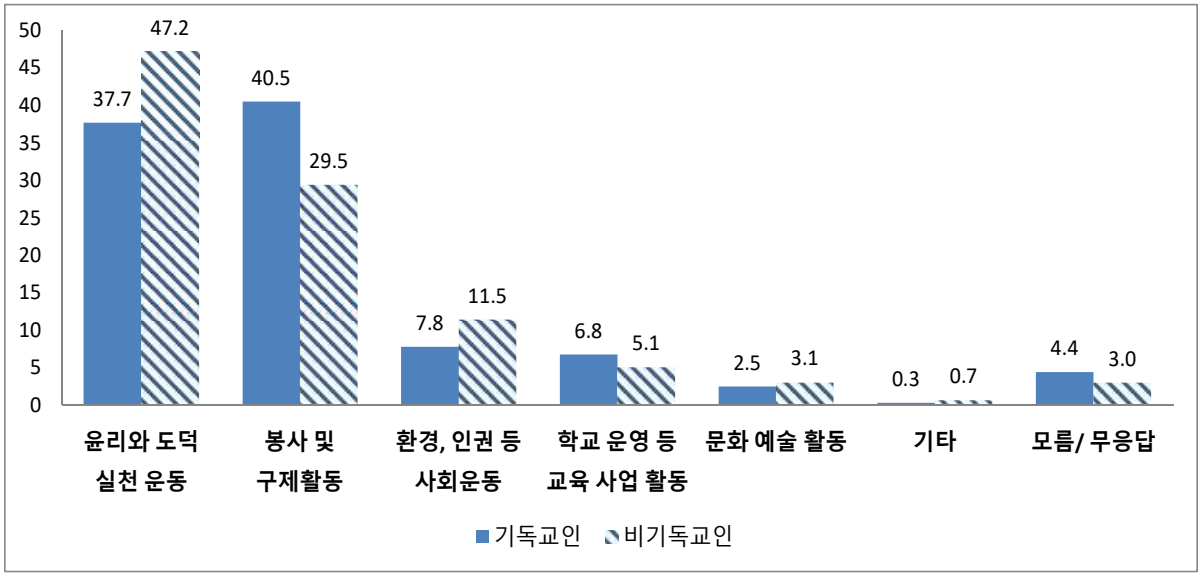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이 1순위"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활동으로 응답자들은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48.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봉사 및 구제활동(31.6%), 환경·인권 등 사회운동(10.8%)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운영 등 교육사업활동(5.4%), 문화예술활동(3%)에 대한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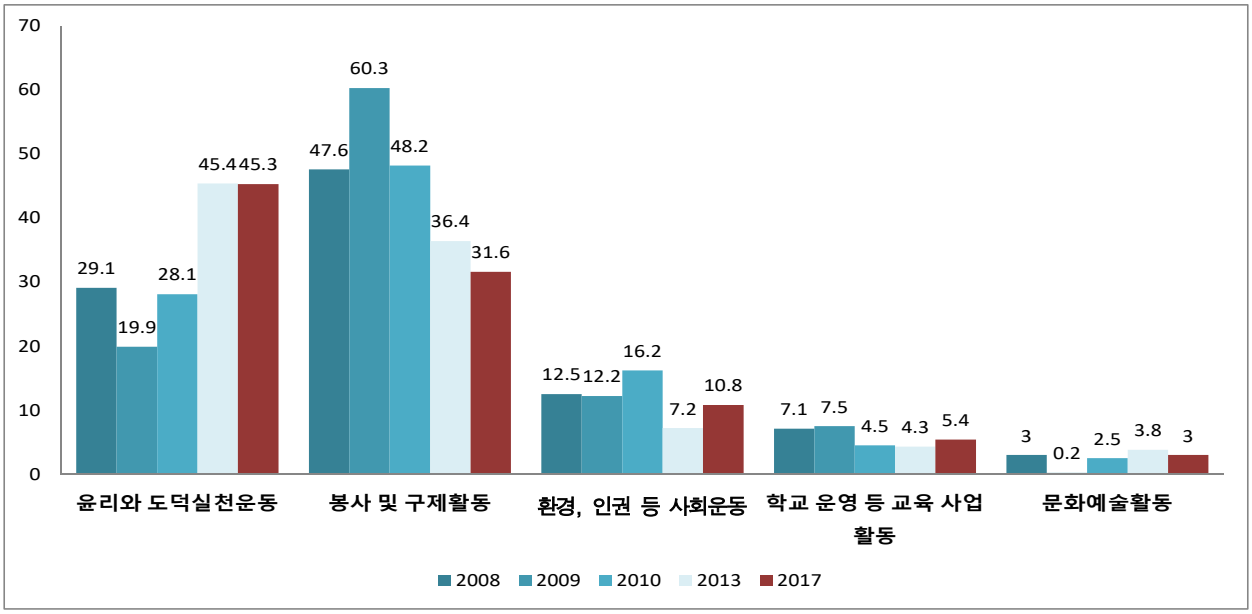
<그림 21>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단위: %)

이 문항에 대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간의 응답차이가 나타나는데, 기독교인은 봉사 및 구제활동을 (40.5%)을 필요한 사회활동 1순위로 선택한 반면 비기독교인은 윤리와 도덕실천요구(47.2%)를 1순위로 선택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 내에서 한국교회의 윤리적 활동을 촉구하는 의견이 더 강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기독교인/비기독교인 별 한국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단위: %)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윤리와 도덕실천운동에 대해 응답하는 비율은 2010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나며 봉사 및 구제활동에 대해서는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다른 항목에서는 큰 변화 없이 상이한 비율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한국교회에 대해 윤리와 도덕적인 영향력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였거나, 혹은 윤리와 도덕실천운동에 대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그림 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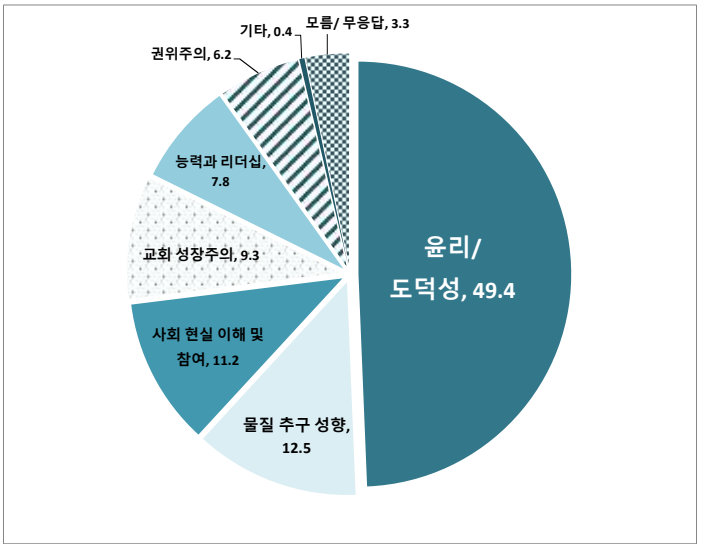


<그림 23> 연도별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단위: %)

3) 기독교목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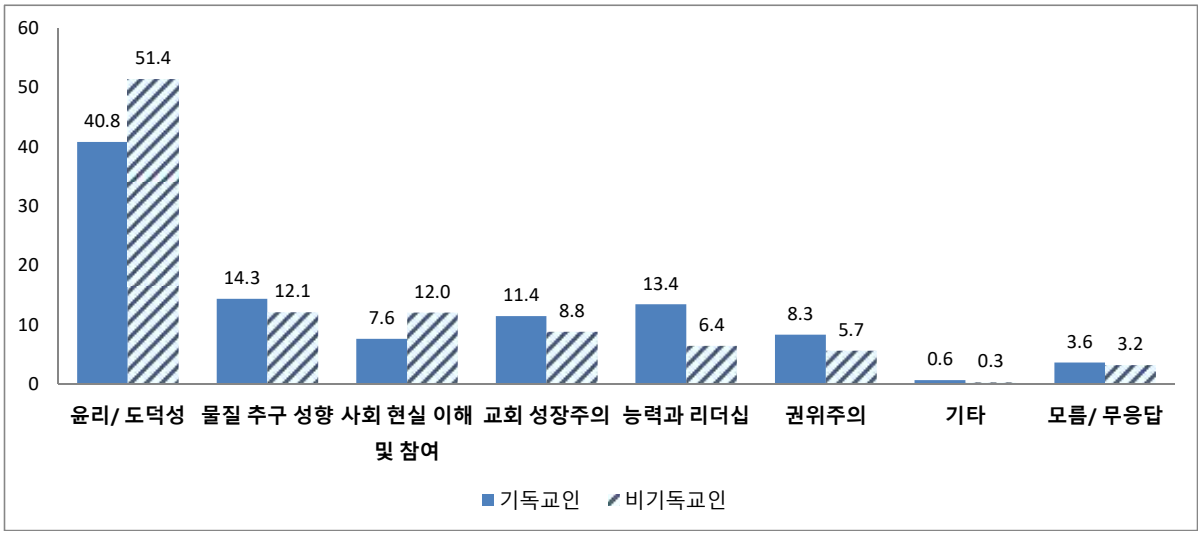
"윤리/도덕성이 개선점 1순위"

기독교 목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으로 응답자들은 윤리/도덕성(49.4%)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물질추구성향(12.5%), 사회현실이해 및 참여(11.2%), 교회성장주의(9.3%), 능력과 리더십(7.3%), 권위주의(6.2%)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24> 참조).



<그림 24> 기독교목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단위: %)

이 문항에 대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간의 응답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기독교인(40.8%)이 비기독교인(51.4%)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 기독교 목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1순위로 윤리/도덕성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한국교회에 대해 불투명한 재정사용을 개선하고, 윤리 및 도덕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던 것과 동일한 상이한 맥락으로 간주될 수 있다(<그림 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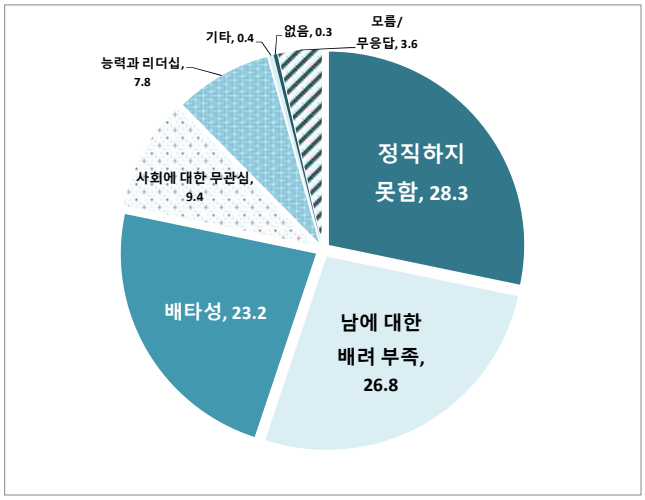


<그림 25> 기독교인/비기독교인 별 기독교 목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단위: %)

4)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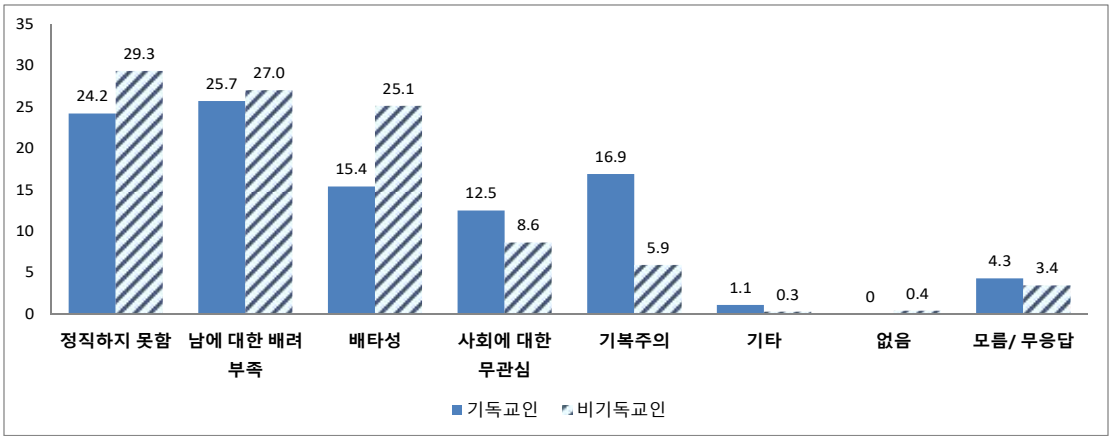
“정직함이 개선점 1순위”

기독교인의 제고를 위한 개선점으로 응답자들은 정직하지 못함(28.3%)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남에 대한 배려 부족(26.8%), 배타성(23.2%)등의 항목에 대해 높게 응답하였고, 사회에 대한 무관심(9.4%), 능력과 리더십(7.8%)은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였다(<그림 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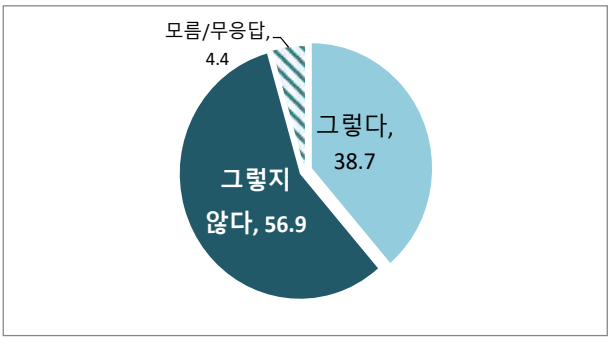
<그림 26>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단위: %)

이 문항에 대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간의 응답차이가 나타났다. 기독교인은 남에 대한 배려 부족을 개선점 1순위(25.7%)로 선택하고 정직하지 못함(24.2%)을 2순위로 응답한 반면, 비기독교인은 정직하지 못함(29.3%)을 1순위로 선택하고 남에 대한 배려 부족(27%)을 2순위로 선택하고 있으나, 두 항목에 대해 기독교인/비기독교인 모두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27> 참조). 반면 배타성 항목에 대해서 비기독교인은 25.1%로 응답하였고, 이는 기독교인이 응답한 배타성 항목 비율(15.4%)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또한 기복주의를 개선점으로 응답한 기독교인은 16.9%나, 비기독교인은 5.9%로 비기독교인이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이는 기독교인에 대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 정직함에 대한 촉구의 목소리가 나타나나, 비기독교인 집단 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배타성을 중요한 개선점으로 간주하나, 기독교인은 이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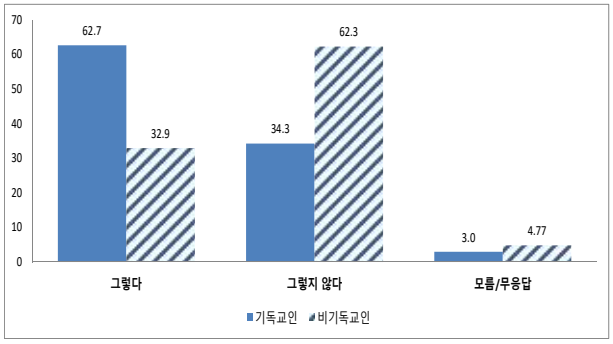


<그림 27> 기독교인/비기독교인 별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단위: %)

배타성과 관련된 항목으로 한국교회의 소통정도 문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다.”라는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여, 한국교회의 소통정도를 측정하였다. 한국교회가 잘 소통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56.9%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38.7%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그림 28> 참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간의 응답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기독교인의 62.7%가 잘 소통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기독교인은 62.3%가 잘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29> 참조).



<그림 28> 한국교회의 소통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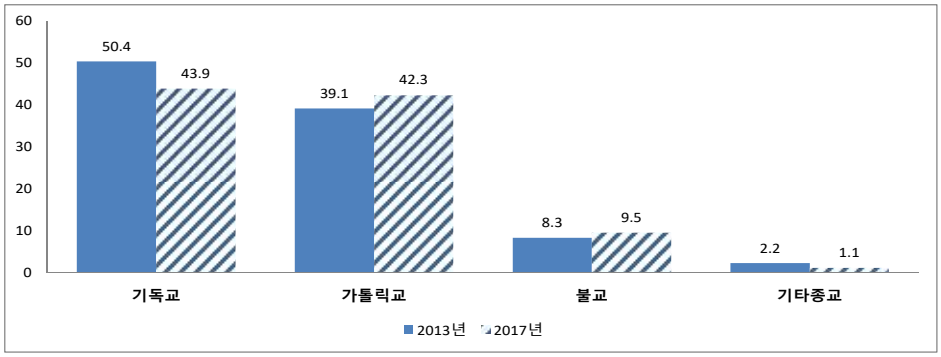
<그림 29> 기독교인/비기독교인 별 한국교회 소통정도 (단위: %)

4. 기독교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과 기대

1) 사회봉사 및 사회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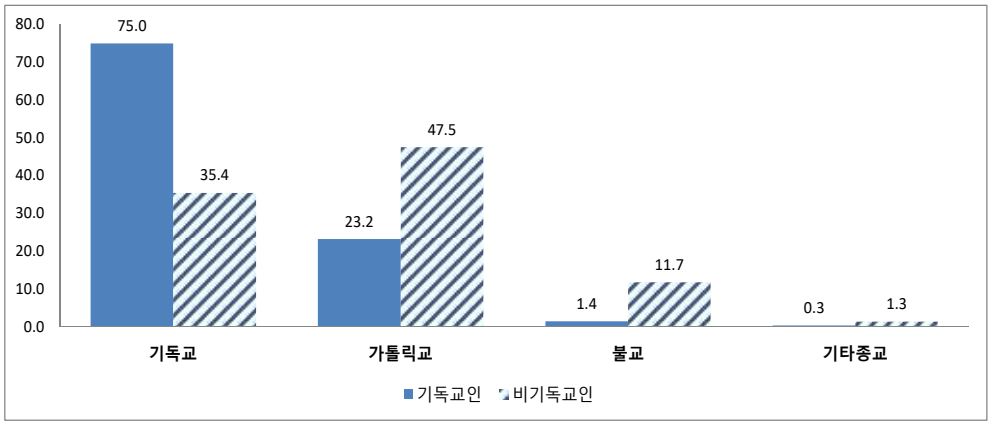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는 기독교... 그러나”
“한국교회의 사회문제 해결/사회통합 기여에 대한 동의 정도는 4점 만점에 2.14점”

기독교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모른다고 응답하거나 무응답을 한 경우 제외하고 기독교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톨릭교는 42.3%, 불교는 9.5%, 기타종교는 1.1%를 기록하였다(<그림 30> 참조). 기독교의 경우 다른 종교에 비해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2010년 조사 이후로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모름/무응답을 제외하고 50.4%를 기록했던 2013년 조사 결과에 비해 2017년 조사 결과는 6.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톨릭교와 불교는 2013년 조사 결과에 비해 각각 3.2%P,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의 두드러진 하락세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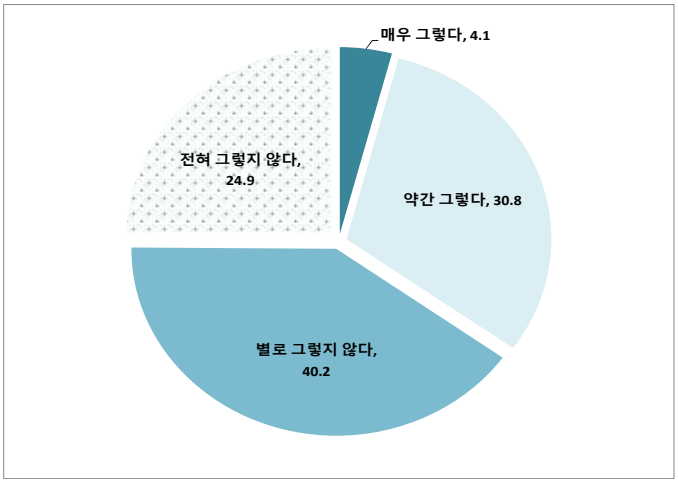
<그림 30> 연도별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종교 인식 (단위: %)

사회봉사와 사회참여 수준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나누어서 다시 분석했을 때, 기독교인 중에서는 기독교가 7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가톨릭교는 23.2%, 불교는 1.4%, 기타종교는 0.3%로 나타났다. 반면, 비기독교인 중에서는 가톨릭교가 4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기독교가 35.4%, 불교가 11.7%, 기타종교가 1.3%로 나타났다. (<그림 31> 참조). 특기할만한 점은 비기독교인이 가진 기독교의 사회봉사활동인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다. 2013년 조사에서는 사회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에 대한 비기독교인의 응답 중 기독교가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7년 조사의 경우 9.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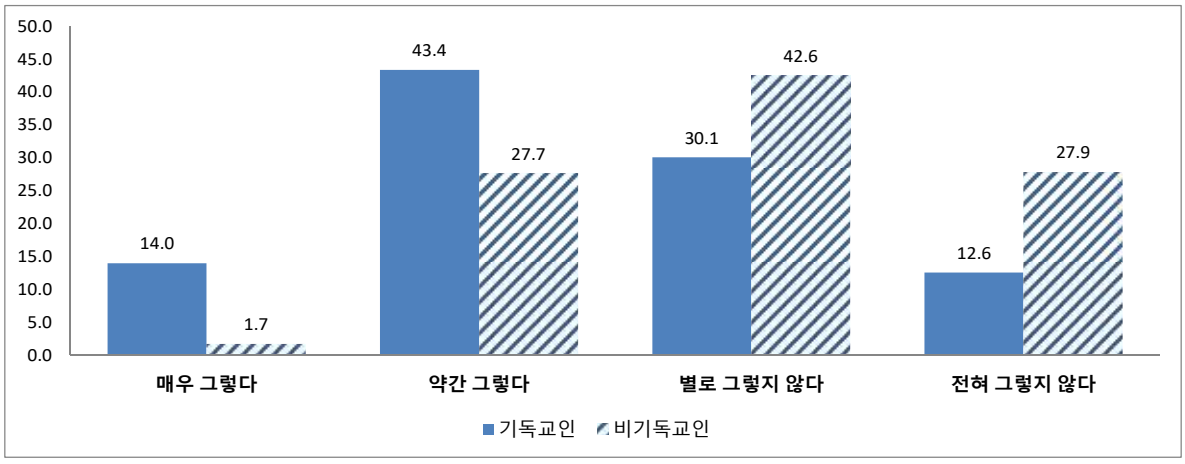
<그림 31> 기독교인 여부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종교 인식 (단위: %)

다음으로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진술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네 가지의 보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 각각의 보기에 4점, 3점, 2점, 1점을 부여하여 한국교회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 기여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의 점수로 변환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4점 척도로 평가한 평균 점수는 2.14로 나타났다. 4점 척도의 중간 점수가 2.5라는 것을 감안하면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은 셈이다. 또한 한국교회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 기여를 응답자의 34.9%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65.1%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 참조). 2013년 조사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0.5%,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39.5%로 나타났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심각한 수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2> 한국교회의 사회문제 해결/사회통합 기여에 대한 동의 정도 (모름/무응답 제외)

이 결과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나누어서 다시 분석했을 때, 기독교인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는 57.4%, 부정적인 평가는 42.7%로 나타났다. 반면, 비기독교인의 응답만을 분석해본다면 한국교회의 사회문제해결 및 사회통합에 대한 기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는 더욱 심각해진다. 비기독교인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는 29.4%, 부정적인 평가는 70.5%로 나타났다(<그림 33> 참조). 특히 위의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1.7%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과 관련하여 응답자와 종교간 교차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기대빈도와 관측빈도를 비교하였는데, 기독교인의 경우 우호적인 응답패턴이 많이 나타났고, 가톨릭신자와 불교신자의 경우에도 우호적인 응답의 패턴이 미미하게 나타났으나, 종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는 부정적인 응답패턴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33> 기독교인 여부에 따른 한국교회의 사회문제 해결/사회통합 기여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기독교인 여부에 따른 한국교회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 기여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기독교인의 평균 점수는 2.59, 비기독교인의 평균 점수는 2.0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자면 사회봉사 및 사회참여의 영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조사에 비해 2017년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수치가 하락하거나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교회에게 "올바른" 사회참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어려운 시국 속에서 집회나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등 이전에 비해 한국교회의 사회참여의 절대적인 양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참여가 시대의 아픔에 깊게 공감하는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살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기독교인들은 약자의 편에 섰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 역시 기독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증가시킨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독교의 사회참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행동하며 사회 통합을 위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야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 정치적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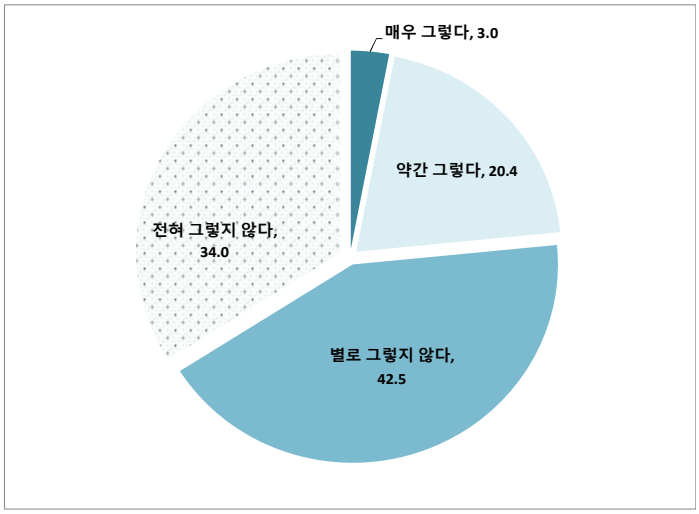
"한국교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대한 동의 정도는 4점 만점에 1.93점"
"대선 과정에서 기독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갈등의 해소와 국민 통합"

정치적 참여와 관련해서 먼저 종교에 따른 이념 성향을 파악하였다. 기독교의 경우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41.0%, 보수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0.1%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교의 경우에는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8.5%, 보수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2.5%로 여전히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불교의 경우 진보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24.0%로 나타났으며 보수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32.0%로 나타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더 많이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32.4%, 보수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22.4%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종교는 기독교이고,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종교는 가톨릭교로 나타났으며,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은 종교가 없는 응답자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표 7> 참조.).

<표 7> 종교에 따른 이념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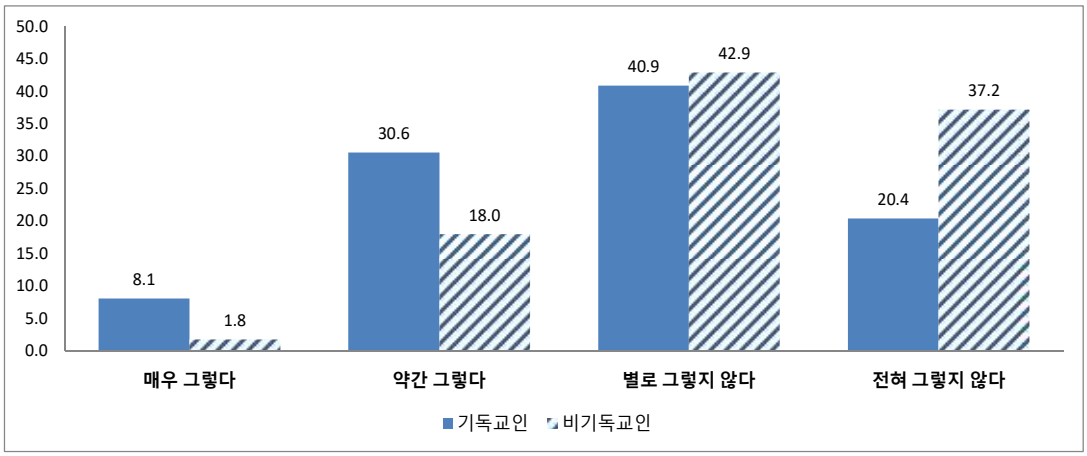
	매우 진보적이다	약간 진보적인 편이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약간 보수적인 편이다	매우 보수적이다
기독교	7.8	33.2	23.3	22.8	7.3
가톨릭교	4.8	33.7	25.3	22.9	9.6
불교	4.6	19.4	36.0	25.1	6.9
기타종교	12.5	25.0	25.0	37.5	0.0
종교없음	4.8	27.6	40.0	19.1	3.3

다음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국에서 한국교회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진술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네 가지의 보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 각각의 보기에 4점, 3점, 2점, 1점을 부여하여 현 시국에서 한국교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의 점수로 변환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교회가 현 시국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4점 척도로 평가한 평균 점수는 1.93으로 나타났다. 4점 척도의 중간 점수가 2.5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점수를 얻은 셈이다. 또한 한국교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23.4%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76.5%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현 시국에서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한국교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대한 동의 정도 (모름/무응답 제외)

이 결과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나누어서 다시 분석했을 때,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38.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61.3%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비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19.8%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80.1%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기독교인 여부에 따른 한국교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기독교인 여부에 따른 한국교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기독교인의 평균 점수는 2.26, 비기독교인의 평균 점수는 1.8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인의 시각에서조차 한국교회가 최근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 기독교인의 경우 대체로 한국교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 시국에서 한국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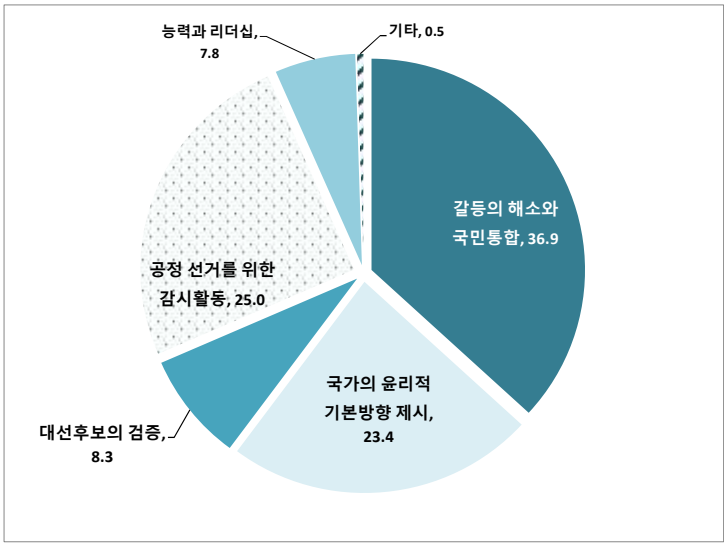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념 성향에 따라 한국교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대한 동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대체로 한국교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점은 매우 진보적인 응답자의 경우, 다른 이념 성향을 가진 응답자에 비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0%로 가장 높은 반면, 매우 보수적인 응답자의 경우는 다른 이념 성향을 가진 응답자에 비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표 8> 참조.). 이를 통해 현 시국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 수행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보수적인 집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에 주로 보도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탄핵반대집회에 참석하여 보수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력의 유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임을 보면, 이러한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이념 성향에 따른 한국교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대한 동의 정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진보적이다	4.0	6.0	38.0	52.0
약간 진보적인 편이다	2.3	19.3	41.7	36.7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2.4	19.8	40.5	37.2
약간 보수적인 편이다	6.4	17.0	46.8	29.8
매우 보수적이다	10.2	16.3	42.9	30.6

이념 성향에 대해 “매우 진보적이다” 혹은 “약간 진보적인 편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을 “진보”, “매우 보수적이다” 혹은 “약간 보수적인 편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을 “보수”, 그리고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라고 응답한 집단을 “중도”로 구분하여, 한국교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보수 집단의 평균 점수는 2.07, 중도 집단의 평균 점수는 1.87, 진보 집단의 평균 점수는 1.84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집단 간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6.690^{***}$). LSD와 Scheffe의 방법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보수 집단은 중도 및 진보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중도 집단과 진보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올해 대선 과정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중 갈등의 해소와 국민통합(36.9%)을 꼽은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정 선거를 위한 감시활동(25.0%)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국가의 윤리적 기본방향 제시(23.4%), 대선 후보의 검증(8.3%),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6.1%)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6> 참조).



<그림 36> 올해 대선 과정에서 기독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 (모름/무응답 제외)

응답자들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가 특정 정책을 제시하거나 대선후보를 검증할 것을 주된 요구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기독교에게 갈등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요청하였다. 이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사도행전 10:36)’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분열을 치유하고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에게 갈등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요청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직까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했다는 신호이자 세상의 따끔한 충고이다. 그러나 이를 한국교회의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화합과 공동체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곧 기독교의 본질적의 가치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감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5. 신뢰도를 결정하는 요인

1) 인구통계학적 속성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5점 척도의 신뢰도를 종속변수로 둔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령, 종교, 교육수준, 주관적 소득수준, 성별, 정보를 얻는 출처, 직업유형, 이념[5] 등의 변수가 실제 신뢰도의 크기를 결정짓는 유의미한 변수인지, 그리고 유의미한 변수들 가운데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그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이 회귀분석의 목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의 일곱 가지 변수가 한국교회의 전체 신뢰도(Model 1),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Model 2), 기독교 목사에 대한 신뢰도(Model 3),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Model 4)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네 모형에서 각 모형의 설명변수는 일곱 가지로 동일하며, 종속변수에만 차이를 두었다.

먼저 아래 <표 9>의 Model 1은 각 개인의 특성과 한국교회 전체 신뢰도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회귀분석 결과 기독교인일수록, 60대 이상일수록, 보수적인 이념성향을 가질수록, 여성일수록, 20대일수록 한국교회를 더욱 많이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도 60대 이상과 마찬가지로 교회 전체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교회가 20대의 기대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 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며, 향후 교회 부흥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신뢰도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를 비교할 때 종교가 기독교인지 여부가 신뢰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기독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3.64점으로 비기독교인의 신뢰도인 2.29점보다 약 1.35점이나 높다. 연령대와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직선적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60대 이상이 2.85점, 50대는 2.58점이며 20대의 신뢰도는 2.47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40대의 경우 2.39점이며, 30대는 2.3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념성향을 살펴보면,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2.75점으로 나타난 반면, 진보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2.51점으로 나타나 약 0.24점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중도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신뢰도는 2.4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의 경우에는 여성은 2.69점, 남성은 2.41점으로 나타나 여성의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약 0.28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세 개의 모형들(Model 2, Model 3, Model 4)은 각각 개인의 특성과 기독교인, 기독교 목사, 그리고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우선 본인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에는 기독교인, 기독교 목사, 교회활동 모두에 대해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 60대 이상은 기독교 목사와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으며, 여성은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에 대한 정보 출처의 경우,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해 얻는 경우는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으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얻는 경우 기독교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매체가 대체로 교회가 하는 활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SNS의 경우 목사의 개인 계정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언론매체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SNS에서 목사가 표현하는 의견이나 생각들은 목사 개인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한편, 중도 성향을 가진 응답자에 비해 보수 혹은 진보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가 50대일수록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으며, 자영업이나 농업 종사자는 기독교 목사와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또한 화이트칼라는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뢰를 구성하는 개별요소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5)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상정한 독립변수(연령, 종교, 교육수준, 성별, 소득수준, 정보를 얻는 출처, 직업, 이념)는 가(dummy)변수로 두었다.

효과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목사에 대한 신뢰(1.39) >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1.34) > 교인에 대한 신뢰(1.13) 순으로 나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순서는 과거 신뢰의 개별요소에 대한 신뢰의 순서와 다르다. 과거에는 교인에 대한 신뢰, 목사에 대한 신뢰,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의 순으로 나왔는데, 현재는 목사에 대한 신뢰가 가장 많고, 교인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다. 즉 과거에 비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기독교 목사에 대해 보이는 신뢰도의 효과가 증가하였고, 같은 교인들 사이에서의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신뢰도의 결정요인 : 인구통계학적 속성

종속변수:		**Model 1:** 한국교회의 신뢰도 (전체) **Model 2:** 기독교인의 신뢰도				**Model 3:** 기독교 목사의 신뢰도 **Model 4:** 교회활동의 신뢰도			
설명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연령	20대여부	0.185	1.707*	0.145	1.357	0.046	0.424	0.052	0.468
	30대여부	0.030	0.287	−0.067	−0.645	−0.042	−0.396	−0.020	−0.181
	50대여부	0.119	1.178	−0.170	−1.709*	0.041	0.407	0.045	0.434
	60대이상	0.321	3.024***	0.136	1.303	0.397	3.720***	0.434	3.955***
종교	기독교인	1.311	15.795***	1.127	13.751***	1.390	16.655***	1.339	15.609***
학력	고학력	−0.117	−1.475	−0.113	−1.443	−0.053	−0.666	−0.112	−1.369
소득	상중하	0.061	1.327	0.053	1.183	0.035	0.772	0.027	0.573
성별	여성	0.134	1.959*	0.039	0.575	0.091	1.322	0.158	2.231**
정보	언론	0.118	1.196	0.140	1.444	0.159	1.609	0.179	1.753*
	가족/지인	0.130	1.197	0.046	0.426	0.117	1.075	0.104	0.930
	인터넷/SNS	0.101	0.933	0.113	1.064	0.182	1.675*	0.171	1.537
직업	자영업/농업	−0.070	−0.748	−0.115	−1.247	−0.163	−1.727*	−0.229	−2.365**
	화이트칼라	−0.093	−1.040	−0.169	−1.910*	−0.158	−1.759*	−0.095	−1.026
	블루칼라	−0.008	−0.068	−0.037	−0.310	−0.048	−0.398	0.115	0.924
이념	보수	0.166	2.054**	0.120	1.503	0.043	0.533	0.238	2.841***
	진보	0.000	0.006	0.124	1.647	−0.068	−0.881	0.140	1.772*
R^2(Adj R^2)		0.253 (0.240)		0.203 (0.190)		0.273 (0.261)		0.270 (0.258)	

Note: * $p<0.10$; ** $p<0.05$; *** $p<0.01$

2) 인구학적 속성과 '교회와 사회 관계'의 통합 모델 : 교회의 소통, 사회참여,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위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포함한 상태에서 교회의 소통, 사회참여, 정치참여라는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한국교회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교회의 소통은 "한국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이고, 사회참여는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이며 정치참여는 "최근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국에서 한국교회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진술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각각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포함한 상태에서 교회의 소통, 사회참여, 정치참여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신뢰도를 설명하는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모든 모형에서 18.3%~24.1%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설명하는 모형의 설명력은 24.1%, 기독교인의 경우 23.0%, 기독교 목사의 경우 20.6%, 교회활동의 경우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신뢰도를 더욱 잘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였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해석하자면 기독교인 여부는 여전히 신뢰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새롭게 투입한 교회의 소통, 사회참여,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신뢰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구체

적으로 교회의 소통, 사회참여, 정치참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 및 기독교인, 기독교 목사,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Model 1)나 기독교인(Model 2), 교회활동(Model 4)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에는 교회의 소통, 사회참여, 정치참여의 순서대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기독교 목사(Model 3)의 경우는 세 변수 모두가 기독교 목사에 대한 신뢰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참여, 교회의 소통, 정치참여의 순서대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위의 모형들과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다. 즉, 기독교인 여부를 제외하고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나 기독교인,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교회의 소통, 즉 "한국교회가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인식이었다면, 기독교 목사에 대한 신뢰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회의 사회참여, 즉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세 변수를 투입하면서 기존에 유의미했던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20대 여부와 보수 성향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기독교인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화이트칼라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여성과 진보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기독교 목사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화이트칼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회활동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여성, 언론, 진보 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신뢰도의 결정요인 : 인구학적 특성과 '교회와 사회 관계' 통합 모형

종속변수:		**Model 1:** 한국교회의 신뢰도 (전체) **Model 2:** 기독교인의 신뢰도				**Model 3:** 기독교 목사의 신뢰도 **Model 4:** 교회활동의 신뢰도			
설명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연령	20대여부	0.113	1.216	0.063	0.666	−0.023	−0.236	0.008	0.079
	30대여부	0.080	0.899	−0.028	−0.313	0.015	0.159	0.047	0.478
	50대여부	0.052	0.600	−0.218	−2.459**	0.005	0.058	0.040	0.411
	60대이상	0.162	1.743*	−0.068	−0.714	0.251	2.583**	0.302	2.929***
종교	기독교인	0.924	12.409***	0.794	10.476***	1.035	13.341***	1.001	12.162***
학력	고학력	0.065	0.935	0.065	0.929	0.099	1.380	0.006	0.073
소득	상중하	0.052	1.322	0.050	1.247	0.017	0.421	−0.004	−0.092
성별	여성	−0.033	−0.552	−0.128	−2.092**	−0.056	−0.888	−0.007	−0.100
정보	언론	−0.041	−0.457	−0.002	−0.021	−0.008	−0.082	0.050	0.501
	가족 / 친구	0.079	0.816	−0.031	−0.313	0.005	0.048	0.045	0.416
	인터넷/SNS	0.067	0.703	0.076	0.773	0.126	1.256	0.118	1.109
직업	자영업/농업	0.032	0.385	−0.034	−0.411	−0.144	−1.685*	−0.179	−1.976**
	화이트칼라	0.006	0.083	−0.086	−1.107	−0.101	−1.260	0.012	0.142
	블루칼라	0.021	0.198	−0.011	−0.106	−0.080	−0.734	0.177	1.524
이념	보수	0.030	0.417	−0.011	−0.158	−0.085	−1.155	0.150	1.912*
	진보	−0.028	−0.429	0.117	1.748*	−0.077	−1.128	0.098	1.352
교회와 사회	교회의 소통	0.332	7.542***	0.307	6.846***	0.239	5.198***	0.342	7.015***
	사회참여	0.340	6.859***	0.257	5.078***	0.307	5.932***	0.285	5.196***
	정치참여	0.168	3.544***	0.231	4.781***	0.247	4.996***	0.153	2.921***
R^2(Adj R^2)		0.492 (0.481)		0.432 (0.420)		0.478 (0.467)		0.453 (0.441)	

Note: * $p<0.10$; ** $p<0.05$; *** $p<0.01$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독교인 여부였다. 이와 함께 교회의 소통, 사회참여, 정치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 이상일수록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한편, 신뢰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와 관련하여 60대 이상일수록 기독교 목사와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으며, 보수 성향을 가질수록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보 성향을 가질수록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반면 50대일수록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또한 자영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기독교 목사와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신뢰도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종합

	전반적 신뢰도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	기독교 목사에 대한 신뢰도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
긍정적 영향	• 기독교인인 경우 • 교회의 소통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 60대 이상인 경우	• 기독교인인 경우 • 교회의 소통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진보 성향인 경우	• 기독교인인 경우 •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 교회의 소통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 60대 이상인 경우	• 기독교인인 경우 • 교회의 소통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 60대 이상인 경우 • 보수 성향인 경우
부정적 영향		• 50대인 경우 • 여성인 경우	• 자영업/농업 종사자인 경우	• 자영업/농업 종사자인 경우

6. 언론에 보도된 주요 사건과 신뢰도

TV, 언론보도는 상대적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습득하지 못하는 비기독교인의 기독교에 대한 인상을 결정한다.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014~2017년간 한국교회, 기독교 목사,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연구자가 판단한 주요한 사건과 신뢰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는 보도 내용상 부정적인 인상이 오래가고, 긍정적인 인상은 보도가 되지 않는다거나 당연하다고 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6].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주요 사건은 주로 부정적인 것들이 기억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자가 검토한 주요 언론에 보도된 주제는 한국교회의 미담, 교회연합체의 분열과 통합운동, 교회 운영, 기독교 목사의 윤리, 기독교인의 행동, 기독교의 정치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교회의 미담은 짧게 보도성 기사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작은 미담이 누적적으로 쌓이는 형태로, 대대적으로 크게 보도된 사항이라 보기 힘들다. 따라서 다른 주제를 중심으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다소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교회 연합 운동

우선 교회연합체의 분열과 통합운동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6) Baumeister et al (2001). Bad Is Stronger Than Good.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323-370.

2017년에 분열한 교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기협) 등 다양한 교단협의체가 존재하여 한국교회 통합이 아닌 분열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관측되고 있다. 현재는 한기총과 한교연을 재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한교총을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나, 한교총이 사실상의 한기총의 확대 개편이란 시선과 한기총·한교연에 속하지 않은 교단들이 섞인 제3의 연합기관이라는 평이 엇갈리게 나타나 여전히 교단들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사회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이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교단협의체 간의 지혜로운 행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 교회 운영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교회 세습 현상이 여전히 문제로 나타났다. 교회 세습은 한국교회의 대표적 문제로 '공교회의 사유화'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전체로 퍼지면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목회세습을 금지한다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결의가 나타났고, 2013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세습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직계세습이 아닌 사위세습, 지교회세습, 징검다리세습 등의 다양한 변칙세습을 통해 계속해서 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상황이다. 한 언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수저 계급론'을 바탕으로 목사 자녀를 '금수저'라고 칭하기도 했다(이뉴스투데이, 2017.01.31). 교회 세습에 대한 여론 역시 부정적으로 나타나 세습이 단지 교회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재정운영에 관한 부분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부설 교회문제상담소가 지난 한 해 진행한 교회분쟁 상담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 분쟁의 최대 원인은 '재정 전횡'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17.01.13). 재정 전횡은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이나 배임·횡령 혐의 등을 포함하는데, 이렇게 재정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면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교회의 전 구성원을 상대로 한 정기적인 재정 보고, 외부 재정 감사 도입,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위한 정관 마련 등으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독교 목사의 윤리

다음으로 기독교 목사의 윤리와 관련한 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사건은 청소년 선교단체 대표 이○○ 목사의 성추행과 관련한 보도들이다. 이○○ 목사는 사역 도중 고교생 여제자와 수년 간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왔으며, 다수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논란을 낳았다(CBC뉴스, 2016.08.03). 지난 2010년 부적절한 성추행과 언사로 문제가 되었던 전○○ 목사에 이어 발생한 목사의 성윤리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많은 실망을 안겼다. 일각에서는 기독교 목회자의 성 문제가 잊혀질만하면 터지고 있어 기독교계의 절대적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교회와 교단이 성추행을 저지른 목사의 죄를 감싸주고 덮는 일에 담합함으로써 교회를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나타나고 있다(이뉴스투데이, 2017.01.17).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보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교인들의 헌금을 횡령하는 목사들의 모습이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헌금을 목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작년에도 다수 발생하였다.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헌금을 대학원 학비와 자녀 교육비, 반려견 사료비 등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여 피소된 사건은 언론에 흔히 보도되는 일이 되었다(이뉴스투데이, 2017.02.04). 이보다 심각

한 문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사법 처리할만한 교단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목사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년 동안 신도들에게 받은 헌금을 건강보험료, 아파트관리비, 재산세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교회 정관에 헌금 사용처를 특정 용도에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때문에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기독교 목사 혹은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4) 기독교인의 행동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그룹이었다. 고용노동부가 ○○○그룹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많은 노동자에게 임금 84억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수법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착취한 정황이 나타나 논란이 되었다(경향신문, 2016.12.20). 2007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등으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다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한겨레, 2016.12.21). SNS에서는 기독교 정신인 나눔, 바름, 자람, 섬김을 기업이념으로 내세운 ○○○그룹이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기업임이 밝혀져 충격을 준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기독교인의 과도한 종교행위를 비판하는 보도들도 있었다. 한 선교 단체의 청년들이 인도의 유명한 사원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선교기도를 했었던 사건이 화제가 되었고(매일신문, 2014.07.19),우상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 사찰에 들어가 불상 등을 부수는 행동을 한 60대 기독교인의 모습도 보도되었다(한겨레, 2016.01.19).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사회가 이를 정말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는 기독교인의 지혜로운 행동에 달려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과도한 종교행위는 오히려 사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기독교 단체 혹은 기독교인들을 더욱 불신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5) 기독교인과 교회의 정치참여

기독교인과 교회의 정치참여는 2016년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 사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수 기독교'를 자처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을 옹호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태나 촛불집회와 같은 현 시국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광화문 촛불집회 참가자를 좌파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하였다. 시위에 참가한 기독교인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행진하고 목회자들은 구국기도와 박 대통령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렸다. 이러한 보수 기독교인들의 행동은 한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앙을 가지는 기독교인의 부정적인 모습이며, 권력에 아부하는 행위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이 관측되었다. 이와는 달리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비판하는 기독교계의 시국선언도 나타났다. 교계 단체들은 물론 한신대, 장신대, 총신대 등 신학교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특검 등을 통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관제 동원 시위에 극우적 행태를 보이는 일부 교인과 목사들이 앞장서서 부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역시 박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무비판적으로 정권에 동조해온 기독교계를 비판했다.

한국 언론에서 보도된 주제 중 사회적 논란과 관심을 일으켰던 주제는 교계의 분열과 통합운동, 교회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교회 세습, 기독교 목사의 성 문제 및 사적 이익추구행위, 기독교인의 행동, 기독교의 정치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음(good news)을 전해야 할 교회를 둘러싸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이 대체로 좋지 않은 소식(bad news)이 전해지는 상황은 교회 외부에 속한 사람들의 신뢰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정적인 내용이 거의 일치

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자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목도 살펴보아 세상의 시험거리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면서 기독교윤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결단의 발걸음이 요구된다.

V. 결론 및 맺음말

1. 개선되지 않는 보통이하 수준의 한국교회 신뢰도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본 조사는 2008년에 시작하여 2009년, 2010년, 2013년 조사를 거쳐 2017년 금년까지 총 5번을 실시하였다. 동일한 주제에 대한 5번의 반복적인 조사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신뢰도 수준에 대한 측정하고 추이를 살펴보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 수준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회의 신뢰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해 개선되지 못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교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보통이하의 신뢰도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의 한국교회 신뢰도 점수 그 동안 조사된 점수 중에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다. 총 5번의 조사 모두에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신뢰도 하거나 불신도 하지 않는 수준'인 3점보다 낮은 2.55~2.82점 사이의 점수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7년에는 2013년보다 하락한 신뢰도를 보이며 그동안 조사 중 최저점인 2.55점을 보이고 있다. 금년의 한국교회 신뢰도 점수는 2008년에 나타났던 가장 낮은 신뢰도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보통이하의 낮은 신뢰도 수준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깨끗한 도로보다 개선되지 않고 방치된 도로가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쌓이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한국교회에도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미 신뢰도가 깨어진 상황에서 어떤 유리창을 고쳐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둘째, 한국교회의 신뢰수준에 대해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수준을 기독교인은 평균 3.6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비기독교인은 2.3점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 차이는 2013년에 비해 금년에 더 심화된 양상이 나타난다. 교회활동, 기독교목사,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 모두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보다 1점 이상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으로 기독교인들은 교인들의 삶이나 기독교 목사의 삶을 선택하였으나, 비기독교인들은 불투명한 재정상용을 최우선적 개선점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필요한 사회활동으로 기독교인은 봉사 및 구제활동을 1순위로 선택하였으나, 비기독교인은 윤리와 도덕실천운동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도 기독교인은 남에 대한 배려 부족을 최우선적 개선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비기독교인은 정직하지 못함에 대한 부분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소통하는 정도에 있어서 비기독교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62.34%)이 과반 수 이상이었으나, 기독교인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62.7%) 과반 수 이상이었다. 결과적으로 비기독교인은 기독교인에 비해 한국교회가 신뢰가 낮은 동시에, 한국교회에 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 대한 제고를 촉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기독교인에 비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기독교인들이 인식하기에 한국교회의 소통정도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차이에 대해 교류되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한국교회의 사회참여와 관련해서,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는 여전히 기독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응답의 비율은 2013년 조사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톨릭교나 불교라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였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나누어서 응답을 확인하는 경우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하여,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기독교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비기독교인의 경우는 절반정도의 응답자가 가톨릭교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독교는 가톨릭교의 약 3/4 수준이었다. 2013년 조사에서는 비기독교인들도 오차범위이기는 하지만 기독교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기독교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도 낮았으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의 인식 차이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참여의 영역에서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넷째,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국에서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의 평균 점수는 1.93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인 2점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교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 76.5%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비기독교인만을 분석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80.1%까지 높아져,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념으로 인해 분열해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현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논의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여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 신뢰 회복을 위한 제언

올해는 기윤실 창립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본 조사결과에서 얻는 교훈을 토대로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물론 제시되는 제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개인으로서의 교회(고린도 전서 3:16)뿐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화되는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본 조사를 통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로서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1) 기독교 윤리에 대한 끊임없는 실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나타나는 최우선적 과제는 위의 조사에서 살펴보았듯,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역할에 대한 회복이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최우선적인 개선점으로는 '불투명한 재정사용'이라고 조사자들은 응답하였고,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회적 활동으로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을, 기독교 목사들의 개선점으로는 '윤리/도덕성'을, 기독교인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정직하지 못함'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도덕적인 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모든 응답에는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Mayer, Davis, Schoorman(1995)은 신뢰와 관련된 연구를 집대성하여 신뢰성(trustworthiness)의 3가지 요건으로 능력(ability), 호의(benevolence), 충실함(integrity)를 제시한 바 있다.[7] 이러한 속성을 신뢰의 대상

7) Roger, C. Mayer, James H. Davis, and F. David Schoorman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자 혹은 피신뢰자(trustee)가 가지고 있어야, 신뢰를 하는 사람 혹은 신뢰자(trustor)가 비로소 상대방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뢰자로서 교회, 기독교인, 기독교목사는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호의(사랑), 충실함(정직과 언행일치)을 보여야 신뢰받으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야기 하지만 사랑이라는 관계에 들어가려면 신뢰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가 윤리적이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평가받는다는 것은, 사랑의 전제인 신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동시에 신뢰의 기본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정직과 언행일치라는 충실함(integrity)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기독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역할 제고를 위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 받았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동시에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여 나 자신의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가 난무한 "세상"가운데에 존재한다. 이에 자끄 엘륄은『세상속의 그리스도인』에서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어떤 법칙이나, 원리, 명령어의 나열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변증법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거하는 동시에 각 개인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는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게 되면 또 다른 타락과 부패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독교윤리는 임시적이고 변증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과의 동행으로 인한 끊임없는 성화과정을 말한다. 즉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믿음의 전투가 있으며,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결과로 획득된 삶의 자세인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는 한 개인으로서의 뿐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고, 재검토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 즉 "긴장 상황에 부닥치기"라는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8)]

이에 한국교회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끊임없는 실천을 위한 전투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끊임없는 실천이라는 것은 피곤하고, 귀찮은 일로 간주되기 쉽다. 이에 어떠한 기독교 윤리의 방법론이나 법칙을 정립하거나 혹은 전통적으로 행해진 방법론을 수행함으로써 도덕적인 면을 완성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한국교회의 역사가 쌓이면서, 각 교회의 성공신화와 방법론이 설파되는 시대이다. 하지만 어떠한 율법이든, 여호와와의 동행함으로 인한 끊임없는 쇄신이 없다면, 도덕을 위한 방법론은 변질되기가 너무나도 쉽다. 한국교회는 사회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여전히 세상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을 기억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기독교 공동체 내의 하나됨(Oneness)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하나됨(oneness)"이다. 분석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전반적으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크다. 그러나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이러한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독교 내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기독교는 세상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하나됨은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각각 그 개성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여기서의 하나됨은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조율해나갈 것인지의 문제이다.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은 우리를 하나의 뜻을 가지고 힘을 합칠 공동체로 모일 수 있게 한다. 이는 하나님의

8) Jacques Ellul (1992).『세상속의 그리스도인』, 박동열 옮김. 대전: 대장간.

사역을 행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이 같기 때문에 가능하다.[9]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퉁잇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으로 지어지는(에베소서 2:20~21)"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이러한 하나됨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교단의 이익을 위해 갈라서고,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앞서 지적하였지만, 분석 결과에서도 응답자들은 대선 과정에서 기독교에게 정치적인 역할을 요구하지 않았다. 기독교가 시대를 위해 수행해주었으면 하는 역할은 갈등의 해소와 국민 통합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 내에서의 하나됨이 필요하다. 이러한 하나됨을 실현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돌아보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하나됨의 과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에서 보기에 좋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야 할 것이며,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 공동체 내의 하나됨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기독교가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동체 외부와의 소통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13:34)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 비기독교인은 한국교회가 소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비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제자 됨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에 말하는 윤리적인 역할을 제고해야 하는 동시에 비기독교인과의 소통방식에 대해 제고해야 할 것이다. 소통의 부재가 심화될 경우,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과의 스스로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 발견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기독교인은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 뿐 아니라 공동체 외부와의 소통에 대한 정도를 스스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에도 '타 종교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최우선적인 개선점의 2순위로 나타났으며, 비기독교인이 인식하는 기독교인의 '배타성'이 기독교인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

Mayer, Davis, Schoorman(1995)의 연구에 의하면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는 기꺼이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겠다는 의지(willing to be vulnerable)를 의미한다. 비기독교인이 교회와 기독교인, 기독교목사를 신뢰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염두하며 관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취약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마음가면』의 저자 Brene Brown은 취약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관계는 끊어지지만, 취약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절히 표현하는 순간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때로는 타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흡수될 것이 두려워, 내 취약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높은 장벽을 쌓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한국교회가 비기독교인에게 높은 배타성을 가진 집단,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집단이라고 평가받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신뢰를 쌓는 관계를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 성찰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비기독교인과의 적절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인 복음에 대해 확신하되 이와 동시에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통하여 타자에 대한 유연성이 담겨있는 소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05~2015년 10년간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에서 1995년 조사된 이래로 기

9) Jacques Ellul (1992).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박동열 옮김. 대전: 대장간.

독교가 종교 인구중 1위(19.7%, 967만 600명)를 차지하고 있다고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이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센서스의 조사를 단순히 기독교의 미래를 장밋빛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 인식차이가 심화되는 동시에, 한국교회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의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국교회는 단순한 수적인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개선되지 않은 신뢰도는, 비기독교인 뿐 아니라 기독교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데 있어서 올무로 작용하기가 쉽다. 기윤실의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의 지속적인 수행은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끊임없는 과정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푯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본 조사에서 전하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여 공동체 내외부에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지 않는 동시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는 전투적인 실천 과정에 끊임없이 참예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염태산 선생과 대학원 장기쁨, 이다윗 학생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50% 불신의 벽을 넘어야 한다.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기윤실 교회신뢰운동 본부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금번 5차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는 3년간 매 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 당시 1년 만에 어떤 눈에 띄는 변화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는데 그 3년 동안 개신교에 대한 의견은 등락을 거듭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당시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2007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나 종교편향 논쟁 등으로 개신교가 궁지에 몰려 있었던 때였다. 그 때만 해도 신뢰한다고 대답한 18.4%, 5점 척도 2.55는 최악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 1년 뒤인 2009년 조사에서는 상당히 호전되었다. 긍정적 대답은 비록 19.1%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니었지만 부정적 응답이 48.3%에서 33.5%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5점 척도에서는 2.82로 많이 호전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후 실시된 2010년의 3차 조사에서는 더욱 나빠졌고, 2013년 4차 조사에서 잠시 나아지다, 이번 2017년 5차 조사에서는 처음 조사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말았다.

기윤실의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이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조사라고 생각한다. 먼저는 전문리서치 기관을 통해 조사의 정확함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5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함께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가 조사와 분석에 전문성을 더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5차 조사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자료인데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데 불안함이 깔린다. 최근 발표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개신교인의 증가가 한국교회에 희망을 가져다주었는데 어쩌면 이 신뢰도 조사는 이러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헛된 희망에 경종을 울리게 되지 않을까 싶다.

아래에서는 조사 결과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데이터가 주는 의미와 한국교회가 생각해 보아야할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보고자 한다.

1. 전반적 신뢰도

이번 신뢰도 조사에서 긍정적 대답은 20.2%로 역대 최고치로 나왔다. 1차 조사에서 18.4%, 그리고 3차 조사에서 17.6%가 나왔던 것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높게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맹점이 하나 있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부정적 대답을 한 사람이 51.2%로 가장 많게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보통이라고 대답한 인원이 역대 가장 적게 나왔고 이는 2013년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무려 7.4% 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개 이런 조사에서는 '보통' 내지는 '잘 모르겠다'는 등의 응답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불교나 천주교와 같은 타 종교에 대해서 신뢰에 대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게 된다면

그렇게 선명하게 응답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개신교에 대해서 신뢰를 묻는데 중간이 30%를 차지하지 못하고 신뢰한다고 대답한 이들이 약 20%이고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들이 50%를 넘는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개신교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이들이 70%에 이르는데 국민의 50%가 명확히 '나는 개신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고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이들도 20%나 되고 있다. 이런 조사에서 이런 극단적인 대답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에서 개신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타종교(29.2%)와 불교(22.9%),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없음(25.9%)의 계층에서 높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이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종교없음의 계층에서 26% 정도가 한국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것은 앞으로 전도의 가능성이 상당히 닫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도 이번 조사에서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개신교인 중에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가 다소 높아졌다는 것이다. 4차 조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47.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외부적 불신에 더해 내부적으로도 무너지는 징조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 조사에서는 59.9%로 12% 이상 증가했으며 이로써 절반은 넘게 되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6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반성해 볼 부분이 있다.

하나 더 살펴볼 부분은 개신교의 계층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짚은 부분은 50대 이상, 주부 계층, 저학력층, 생활수준 하층, 보수이념 성향 층에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오고, 30대 연령층, 고학력층, 화이트칼라 계층, 생활수준 상/상층, 중도/진보 층에서는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과거 개신교는 종교계층성 분석에서 중상층으로 이해되었다. 오히려 천주교가 중하층, 불교가 더 낮게 나왔었다. 그런데 이번 신뢰도 조사를 보면 개신교에 대한 종교계층성은 중하층 이하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개신교가 이성적인 이미지 보다는 감성적인 이미지, 내지는 비합리적이라는 이미지 등이 나타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의 계층상승성의 욕구를 감안해 본다면 개신교는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해야할 것이다.

2. 종교별 신뢰도, 사회봉사 적극 종교, 10년 후 증가 종교에 대한 응답비교

종교별로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데 여전히 천주교가 가장 높게 나오고, 이후 불교와 기독교가 이어지고 있다. 전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정도이다.

사회봉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를 물었는데 여기서는 전과 같이 개신교가 가장 높게 나왔고, 이후 천주교가 나오고 불교가 상당한 차이로 뒤따르고 있다. 다만 개신교에 대한 긍정 대답이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약 5% 정도 줄어들어 눈에 띄고 있다. 이에 비해 천주교는 2.7% 정도 늘어서 기독교와의 차이를 좁히고 있다. 이런 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은 **기독교가 봉사는 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기독교가 좋은 종교, 내지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종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신뢰도의 문제는 현실적 내지는 물질적인 것과는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를 가지고 물량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국교회가 고민할 부분은 바로 여기인 것 같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에 비례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분명히 이 부분은 한국교회의 전략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다. 10년 후 어느 종교가 가장 증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독교(40.3%)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가톨릭보다도 2배 정도 높게 나온 것이다. 이 질문을 보면서 선거 전 설문조사와 비교하게 되었다. 선거를 하기 전 정치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보통 지지도 조사를 한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질문도 있다. 오늘 투표를 한다면 누구에게 투표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결과는 또 다르게 나온다. 여기에 당선 가능한 후보를 물으면 역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선거는 마지막 질문에 의해서 당선가능성이 나오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내지는 자신이 직접 표를 주고 싶은 후보가 있지만 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면 사표 방지를 위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소신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질문은 어쩌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유추된 결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처럼 자신은 신뢰할 수도 호감을 가질 수도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독교가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여기에는 기독교를 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기독교는 성장위주의 종교라는 것이다. 기독교는 항상 전도에 열심이고 교회를 늘려나가는데 열심이니 분명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둘째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듯이 결국 자기 것을 잘 챙기는 기독교가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성장할 것이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을 중시한다는 이미지를 사람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기독교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 산업화 사회에서는 성장위주의 이미지는 긍정적 사고를 격려하던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70년대와 80년대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화 시대를 지나고 포스트모던과 영성위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아직 성장위주의 이미지를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자리를 가져와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3. 한국교회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견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질문이 세 가지가 나왔다. 즉 세상과의 소통, 사회통합 기여, 그리고 최근 시국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긍정적 응답이 소통에서 38.7%, 사회통합에서 33.3%, 그리고 현 시국에서 22.2%가 나왔다. 소통이나 사회통합에 대한 응답은 생각보다는 높게 나왔다고 본다. 생각해 볼 부분은 현 시국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게 나왔다는 것이다. 과거 한국교회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일제 강점기 때 교회가 했던 역할들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해방 이후의 정국에서도 기독교가 했던 역할들은 이승만, 김구, 여운형 등으로 대표할 수 있는 중요성이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의 과정에서도 교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반대되는 입장에서도 교회는 적지 않게 현실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런데 이번 조사를 보게 되면 한국교회가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시국 상황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제 한국교회의 위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실적으로 현 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신학을 공부하여 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정도로 독실한 신자라고 알려져 있고,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목사이고, 이외 정치권의 여러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기독교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기독교의 현실성은 사람들에게 왜곡되어 전달되어 있거나 옳지 못한 방향에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올해 대선 과정에서의 기독교 역할

올해 대선 과정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겠냐는 질문에 약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갈등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꼽았다.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활동이 19.4%, 국가의 윤리적 기본방향 제시도 18.1%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예시에서 나온 거라 한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현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다는 것은 주목해야 한다.

현 시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관계를 넘어서 이후에 국민들이 다시 화합이 가능할까를 걱정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내지는 친대통령과 반대통령파로 나뉘어서 주장하는 바들이 너무 극단적이다.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주장 역시 요즘 이야기하는 거짓뉴스인 것들이 많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대화하게 하고 화합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선동가가 되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선거 이후를 걱정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끄는데 기독교가 나서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요구는 정당하다고 본다. 교회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이나 삶의 배경들이 다른 사람들이 신앙으로 모여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곳에서 신앙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길을 연다면 정치인들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활동'에 사람들이 많이 긍정한 것은 의외라고 여겨진다. 과거 정치가 왜곡되어지고 불신되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공명선거 감시운동 등이 활발하게 움직였고, 기독교 역시 공의정치실천연대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주도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정치가 안정되어 가면서 이런 선거 감시운동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줄어들고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선거감시운동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철저히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이런 조사에서는 앞에 나오지 않은 '대선 후보의 검증(6.4%)'이나 '주요 정책의 기본 방향제시(4.7%)' 등이 일반적으로 종교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는 선거감시운동에 대해서 28.8%로 거의 30%에 가까운 지지를 보인 것을 보면 현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비정상 정치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발치에서 구경꾼의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른 정치가 되고,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치나 사회적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사회가 통합되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5.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사회적 활동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1위는 45.3%로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었다. 2위로 '봉사와 구제활동'이 31.6%였다. 이후 환경, 인권 등 사회활동이 10.8%, '학교운영 등 교육 사업 활동'이 5.4%, 문화예술활동이 3.0% 등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지난 5차례의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물었던 것이다. 3차까지는 봉사와 구제활동이 1위였다. 그것

도 2차 조사인 2009년도에 60.3%로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봉사와 구제활동에 대한 기대가 이후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번 5차 조사에서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윤리와 도덕에 대한 것은 2차 조사 때 19.9%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3년 전인 지난 4차 조사 때 이 부분은 처음 1위를 차지하고서는 이번에도 비슷한 비율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한국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존 봉사와 구제활동을 벗어나서 윤리적인 측면을 감당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시대적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국가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기에 그것을 교회가 채워주는 부분들이 많았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적인 부분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감당해야할 부분들은 많았다고 본다. 더군다나 교회는 지역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봉사들을 많이 해 왔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봉사와 구제활동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점점 사회복지 분야를 국가가 감당해 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교회 역시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가치관의 혼돈 등으로 오는 윤리와 도덕의 해이이다.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고, 도덕의 야경꾼 역할을 해야 할 사회가 공동체의 붕괴와 함께 해체되고 있다. 여기에 포스트모던의 영향까지 더해져 도덕의 기준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감당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윤리와 도덕 문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곳은 역시 종교이고, 조직적으로 잘 준비되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더군다나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이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6. 나가는 말

5차 조사에서 나타난 핵심은 어쩌면 기독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점이 상당히 부정적인 쪽에 가 있다는 것이다.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적으나마 늘어났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20%나 되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즉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적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 사회에서 적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개신교가 상당히 늘어난 현상은 우리들에게 의문을 줄 수밖에 없다. 혹 이것이 한국교회의 선함, 내지는 호감에 의한 증가가 아니라 이단과 불출석 교인들의 증가로 인한 일시적 환영이 아니겠는가하는 불안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즉 건전한 성장이 아니라 상당히 건강하지 않은 성장내지는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대 혼동을 겪고 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에 있으며 정국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극도로 양극화 되어 있다. 대화와 타협, 그로 인한 통합은 이제 요원해 보인다. 앞으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이 사회는 점점 더 이러한 혼동과 대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한국사회의 정신적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기독교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이 현실 가운데 기독교가 앞으로 1년 내지는 몇 년의 기간동안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신뢰도는 또 등락을 거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뢰도가 우리가 성적표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선교가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될 것이다.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지만 많은 기대를 해 본다.

타 여론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본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지용근 지앤컴리서치 대표이사

Ⅰ. 들어가며

2015년 10월에 실시된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중 종교인구 조사 결과가 작년 12월에 발표됐다. 그 결과, 과거 10년 동안 종교인은 9%p가 감소한 43.9%였고, 반대로 무종교인은 9%p가 증가한 56.1%로 나타나 한국사회의 탈종교화 시대가 오고 있다고 각 언론은 앞 다투어 보도했다. 종교별 비율은 개신교 19.7%, 불교 15.7%, 가톨릭 7.9%, 기타 0.6%, 무종교 56.1%로 다른 종교는 다 하락했는데 개신교는 오히려 1.5%p 증가하였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종교 인구를 측정한 이래 처음으로 개신교가 불교를 제치고 1위 종교로 올라선 것이다. 이 수치를 두고 종교계는 당황했다. 먼저 개신교는 '그럴 리가 없는데...'라면서 당혹감과 놀라움의 반응이었다. 목회 강단에서 실제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주요 교단마다 집계하는 교세통계는 약간씩 교인들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던 터였기 때문이다. 특히 기윤실에서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해 온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결과,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매우 낮을 뿐 아니라 타종교와도 우위에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신교가 10년 전보다 더 증가했다고 하니 믿기가 어려웠다.

여기서는 먼저 종교인구 센서스 조사결과 중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한편으로 개신교 인구 증가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이번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2008년 기윤실의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가 처음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한국교회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 상에 어떤 변화가 있어 왔는지 추적해 볼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 관련 최근 조사된 타 조사결과와 본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과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2015 인구센서스조사 중 종교인구 조사 결과 분석

먼저 각 종교별 인구 변화 추이부터 살펴보겠다. 2005년까지 불교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는 개신교가 1위로 올라섰다. 10년간 불교는 무려 7.4%p, 300만명이 감소되었고, 가톨릭도 2.9% 감소했지만 개신교만 1.5% 123만명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표1 참조)

표1) 종교별 인구 - 연도별 추이

(단위 : 천명, %)

		개신교	불교	가톨릭	기타	계
인구	1995	8,505	10,240	2,885	469	43,834
	2005	8,446	10,717	5,015	348	46,352
	2015	9,676	7,703	3,890	284	49,052
	증감(15-05)	1,230	-3,014	-1,125	-64	2,700
%	1995	19.4	23.4	6.6	1.0	100.0
	2005	18.2	23.1	10.8	0.8	100.0
	2015	19.7	15.7	7.9	0.6	100.0
	증감(15-05)	1.5	-7.4	-2.9	-0.2	-

*주) 불교는 원불교 포함

이렇듯 불교가 급격하게 하락된 원인은 연령별 하락율과 관계가 깊다. 만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개신교와 불교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반해,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층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2)에서 보듯 20세 이상에서는 개신교 19.3%, 불교 17.8%인 반면, 19세 이하 층은 개신교 21.4%, 불교 7.5%로 큰 차이가 난다.

표2) 종교별 인구 - 19세 이하 vs 20세 이상

(2015년 센서스 결과, %)

	개신교	불교*	가톨릭	기타 종교	종교 없음	계
19세 이하	21.4	7.5	6.3	0.4	64.5	100.0
20세 이상	19.3	17.8	8.3	0.6	53.9	100.0
전체	19.7	15.7	7.9	0.6	56.1	100.0

*주) 불교는 원불교 포함

이번에는 각 연령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겠다. 개신교는 30대까지는 10년 전에 비해 그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40대 이상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총인구 변화와 비교해 보면, 30대까지는 총인구 감소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40대 부터는 총인구보다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인구의 경우 총인구는 48.6% 증가하였는데, 개신교는 무려 8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신교의 고령화 추세를 실감하는 수치이다.(표3 참조)

표3) 종교별 인구 - 연령별 인구 증감율(2005 vs 2015)

(단위 : %)

연령	2005년 대비 2015년 인구 증감율				
	개신교	불교*	가톨릭	종교인구 전체	총인구
9세이하	-17.3	-63.1	-52.7	-39.7	-19.2
10대	-7.1	-59.3	-49.2	-35.6	-14.2
20대	-10.0	-56.1	-38.6	-35.4	-11.7
30대	-5.7	-46.8	-29.7	-28.0	-10.3
40대	16.6	-38.3	-30.6	-19.3	5.5
50대	67.7	7.8	14.0	25.9	55.7
60대이상	80.1	16.4	33.4	36.3	48.6
전체	14.6	-28.1	-22.4	-12.1	5.8

*주) 불교는 원불교 포함

그런데 이번 센서스 조사 결과가 실제 한국교회에서 체감하는 정도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각 교단에서의 통계는 2010년을 전후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표4 참조), 교회학교는 장년보다 훨씬 더 심각해 예장 통합교단의 경우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지난 10년간 -20%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 장년보다 감소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40% 안팎의 큰 감소세를 보이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지난 10년 간 10대 연령층의 총인구 감소율이 -14%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교회학교 학생의 감소율이 얼마나 큰 지 가늠할 수 있다(표5 참조).

표4) 주요 교단별 교인수 추이

(단위 : 1,000명)

년도	예장합동	예장통합	감리회	예장고신	기장	예장합신
2005년	2717	2539	1508	465	337	137
2006년	2818	2649	1535	501	337	145
2007년	2912	2687	1558	474	**338**	147
2008년	2897	2699	1564	465	328	150
2009년	2937	2803	**1587**	465	319	152
2010년	2953	**2852**	1586	466	311	**157**
2011년	2989	**2852**	1586	**482**	306	153
2012년	**2995**	2811	1558	481	298	155
2013년	2857	2809	1486	473	290	152
2014년	2721	2811	1468	461	284	150

*resource : 각 교단 교세 통계표

표5) 예장 통합 교단 교회학교 학생수 추이

(단위 : 1,000명)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2006	76	79	90	105	189
2007	75	80	86	106	193
2008	75	74	84	105	193
2009	72	70	80	101	195
2010	67	64	74	90	188
2011	65	58	69	83	180
2012	62	57	64	76	172
2013	58	51	59	68	157
2014	58	51	58	65	152
2015	55	48	55	62	147
10년간 증감율	**-27.6%**	**-39.2%**	**-38.9%**	**-41.0%**	**-22.2%**

*resource : 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교세 통계표

이제 교회 현실과 센서스 조사결과와의 갭(gap)에 대해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겠다.

먼저 이번 센서스 조사 결과 발표 후 여러 전문가들이 2005년 설문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비교적 정확한 내부 통계를 갖고 있는 가톨릭의 통계치와 센서스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데서 문제 제기가 시작된다. 2005년 센서스 조사 설문 응답자의 종교를 묻는 질문에 1.불교 2.기독교(개신교) 3. 기독교(천주교) 로 질문하였는데, 실제 결과는 천주교 자체 통계보다 50만명 정도 더 나와서 예외적으로 받아들인바 있다. 당시는 조사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조사 방식이었기 때문에 응답자가 그 가구의 주부 또는 노인층일 개연성이 높은데, '개신교'라는 표현에 익숙하지 않는 상당수의 개신교인이 '기독교(천주교)에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이다. 만일 이 추론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2005년 천주교 비율은 천주교 내부 통계 자료를 근거로 2%p 낮아져야 되고, 상대적으로 개신교 비율은 2%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2005년 개신교 인구는 1995년 보다 0.8%p 상승되고 이번 2015년에는 2005년 보다 0.5% 감소하는 결과가 된다.

또 다른 이유는 가나안교인의 증가이다, 2012년 한목협이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에서 개신교인 중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소위 '가나안교인' 비율이 10.5%였는데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17%선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이 교회 강단에서 볼 때 교인이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신앙은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실망 등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 출석하지 않고 기독교 신념만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몇 년간 급증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Ⅲ. 한국교회 신뢰도 변화 추이(2008년~2017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기윤실에서 이 조사를 실시한지 벌써 10년째 된다. 이러한 추적조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이 나타난다. 지난 10년간 한국교회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18.4%에서 20.2%로 미미하게 증가했지만 한걸음 더 들어가서 각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파악하는 것은 향후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1. 성별 신뢰도 추이

성별 신뢰도는 지난 10년간 남자는 1.5%p 감소한 반면, 여성은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대체로 한국교회 신뢰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선을 보이고 있다.

(%)

성별	2008년(a)	2010년	2013년(b)	2017년(c)	10년간 추이 (c-a)	4년간 추이 (c-b)
남자	18.8	13.9	18.1	17.3	**-1.5**	**-0.8**
여자	18.1	21.4	20.8	23.1	**+5.0**	**+2.3**
전체	18.5	17.6	19.4	20.2	**+1.7**	**+0.8**

2. 연령별 신뢰도 추이

연령별로 지난 10년간 40대 이후 장년/노년층에서는 미미하게 신뢰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20대 젊은 층에서는 신뢰도가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결과와 비교하면 지난 4년간 30대와 40대 연령층에서 신뢰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연령별	2008년(a)	2010년	2013년(b)	2017년(c)	10년간 추이 (c-a)	4년간 추이 (c-b)
20대	13.4	11.5	12.9	17.3	**+3.9**	**+4.4**
30대	15.5	15.6	20.5	17.3	**+1.8**	**-3.2**
40대	15.5	19.6	23.1	14.6	**-0.9**	**-8.4**
50대	26.2	16.9	16.2	24.1	**-2.1**	**+7.9**
60대 이상	26.4	29.0	26.3	26.2	**-0.2**	**-0.2**
전체	18.5	17.6	19.4	20.2	**+1.7**	**+0.8**

3. 학력별 신뢰도 추이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저학력층은 지난 10년간 1.8%p 증가하였고, 2013년 이후 4년간 5.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재이상 고학력층은 지난 4년간 2.0%의 감소세를 보였다.

(%)

학력별	2008년(a)	2010년	2013년(b)	2017년(c)	10년간 추이 (c-a)	4년간 추이 (c-b)
고졸이하	21.9	21.3	18.5	23.7	**+1.8**	**5.2**
대재이상	16.7	14.7	20.0	18.1	**+1.4**	**-2.0**
전체	18.5	17.6	19.4	20.2	**+1.7**	**+0.8**

4. 직업별 신뢰도 추이

직업별로는 과거 10년간 다른 직업군은 모두 증가세를 보인 반면, 유일하게 블루칼라층에서만 3.8%p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지난 4년간은 화이트칼라층에서만 감소세(-5.6%p)를 나타낸 반면, 학생층에서는 무려 9.3%의 증가율을 보였다.

(%)

직업별	2008년(a)	2010년	2013년(b)	2017년(c)	10년간 추이 (c-a)	4년간 추이 (c-b)
자영업	16.3	16.5	17.3	18.9	**+2.6**	**+1.6**
블루칼라	21.6	11.0	16.5	17.8	**-3.8**	**+1.3**
화이트칼라	13.9	17.7	22.3	16.7	**+2.8**	**-5.6**
가정주부	24.4	24.3	22.5	25.0	**+0.6**	**+2.5**
학생	17.5	8.0	10.6	19.9	**+2.4**	**+9.3**
전체	18.5	17.6	19.4	20.2	**+1.7**	**+0.8**

5. 소득수준별 신뢰도 추이

소득수준별로는 과거 10년간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증가했는데 지난 2013년 조사 이후 4년간 상층에서 가장 큰 감소세(-6.7%p)를 나타낸 반면, 하층에서는 반대로 8.6%p의 증가세를 보였다.

(%)

소득수준별	2008년(a)	2010년	2013년(b)	2017년(c)	10년간 추이 (c-a)	4년간 추이 (c-b)
상층	14.1	21.6	23.4	16.7	**+2.6**	**-6.7**
중층	17.7	17.6	21.6	19.5	**+1.8**	**-2.1**
하층	23.0	14.7	14.8	23.4	**+0.4**	**+8.6**
전체	18.5	17.6	19.4	20.2	**+1.7**	**+0.8**

6. 지역별 신뢰도 추이

지역별로는 지난 10년간 각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상도 지역에서 신뢰도 상승률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2013년 신뢰도가 2010년 보다 많이 하락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상승해 20% 초반의 신뢰도를 회복하였고, 반면, 대전/충청 지역은 지난 4년간 가장 많이 하락(-4.1%p)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

지역별	2008년(a)	2010년	2013년(b)	2017년(c)	10년간 추이 (c-a)	4년간 추이 (c-b)
서울	20.3	20.4	14.6	21.9	**+1.6**	**+7.2**
인천/경기	21.9	20.8	21.4	22.0	**+0.1**	**+0.5**
대전/충청	18.0	16.1	21.3	17.2	**-0.8**	**-4.1**
광주/전라	16.8	16.0	26.0	18.0	**+1.2**	**-8.0**
대구/경북	16.5	13.5	19.4	21.7	**+5.2**	**+2.3**
부산/경남	15.5	15.0	17.7	19.9	**+4.4**	**+2.2**
전체	18.5	17.6	19.4	20.2	**+1.7**	**+0.8**

7. 종교인별 신뢰도 추이

종교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과거 10년간 기독교인만 감소하고 타종교인 및 무종교인은 오히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10년간 기독교인의 한국교회 신뢰도가 5.7%p 감소했는데, 이는 한국교회에 대해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닌 교회 내 사람들에게서 실망감이 컸다는 반증이다. 다행인 것은 2013년 조사 이후 기독교인의 한국교회 신뢰도가 12.4%p 상승하였는데, 앞으로 한국교회 신뢰도 제고의 중요 요인으로서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집토끼 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종교인별	2008년(a)	2010년	2013년(b)	2017년(c)	10년간 추이 (c-a)	4년간 추이 (c-b)
기독교(개신교)	65.6	59.0	47.5	59.9	**-5.7**	**+12.4**
가톨릭	8.9	10.7	21.7	17.2	**+8.3**	**-4.6**
불교	10.1	8.8	12.3	12.8	**+2.7**	**+0.5**
무종교	6.6	7.6	8.4	8.9	**+2.3**	**+0.5**
전체	18.5	17.6	19.4	20.2	**+1.7**	**+0.8**

Ⅳ. 한국교회 평가 및 과제 (타 조사 결과 비교)

1. 한국교회 활동 평가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교회의 활동에 대한 몇 가지 평가를 받아보았다. 먼저 '한국교회의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는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그렇다' 27.8%, '그렇지 않다' 36.8%, '보통이다' 35.4%로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하 한기언)에서 언론인(주요 언론사 기자) 182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한국교회 활동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겠다. 먼저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76.4%가 한국교회의 한국사회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 물었는데 그 결과 '잘 수행하고 있다' 31.9%,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67.6%로 긍정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결과이다.

■ 본 조사 (%)

"한국교회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27.8	35.4	36.8	100.0

■ 언론인 대상 조사(한기언, 182명, 2016년 11월, 지앤컴리서치) (%)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계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76.4**	23.1	0.5	100.0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31.9	**67.6**	0.5	100.0

또 본 조사에서는 한국교회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항도 조사하였다. 먼저 '한국교회가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8.7%로 나타났다. 또 한국교회의 사회문제 해결 또는 사회통합 기여도 측면에서는 33.3%, 현 시국에서 한국교회의 긍정적 역할 22.2% 등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 앞에서 언급한 한기언의 언론인조사에서도 비슷한 문항으로 조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잘한다' 33.5%,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한다' 11.5%, '사회 개혁을 위해 실제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9.9% 등으로 대체로 인색한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런한 조사결과를 통해 언론과 일반국민들은 한국교회에 대해 구제/봉사 이외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본 조사 (%)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계
한국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다	38.7	**56.9**	4.5	100.0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33.3	**62.1**	4.7	100.0
최근 어려운 시국에서 한국교회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	22.2	**72.4**	5.4	100.0

■ 언론인 대상 조사(한기언, 182명, 2016년 11월, 지앤컴리서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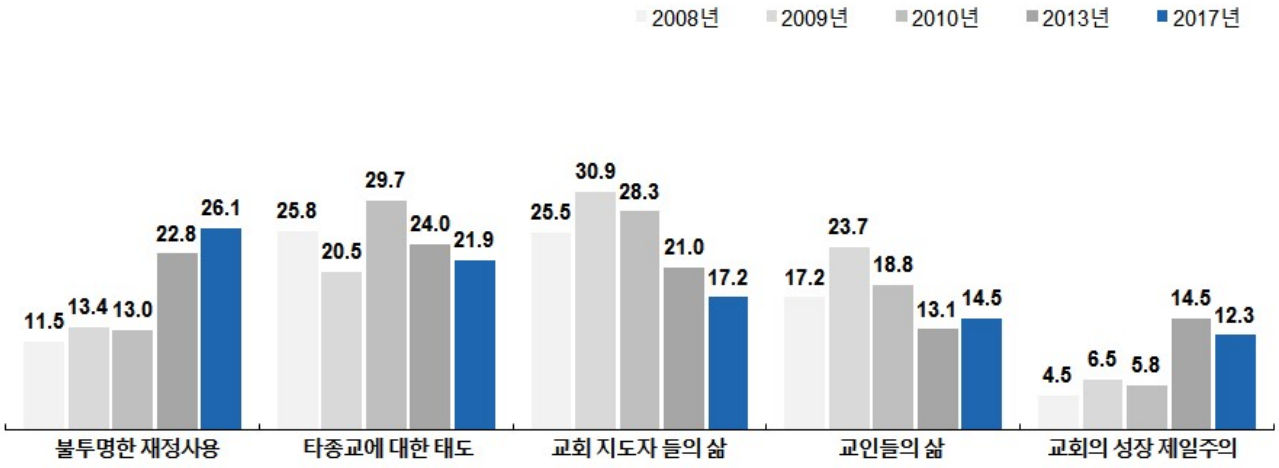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계
한국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다	11.5	20.3	**66.5**	1.6	100.0
한국교회는 지역사회가 원하는 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다	**33.5**	34.6	28.0	3.8	100.0
한국교회는 사회개혁을 위해 실제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9.9	21.4	**66.5**	2.2	100.0

2. 한국교회의 과제 /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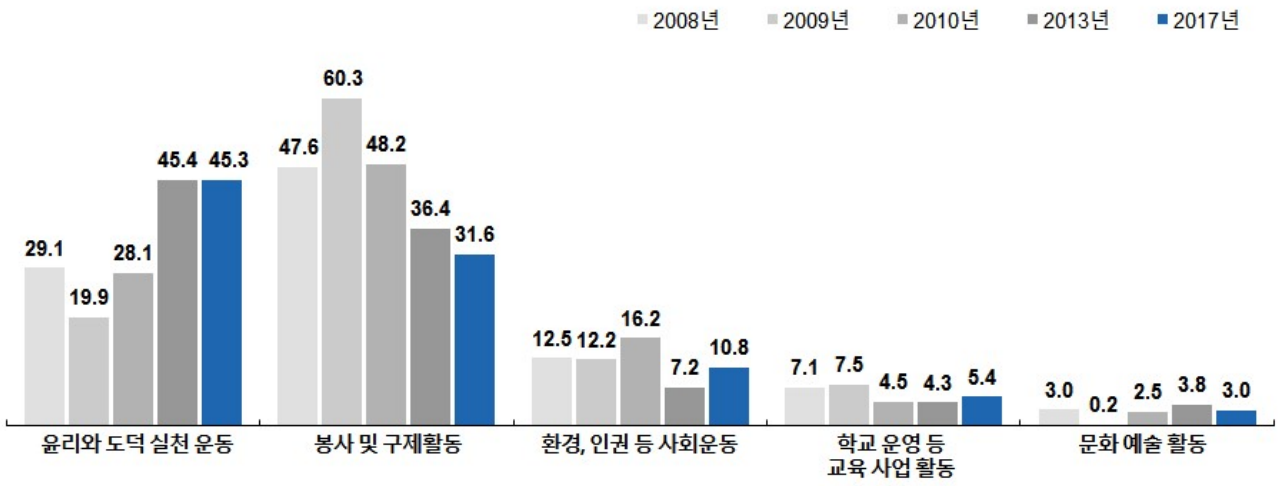
이번에는 한국교회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내용이다. 본 조사에서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한 개선점을 질문하였는데, 불투명한 재정사용 26.1%, 타종교에 대한 태도 21.9, 교회지도자들의 삶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불투명한 재정사용 응답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국민들은 교회내 투명성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는데,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45.3%)이 단연 1위로 지적되었고 그 다음 봉사 및 구제활동(31.6%)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도 흥미로운데 윤리/도덕 실천 운동 역시 과거 10년동안 꾸준히 응답률이 증가추세에 있고 반면, 봉사 및 구제활동은 점점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다

는 점이다. 국민들은 한국교회에 대해 구제/봉사도 중요하지만 윤리/도덕 실천 운동 등 대 사회적 운동(Movement)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상위 5순위) - 본조사 (%)



■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상위 5순위) - 본조사 (%)



한국교회 과제와 개선점에 대해서는 최근 조사된 몇 가지 자료들이 있다. 먼저 앞에서 한기언의 언론인조사에서 한국교회의 시급한 해결과제를 질문했었는데 그 결과 세속화/물질주의가 44.4%로 가장 높게 지적됐고 그다음 목회자의 자질 34.2%, 양적팽창/외형중시 3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8월 합동교단의 교회갱신협의회(교갱협) 목회자 196명을 대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을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 대한 방향 제시 25.5%, 목회자 재교육 21.4%, 양적팽창/외형중심 지양 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목회자 재교육이 두 번째로 지적돼 눈길을 끌었다. 또 작년 말 한기언에서 개신교인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의 개혁과제를 질문하였는데 개신교인은 복음의 본질 회복(42.2%), 목회자 윤리회복 38.5%, 분열된 교회의 일치 7.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목회자들은 이와 비슷한 경향의 응답을 보였다.

■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1+2순위) : 언론인 조사(한기언) (%)

세속화 /물질주의	목회자자질 /사리사욕	양적팽창 /외형중심	지나친 개교회중심	교권주의 /권위주의	교파많다	성도들 삶의 방향 제시 못함	무분별한 목사 양산
44.4	34.2	33.8	16.9	15.6	12.4	11.1	9.8

■ 종교개혁 500주년 맞아 한국교회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개혁내용(1+2순위)
(교갱협 목회자 196명, 2016년 8월, 지앤컴리서치) (%)

성도들의 실제 생활 방향 제시	목회자 재교육	양적팽장/외형 중심 지양	권위주의/교권 주의 내려놓음	지역사회로의 공공성 지향	청년층 이탈방지
42.9	36.7	31.1	30.1	19.9	10.2

■ 한국교회의 종교개혁 500주년의 개혁과제(1순위)
(한기언, 개신교인 900명 + 목회자 100명, 2016년 12월, 지앤컴리서치) (%)

구분	종교개혁 정신, 복음의 본질 회복	목회자들의 윤리 회복	분열된 교회의 일치	개교회주의 극복/공교회성 회복	교회 양극화 현상 극복	통일운동
개신교인	42.2	38.5	7.0	4.7	4.6	1.8
목회자	63.0	25.0	2.0	8.0	1.0	1.0

3. 한국교회 목사와 기독교인들의 문제점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교회 목사와 일반 기독교인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먼저 한국교회 목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을 물었는데 그 결과, 윤리/도덕성 49.4%, 물질추구성향 12.5%, 사회현실 이해 및 참여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기언의 언론인 조사에서도 목회자 문제점을 질문했었는데 그 결과 물질적 욕심/성장주의 52.7%, 인격/윤리 등 부족 17.6%, 언행일치 부족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앞에서 언급한 한기언의 2015년말에 개신교인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목회자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윤리문제를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는 개신교인/목회자 두 그룹 모두 독단/권위주의를 가장 높게 꼽았고 다음으로 불투명한 재정사용이 지적됐다.

■ 본조사 : 목회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SA) (%)

윤리/도덕성	물질 추구 성향	사회현실 이해 및 참여	교회 성장주의	능력과 리더십	권위주의
49.4	12.5	11.2	9.3	7.8	6.2

■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SA) : 언론인 조사(한기언) (%)

물질적 욕심/성장주의	인격/윤리 등 부족	언행일치 부족	사회현실 이해 및 참여 부족	권위주의	리더십부족
52.7	17.6	14.8	7.7	3.3	2.2

■ 목회자들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윤리문제(1순위)
(한기언, 개신교인 900명 + 목회자 100명, 2015년 12월, 지앤컴리서치) (%)

구분	독단/권위적인 교회운영	불투명한 재정사용	담임목사 대물림	성 윤리	설교 표절
개신교인	37.9	35.8	12.7	10.3	2.3
목회자	40.0	27.0	9.0	12.0	6.0

이번에는 개신교인에 대한 개선점이다. 본 조사에서는 기독교인이 더욱 더 신뢰받기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는데, '정직하지 못함'(28.3%)과 '남에 대한 배려 부족'(26.8) 항목이 비슷하게 높아 정직과 배려를 가장 개선점으로 꼽고 있었다. 이와 관련 한기언의 언론인조사에서는 일반 신도들의 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는데, 타종교 및 비기독교인들에 대한 배타성을 34.1%로 가장 높게 지적했고 그 다음으로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일치 28.6%, 목회자 맹목적 의존 15.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본조사 :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SA) (%)

정직하지 못함	남에 대한 배려 부족	배타성	사회에 대한 무관심	기복주의
28.3	26.8	23.2	9.4	8.0

■ 한국교회 일반 신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SA) : 언론인 조사(한기언) (%)

타종교 및 비기독교인에 대한 배타성	신앙과 일상생활 불일치	목회자에 대한 맹목적 의존	기복적 신앙	대형교회 쏠림현상	사회봉사/구제 활동 부족
34.1	28.6	15.9	7.7	7.7	3.3

4. 신뢰하는 종교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교회에 대한 절대 평가 질문 외에 타 종교와의 상대 평가 질문도 하였다. 지난 2013년 대비 가톨릭교는 약간 상승하였고, 불교는 2010년 조사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기독교는 2014년 대비 2.4%p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올해도 가장 선호도가 낮은 종교가 되었지만 불교와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종교 신뢰도 관련, 앞에서 언급했던 한기언의 언론인조사에서 '신뢰할 만한 종교' 문항을 넣어 조사하였다. 언론인들의 종교 상대적 종교 신뢰도를 보면, 기독교 7.1%, 가톨릭 42.3%, 불교 8.2%로 기독교가 이번 일반국민 조사결과와 비슷하게 가장 낮았는데, 언론인은 일반국민 보다 훨씬 기독교에 대해 박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인들의 인식이 일반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 종교별 상대 평가 (%)

구분	기독교	불교	가톨릭	비슷	무응답 /기타	계	비고
본조사	18.9	21.3	32.9		26.9	100.0	
언론인조사	3.3	5.5	41.8	28.0	21.4	100.0	한기언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세미나

조직구성

- 책임연구원 : 조흥식(서울대학교 교수)
- 검토위원회 : 배종석(고려대학교 교수, 검토위원장), 목광수(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신창운(덕성여대 교수), 이상화(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 정병오(서울시교육청 오디세이학교 교사), 정석오(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성돈(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황병구(한빛누리재단 본부장)
- 담 당 : 박제민 팀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여론조사 수행기관 : 지앤컴리서치 - 지용근 대표이사, 강원국 부장

진행일정

- 검토위원회 : 1차 2016년 11월 15일(화)
  2차 2016년 12월 9일(금)
  3차 2016년 12월 23일(금)
- 여론조사 : 2017년 1월 20일(금)~21일(토)
- 결과발표 세미나 : 2017년 3월 3일(금) 오전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1연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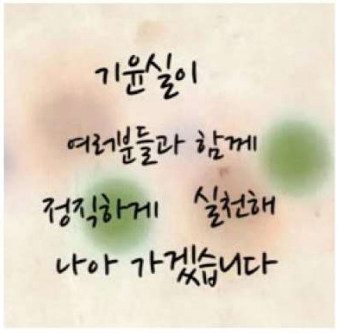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강병관, 김충환, 김현아, 류인복, 손봉호, 손상문, 손용기, 손은정, 신대희, 이금성, 이세령, 이장형, 정병오, 정화선 (개인 후원 14명)
- 문화와설교연구원, 분당우리교회, 울산교회, 좋은나무교회, 홍성사 (교회 및 기관 후원 5곳)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시민운동입니다.

"아무리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해도,
도덕적 수준도 낮다면 살만한 좋은 사회가 아니죠.
먼저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운동을 펼쳐보자는 뜻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장규 자문위원(창립발기인)

기윤실은 지난 20여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법률가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
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 기윤실은 네트워크운동으로 기독교윤리를
각 지역 현안에 맞게 전개하기 위해 지역기윤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윤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한국 사회 앞에 서서 묻습니다.
'앞으로 기윤실은 어떤 운동을 펼쳐나가야 하는가?'

"처음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손봉호 자문위원장
"하나님의 온전함을 사모하며 온전한 일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홍정길 이사장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박은조 공동대표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백종국 공동대표
"교회의 회복은 신앙인다운 결단과 실천을 할 때 시작됩니다" 임성빈 공동대표
"이 시대의 절박함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전재중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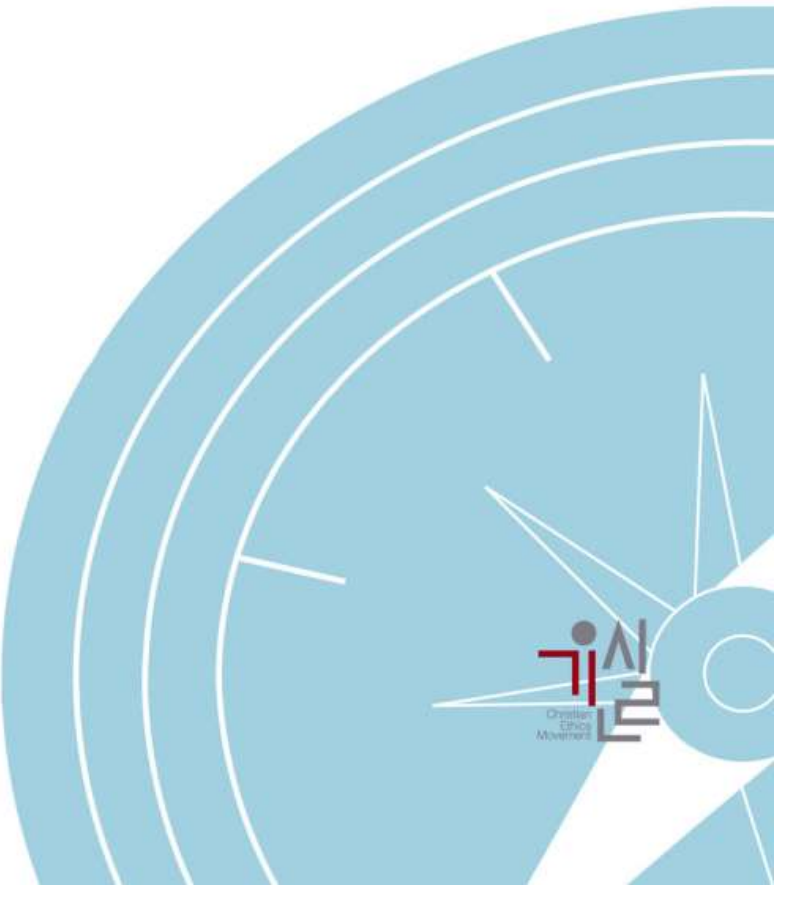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입니다.
기윤실이 여러분과 함께 정직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기윤실 소개영상 바로보기

■ **이사장** :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 **공동대표** : 백종국(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은조(은혜샘물교회 담임목사), 임성빈(장신대 총장)

기윤실 운동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윤실은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7-01-0504-979 *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직접 후원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140-01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Tel**_02-794-6200 **Fax**_02-790-8585
Homepage_www.cemk.org **E-mail**_cemk@hanmail.net **Twitter**_@giyunsil **Facebook**_giyunsil


기독
Christian
Ethics
Movement